

문화다양성축제 MAMF(맘프) 2021 국제학술회의

문화다양성 존중도시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21. 10. 22.
09:20~17:00

장소: 창원대학교 본부2층 대회의실

주최 |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문화재단
주관 |  MAMF(맘프)2021 추진위원회  한국이민학회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존중도시의

현황과 과제

2021. 10. 22.

09:20~17:00

창원대학교 본부2층 대회의실

초청의 글

‘문화다양성축제 MAMF(맘프)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의 자조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이민자와 내국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로서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어울림과 소통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2021년 맘프축제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문화다양성 여건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다양성을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이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다양성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유럽, 일본, 대만의 문화다양성 현황과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도시의 문화다양성 제반 여건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 그리고 다양한 문화집단 간의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가 지역사회와 도시라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확대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금번 학술대회가 문화다양성이 존중되고 지혜롭게 활용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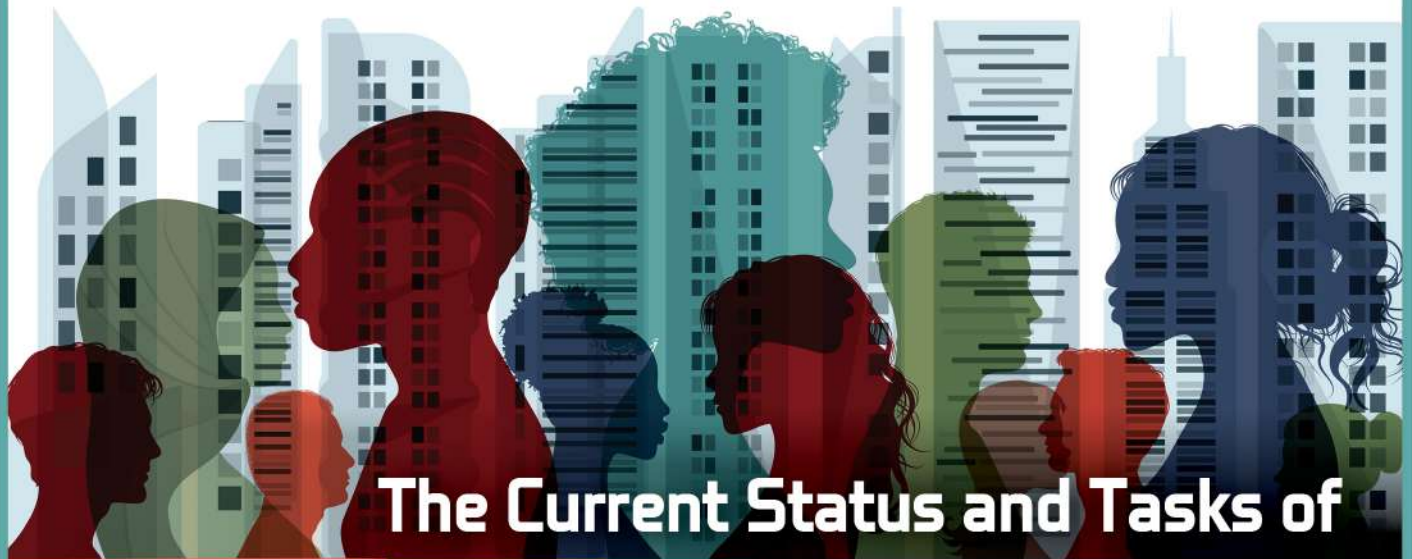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이철승
한국이민학회 회장 윤인진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정은



● YouTube : MAMF 맘프

● 줌화상회의 링크 : <https://korea-ac-kr.zoom.us/j/84861968905?pwd=ZGJMV3FJcnpHTXZDOG1TdDNURzllZDZ09>

프로그램	
9:20 ~ 9:40	<p>〈개회사〉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p> <p>〈환영사〉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p> <p>이정은 (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장)</p> <p>〈축사〉 이상훈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 국장)</p>
9:40 ~ 12:00	<p>1 세션 / 문화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영어로 진행_한국어 자막 통역)</p> <p>사회자: 문경희 (창원대)</p> <p>크리스틴 메르켈 (Christine MERKEL, 문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EU 전문가 그룹 공동회장)</p> <p> 문화다양성의 개념, 현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정표</p> <p>필 우드 (Phil WOOD,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공동설립자) 유럽 상호문화도시의 기원, 원리 및 응용</p> <p>토론: 신지원 (전남대)</p> <p>야마와키 케이조 (Keizo YAMAWAKI, 메이지대) 일본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하마마츠시 사례연구</p> <p>윤인진 (고려대) 한국의 문화다양성 존중도시의 제반여건과 발전 과제</p> <p>리링 후앙 (Liling HUANG, 대만국립대) 다문화도시를 위한 사회적 포용: 대만의 경험</p> <p>토론: 문경연 (창원대)</p>
	12:00 ~ 13:00 점심
13:00 ~ 14:30	<p>2 세션 / 문화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한국어로 진행)</p> <p>사회자: 한승미 (연세대)</p> <p>한건수 (강원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p> <p>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제언</p> <p>토론: 임시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p> <p>장서현 (성균관대)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p> <p>토론: 한준성 (경희대)</p>
	14:30 ~ 14:40 휴식
14:40 ~ 17:00	<p>3 세션 / 한국의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현황과 과제 (한국어로 진행)</p> <p>사회자: 이민경 (대구대)</p> <p>장훈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안산, 역량과 과제</p> <p>조승현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의 상호문화도시 비전과 성과</p> <p>토론: 장한업 (이화여대)</p> <p>송영호 (동국대) 한국인의 문화다양성 인식에 따른 문화자본과 사회통합 수준 비교</p> <p>이내연 (서울대)</p> <p> 이주 및 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p> <p>토론: 김상학 (한양대)</p>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Intercultural Cities

2021. 10. 22.

09:20~17:00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Welcoming Remark



The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is a festival that promote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of migrants and natives by the effort of the self-help community of immigrants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o be held during the MAMF in 2021 will review the overall conditions of cities where cultural diversity is respected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people of diverse race and ethnicity live together,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members of society can become as a driving forc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Already in Europe, the intercultural cities project is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migrants and natives. Korea needs to learn from such a project to find ways to utilize cultural 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diversity in Europe, Japan, and Taiwan and cases of intercultural cities projects will be reviewed. Also, the overall cond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in Korean ci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discussed. Since local communities and cities are the places wher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between migrants and natives, and various cultural groups take place, expanding cities that respect cultural diversity is an important task for a multicultural society. We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serve as a stepping-stone toward a society where cultural diversity is respected and wisely utilized. We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October 22, 2021

Chul-Seung Lee (Director of the Gyeongnam Migrants Community Service Center)

In-Jin Yoon (Presid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Jeong-eun Lee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WNNU)



● YouTube : MAMF 맘프

● 줌화상회의 링크 : <https://korea-ac-kr.zoom.us/j/84861968905?pwd=ZGJMV3FJcnpHTXZDOG1TdDNURzlldz09>

Program	
9:20 ~ 9:40	<p>〈Opening Remark〉 In-Jin Yoon (Korea University)</p> <p>〈Welcoming Remark〉 Chul-Seung Lee (Director of the Gyeongnam Migrants Community Service Center) Jeong-eun Lee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WNU)</p> <p>〈Congratulatory Remark〉 Sang-Hoon Lee (Director of the Gender Equality, Family and Child Bureau, Gyeongsangnam-do)</p>
9:40 ~ 12:00	<p>1 Session / Intercultural Cities and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English is used in this session)</p> <p>President: Kyuonghee Mo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p> <p>Christine Merkel (Co-chair of the EU Expert Group on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al Diversity: Concepts, Reality and Signpos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p> <p>Phil Wood (Co-founder of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The Origins,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n Europe</p> <p>Discussion: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p> <p>Keizo Yamawaki (Meiji University)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and Japan: The Case of Hamamatsu City</p> <p>In-Jin Yoon (Korea University) The Conditions of Intercultural Cities in Korea and Tasks for Development</p> <p>Liling Hu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oward Social Inclusion for Multicultural Cities: The Taiwan Experience</p> <p>Discussion: Kyungyun Mo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p>
12:00 ~ 13:00	Lunch
13:00 ~ 14:30	<p>2 Session /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Korean is used in this session)</p> <p>President: Seung-Mi Han (Yonsei University)</p> <p>Geon Soo H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p> <p>Discussion: Cindy Si Ye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p> <p>Jung-Ah Ryoo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chievements and Limits of Cultural Diversity Policy of Korea and Policy Recommendations</p> <p>Sou Hyun J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versity and the Perception of Immigrants' Contribu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p> <p>Discussion: Junsung Han (Kyung Hee University)</p>
14:30 ~ 14:40	Coffee Break
14:40 ~ 17:00	<p>3 Session / The Status of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n Korea (Korean is used in this session)</p> <p>President: Min Kyung LEE (Daegu University)</p> <p>Hoon Jang (Ansan City) Intercultural City Ansan: Strengths and Challenges</p> <p>Sung-Hyun Cho (Guro-gu, Seoul) Visions and Achievement of Guro-gu as an Intercultural City</p> <p>Discussion: Han-Up Jang (Ewha Womans University)</p> <p>Young-Ho Song (Dongguk University) Comparison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Integration Level according to the Perceptions of Cultural Diversity among Koreans</p> <p>Naey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ceptions of Migration and Migrants, and Conditions of Koreaness-Findings of the 2021 Opinion Poll of Intercultural Cities</p> <p>Discussion: Sanghag Kim (Hanyang University)</p>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문화다양성축제 맘프 2021’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이민학회를 포함하여 행사가 성사되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윤인진 교수님의 노고가 커셨습니다. 창원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문경희 교수님의 노고도 있으셨습니다. 국제학술회의는 바다 건너 해외 학자들도 참여하는 학술회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노고 덕택에 비대면을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을 통해서도 소수자들의 문화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많은 문화를 용광로처럼 녹이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맘프 학술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는 문화다양성 존중도시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다양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역지사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처지를 남의 처지에서 뒤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 나의 처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상대와 만날 수 있고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다양성 존중 도시의 현황과 과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외국인 주민 250만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정부나 사회구성원들이 역지사지의 정신이 미흡하여 불충분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만 생각할 뿐 그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논의가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어, 우리 경남이 문화다양성 존중도시를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여러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활발한 토론이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경상남도 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이 철 승



환영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 2021’의 첫 번째 행사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화다양성 존중 도시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크리스틴 메르켈 문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EU 전문가그룹 공동회장님, 필 우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고문님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신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님과 이철승 맘프 집행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3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 가량이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여기 경남도 한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주민과 지역민 간에 접촉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고용과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으로, 동료로, 친구로, 다양한 관계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문화적 가치가 편견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법적·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16회를 맞는 맘프(MAMF)의 취지 역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외국인주민과 지역민 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 문화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문화 존중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곧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 역시 국내·외 선진 상호문화 도시들의 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문화다양성 존중 도시 연구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 국장 이 상 훈



1 세션 / 문화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1. 크리스틴 메르켈 (Christine MERKEL, 문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EU 전문가 그룹 공동회장) 21
/ 문화다양성의 개념, 현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정표
2. 필 우드 (Phil WOOD,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공동설립자) / 유럽 상호문화도시의 기원, 원리 및 응용 32
3. 야마와키 케이조 (Keizo YAMAWAKI, 메이지대) / 일본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하마마츠시 사례연구 59
4. 윤인진 (고려대) / 한국의 문화다양성 존중도시의 제반여건과 발전 과제 73
5. 리링 후앙 (Liling HUANG, 대만국립대) / 다문화 도시를 위한 사회적 포용: 대만의 경험 99

2 세션 / 문화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1. 한건수 (강원대)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111
2.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제언 130
3. 장서현 (성균관대) /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 143

3 세션 / 한국의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현황과 과제

1. 장훈 (안산시) / 상호문화도시 안산, 역량과 과제 165
2. 조승현(서울시 구로구) / 구로구의 상호문화도시 비전과 성과 182
3. 송영호(동국대) / 한국인의 문화다양성 인식에 따른 문화자본과 사회통합 수준 비교 192
4. 이내연(서울대) 203
/ 이주 및 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참여자 소개



Christine Merkel

Email address:

contact@christinemmerkel.eu, cmm-koeln@web.de, merkel@unesco.de



Christine M. Merkel is an expert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rategy development and public policies in arts, media and culture. She is the head of the Division of Culture, Communication, Memory of the World at the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She is a social scientist with over twenty year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in policy analysis, project management and human development, advising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She is the German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2005 Convention, liaising with seven national ministries and 16 state level authorities as well as convening the civil society consultations on the 2012, 2016 and 2020 Quadrennial Periodic Reports. Her experience includes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unisia, Egypt, Morocco, Jordan, Lebanon, Mauritania, Senegal, South Africa, Bangladesh, China, Nepal, Sri Lanka, Vietnam, Colombia, Peru, Chile, Turkey, Romania, Azerbaijan, Kazakhstan and Kirghizstan, as well as regional assignments (MENA, 2012-2018 CONNEXIONS, 2015-2018 SouthMedCV). Her assignments have included expert missions and policy papers for UNESCO, the European Union, SIDA, IDEA International, the Council of Europe and EMHRF.



Phil Wood

Email address: philwood44@live.com



Phil Wood is an independent writer, researcher and activist in urban policy and culture based in the United Kingdom. He worked in local government for 18 years and since 2000 has worked around the world as a consultant on managing change. He was principal advisor to the Council of Europe on its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based on his book *The Intercultural City: Planning for Diversity Advantage* (2008, Routledge). Phil holds a MA with distinction in European Cultural Planning from De Montfort University.



Keizo Yamawaki

Email address: yamawaki@meiji.ac.jp



Yamawaki Keizo is professor in the School of Global Japanese Studies, Meiji University, Tokyo. He graduated from th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kyo and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Columbia University. He specializes in migration integration. He has advised numerous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ministr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Japan. Since 2010, he has promoted exchange of ideas and good practices in migrant integration between cities in Japan and those in Europe, Korea and Australia. In 2018, he was chosen as one of the awardees of the Foreign Minister's Commendations for his work on migrant integration. He spoke as a Japanese expert at the OECD high-level policy forum, held in January 2020. He is the co-author of *An Introduction to the Intercultural City for Local Governments in Japan*, published in March 2021 by the Council of Europe.



윤인진 (In-Jin Yoon)

Email address: yooin@korea.ac.kr



In-Jin Yoon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He receiv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taught in the Asian American Studies Depart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His primary research areas include social psychology, minority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Northeast Asia* (2013), *History of Koreans Abroad* (2013), *Identity of Koreans* (2016), *Theories and Practices of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2017), *Koreatowns and Korean communities Abroad* (2019).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Mainstreaming* (2019).



Liling Huang

Email address: liling@ntu.edu.tw



Liling Huang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Graduate Institute of Building and Planni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he courses she teaches cover topics on urban planning, policies for livable cities, social housing, and globalization theories for cities. In recent year, her research focus on housing and land development, social inequality and its impact to the urbanism in Taiwan. From 2016-17, Liling Huang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Organization of Urban Reformers (OURs), an NGO founded in the early 1990s in the wave of urban social movement in Taiwan. It aims to monitor urban policies and promote inclusive cities.



한건수

Email address: yoruba@kangwon.ac.kr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장. 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전),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분과 위원 및 한국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가족학회 회장(전),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전), 버클리대학교 인류학 박사.

전공분야는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민족정체성,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요 저서와 논문은 <다문화사회의 이해>,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이민정책론> <한국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종족과 민족> 등



류정아

Email address: ryooja@kcti.re.kr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 (EHESS) 사회인류학 박사.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관리단 위원,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축제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 수상(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반 마련과 확산 부문). 관련 주요 정책연구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지수 측정 연구,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등

주요 저서로는, 『마르셀 모스, 증여론』, 『축제와 융합콘텐츠 전략』, 『한국축제와 지역문화콘텐츠』, 『축제이론』, 『축제인류학』, 『미래사회의 인구구조와 문화수요』 등이 있음.



장서현

Email address: souhyunjang@skku.edu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한국이민학회 연구이사. 뉴욕시립대 사회학 박사.

워싱턴 주립대와 Fred Hutch Cancer Research Center 박사 후 연구원 역임.

전공 분야는 국제이주, 초국가주의, 건강불평등.

주요 저서는 Medical Transnationalism: Korean Immigrants' Medical Tourism to South Korea,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공저), Health Dispariti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sues and Subpopulations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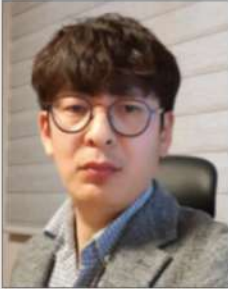


장 훈

Email address: jh1984@korea.kr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정책과 상호문화도시조성 업무
담당 주무관(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송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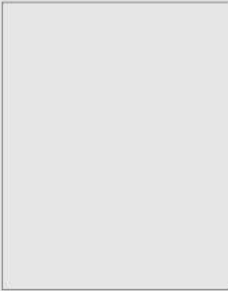
Email address: song0505@gmail.com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국내연수).

전공 분야는 사회심리학, 생애주기, 국제이주, 이주배경 청년, 인권.

주요 논문은 “서울 구로구의 동네 효과(neighborhood effect)가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집합효율성과 외국인 친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 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내연 (Naeyun Lee)

Email address: naeyun@gmail.com



이내연은 국제이주, 시민권, 동아시아의 종족(ethnicity)과 민족주의(nationalism)을 연구하는 정치사회학자이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시민(국적 소지자)과 비시민(비국적 소지자)의 경계,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와 시민권,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배제주의(exclusionism) 등이다.



문경희 (Kyounghee Moon)

Email address: khmoon@changwon.ac.kr



Kyounghee Moon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D in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er main areas of research are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dentity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nd Australia.

Her major publications include *The Politicization of Population and Migration Policies in Australia: the temporary-permanent migration link and its 'unintended' consequence*(Minjok Yeonku, 2021), *Koreans' Erection of the 'Statue of Peace' and 'Comfort Women' Movement in Australia: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Cosmopolitan' Memory and the Manifestation of Transnationalism*(Issues in Feminism, 2018),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First-Generation' Korean Women in Australia* (The Journal of Asian Women, 2018).



이민경

Email address: minkyung0503@daegu.ac.kr



Min Kyung LEE is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 D. from the Univ. Paris 10(France).

Her major publications include "Reflection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implic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western country, "Adaptation strategies of migrant youths", Analysis of discourse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 Focusing on the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sociology of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Educational migration and minorities.



신지원 (Julia Jiwon Shin)

Email address: juliashin@jnu.ac.kr



Julia Jiwon Shin is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he is currently in her research year (2021-2022), affiliat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in the University at Albany, SUNY, USA. She received a Ph.D. in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U.K. Her main research interests are in interdisciplinary and gender sensi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Her major publications include the following topics: labour migr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racial inequality; and refugee/asylum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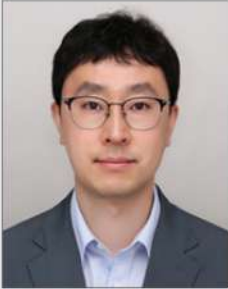


문경연

Email address: gangs3114@changwon.ac.kr



Kyungyun Moon is a research fellow in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D. in 2019 in anthrop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 is the activism of marriage migrants in Taiwan and South Korea. She has lived in Taiwan for 2 years as an exchange student and visiting scholar and has since written articles on the activism of Chinese marriage migrants in Taiwan. She also has been a Multicultural Education Worker since 2009 and filmed a short documentary named "Our House" in 2012.



한준성 (Junsung Han)

Email address: babaro79@gmail.com



Junsung Han i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Public Governance, Kyung Hee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ssues of politics of migration, particularly labor migration, global refugee crisis, 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regularization programs.

He has published various articles (all in Korean), including “Debate on Multiculturalism” (2010), “The Making of the South Korean Migrant Labour Regime and Its Rights Deficit”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Hospitality for Migrants” (2018), and “Refugee Crisis and Regional Cooperation” (2019).



장한업 (Han-Up Jang)

Email address: hujang@ewha.ac.kr.



Han-Up Jang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director of Ewha Mul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at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He received his Ph. D. from University of Rouen (France) on the subject of verbal politeness between Korean and French people. Whereas his early researches covered on French language education and etymology of foreign words, he has been focusing on Intercultural education since 2009. He translated a few French books on inter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education in Korean. His most recent books are *Intercultural Education* (2020), *Language of Discrimination* (2018).



김상학 (Sanghag Kim)

Email address: sanghag@hanyang.ac.kr



Sanghag K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Hanyang University and the editor of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He is also a research associate at the Department of Psychological and Brain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Iowa. His primary research areas include social psychology, human development and sociolization, and sociology of culture and cognition.



발표 내용

Cultural Diversity: Concepts, Reality and Signpos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 • •

Christine Merkel

Co-chair of the EU Expert Group on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bstract

Christine M. Merkel is an expert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rategy development and public policies in arts, media and culture. She is the head of the Division of Culture, Communication, Memory of the World at the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She is a social scientist with over twenty year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in policy analysis, project management and human development, advising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She is the German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2005 Convention, liaising with seven national ministries and 16 state level authorities as well as convening the civil society consultations on the 2012, 2016 and 2020 Quadrennial Periodic Reports. Her experience includes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unisia, Egypt, Morocco, Jordan, Lebanon, Mauritania, Senegal, South Africa, Bangladesh, China, Nepal, Sri Lanka, Vietnam, Colombia, Peru, Chile, Turkey, Romania, Azerbaijan, Kazakhstan and Kirghizstan, as well as regional assignments (MENA, 2012-2018 CONNEXIONS, 2015-2018 SouthMedCV). Her assignments have included expert missions and policy papers for UNESCO, the European Union, SIDA, IDEA International, the Council of Europe and EMHRF.

Key words:

Cultural Diversity: concepts, reality and signpos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21-10-22 / I Intercultural Cities and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Christine M. Merkel (Germany), Co-Chair, European Union OMC Group on the Cultur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20-2022)

Roadmap for this talk

- (1)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decade of action and transformation 2020-2030: Findings from science (GSDR 2019)
- (2)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 SG_UNESCO report July 2021 (UN_General Assembly 05.10.21)
- (3) SDGS in the Covid 19 context, „Make it the last pandemic“ (Independent Panel May 2021)
- (4) Cultural diversity and the notion of interculturalism revisited
- (5)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as an Enabler and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 booster for intercultural cities in Europe and Asia!

Cultural
Diversity:
concepts,
reality and
signpos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decade of action and transformation 2020-2030, GRSD

Deepen understanding the systemic challenges of sustainability and the SDGs

Interlocking - harness co-benefits critical for human health and well-being

Cut across silos - scale up and accelerate change

World overshoot day 2021

August*world-level
May* Europe
biophysical boundaries transgressed

Tipping points biodiversity loss and global climate system

NEEDED: TRANSFORM KEY AREAS OF HUMAN ACTIVITIES, including food, energ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CITIES 2050! Two-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Sourc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September 2019, UN DESA, written by an independent group of 15 scientists, appointed by UN SG (Rio+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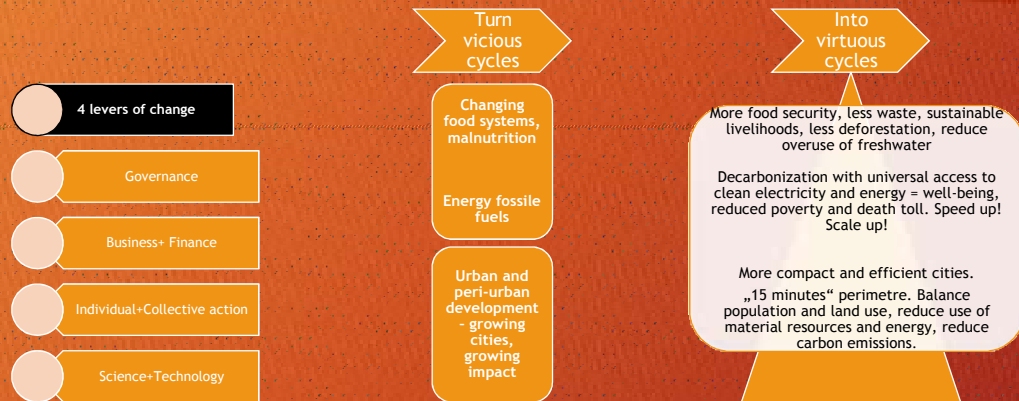
persistent and rising social and gender INEQUALITIES in wealth, income, access to opportunities

TIPPING POINT biodiversity loss

TIPPING POINT global climate system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decade of action and transformation 2020-2030

GSDR 2019 conclusions: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2020-2030 through universal access to quality basic services and by ending legal and social discrimination



“Global policy engagement around harnessing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gained significant momentum and scaled up... While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culture are now undisputed, there is the urgency of addressing cultural diversity and equi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with fair remuneration of artists and creators...investing in women...and in youth”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ecember 2019-July 2021. UN SG with UNESCO,
UN_GA 05.10.2021

“In 2020, 47 countries submitted Voluntary National Reviews on the Agenda 2030. 63% of them reported on integrating culture in their national strategies, mainly addressing SDGs 4-education, 8-decent work and growth, 10-reduce inequalities, 11-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and 13-climate ac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ecember 2019-July 2021. UN SG with UNESCO,
UN_GA 05.10.2021

“ Cultural diversity is becoming a defining characteristics of our societies and essential for a more stable and peaceful world...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and between culture and nature for climate action and protection of biodiversity as a strategic endeavour... ”

Last but not least: „The power of culture for reshaping the public policy landscape...more agility...more robust engagement of local authorities and civil society for cultural policy making and sustained efforts to build knowledge and data“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ecember 2019 - July 2021 UN SG with UNESCO, UN_GA 05.10.2021

“ Covid-19: Make it the Last Pandemic.
„a terrible wake-up call...the lack of planning and gaps in social protection have resulted in widening inequalities with a disproportionate socio-economic impact on women...in addition, on vulnerable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migrants and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

Summary of the Independent Panel May 2021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the COVID 19 context.
Summary of the Independent Panel May 2021

“ Strengths upon which to build:
Country wealth was not a predictor of success.
Vaccines were developed at unprecedented speed.
Open data and open science collaboration were central to alert and response. ”

Summary of the Independent Panel May 2021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the COVID 19 context.
Summary of the Independent Panel May 2021

“The pandemic has hit the culture and creative sector particularly hard and exposed pre-existing vulnerabilities within the sector, such as lack of protection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prevalence of the informal economy, dependance on tourism revenue, insufficient adaptation to digital opportunities and the need to review and adapt policy mechanisms.”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UN-GS and UNESCO December 2019-July 2021. UN_GA 05.10.2021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the COVID 19 context.
Summary of the Independent Panel May 2021

“Strengths upon which to build:
the pandemic brought to light the role of culture for well-being, resilience and social cohesion. Continuous access to culture during lock-down was provided in multiple ways, including online, leading also to increase in the use of cultural resources, e.g. streaming of music and film.”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UN-GS and UNESCO December 2019-July 2021. UN_GA 05.10.2021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the COVID 19 context.
Summary of the Independent Panel May 2021

Cultural Diversity revisited

UNESCO 1946, 1982, 1995, 2001, 2005...2022



Recalling the definitions of the 2005-UNESCO Convention

- *Cultural diversity* refers to the manifold ways in which the cultures of groups and societies find expression. These expressions are passed on within and among groups and societies.
- Cultural diversity is made manifest not only through the varied ways in which th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s expressed, augmented and transmitted through the variety of cultural expressions,
- but also through diverse modes of artistic creation, production, dissemina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 *whatever the means and technologies used (CMM) Article 4, 1.*

Recalling the definitions of the 2005-UNESCO Convention

- *Interculturality* refers to the existence and equitable interaction of diverse cultures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shared cultural expressions through dialogue and mutual respect. *Article 4, 8.*
- *Being aware* that cultural diversity is strengthened by the free flow of ideas, and that it is nurtured by constant exchanges and interaction between cultures (*preamble*)

Recalling the definitions of the 2005-UNESCO Convention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re (extract)

(1c) to encourage dialogue among cultures with a view to ensuring wider and balanced cultural exchanges in the world in favour of intercultural respect and a culture of peace;

(1f) to reaffirm the importance of the link between culture and development for all countries, particularly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upport actions undertake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o secure recognition of the true value of this link;

And, among the guiding principles,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Cultural diversity is a rich asset for individuals and societies.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al diversity are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rticle 2,6*)

Cultural Diversity Writ Large

A reality

- XXI century
- Denial!

A fact

- Not a choice
- Hatred!

A task

- Cities
- Inclusive governance
- Learning communities

The cultural dimension as enabler and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 a booster for intercultural cities

SDGs - Co-Benefits

- **Social** no poverty, reduced inequalities, good health and well-being, quality education, peace, justice, strong institutions...
- **Economic**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s, zero hunger, gender, partnerships...
- **Environmental**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lean water, clean energy, sustainable communities, climate action...

Culture as *Enabler*

Access to cultural resources and services as enablers for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 Cultural centres and hubs. Arts and well-being.

Innovative cultural content and production as enablers to envisage sustainable life styles.

Cultural spaces and green transition; shaping active citizenship and appetite for change.

Culture as *Driver*

Sustainability of Cultural Creative Sectors new forms of cultural participation and funding modalities. CCI ecosystems and cultural welfare.

Access to and practice of CCI ecosystems and cultural welfare as well as to tangibl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al and community based initiatives and cross-sectoral co-operation.



Question time!

contact@christinemmerkel.e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

The Future is Now!

The origins,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n Europe



Phil Wood

Co-founder of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

Abstract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s a network of 147 cities and regions united in the aim of making cultural diversity a source of creativity and prosperity.

It was founded in 2008 adopting its principles from the Council of Europe's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and its methodology from my book "The Intercultural City: Planning for Diversity". In making cities the driving force, it sought to create a more nuanced and less ideological alternative to the nation-state approach which often polarises migration (positively) as simply a source of flexible labour or (negatively) as a cause of inter-communal strife and terrorism.

It seeks to encourage, support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actical solution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riving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ies in conditions of ethnic diversity. It proposes mixing and cooperation rather than segregation, recognising difference but building upon points of common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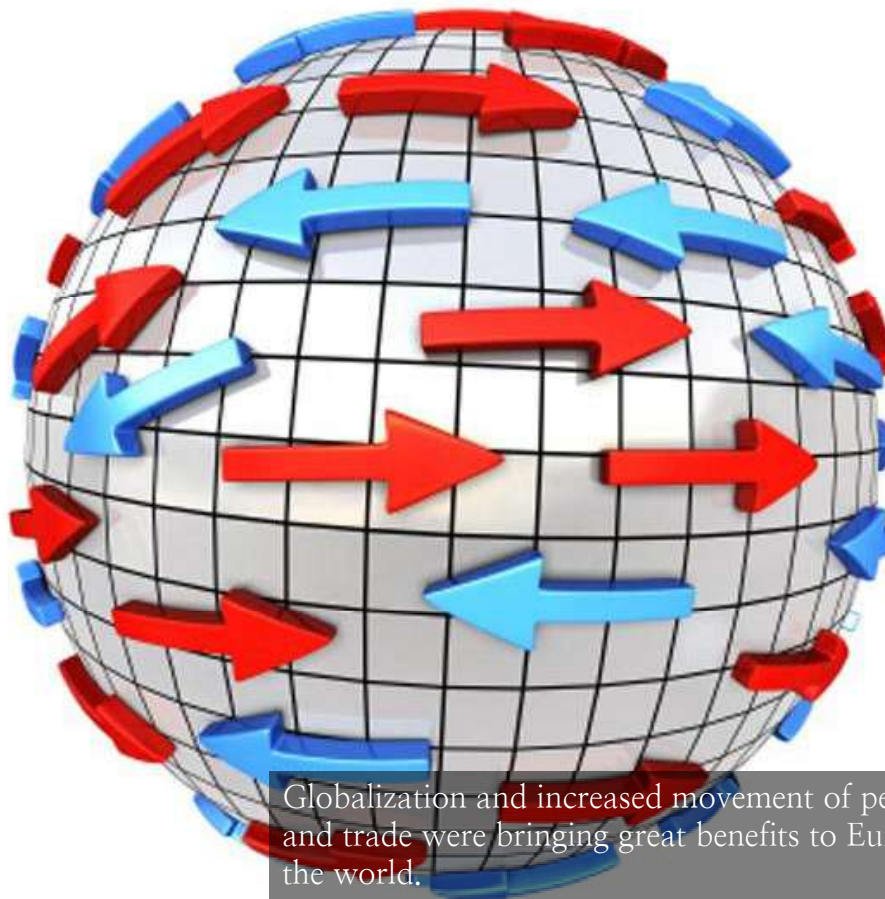
My paper relates the foundation of the network, its growth from a European to a global network, it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nd its future prospects.

Key words: Intercultural, migration, cities, mixing, diversity advantage.

The origins,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n Europe

Phil Wood





Globalization and increased movement of people, ideas and trade were bringing great benefits to Europe and to the world.



But there could also be some collateral risks, particularly when nation-states came into contact with extensive change.

Much change in our world is difficult to see, but the arrival of new people with new cultures and new languages is often the most tangible manifestation of change in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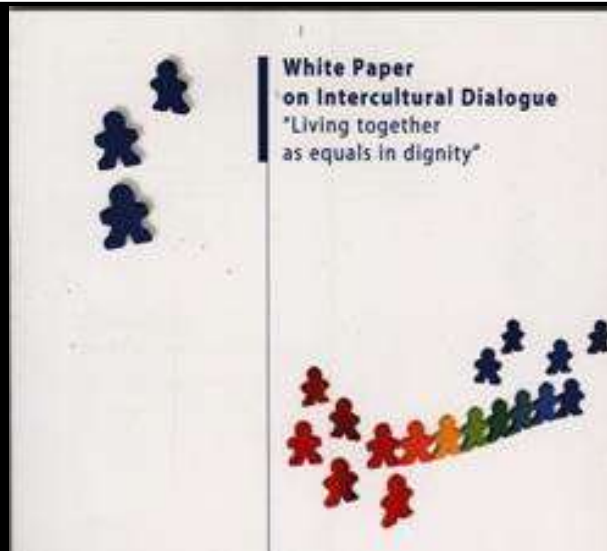


Certain member states within the Council of Europe showed increasingly exclusionary responses to the arrival of the new population groups.

exclusion

Diversity has become the scapegoat for anxiety about change

While many nation-state governments were struggling to cope with or explain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 that was happening to their own populations, it became rather too easy for some governments to blame the change on new minority groups settling in societies.



Because of all this the Council of Europe produced the first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which set out principles to avoid the tendencies to exclude or divide and to bring about cooperation in society. But what it lacked was an operating system. Phil Wood and Charles Landry, coming from urban policy perspective, saw that cities will become the fulcrum of growing diversity. They established a research to ask mayors and city officials what their response was to the growing diversity in their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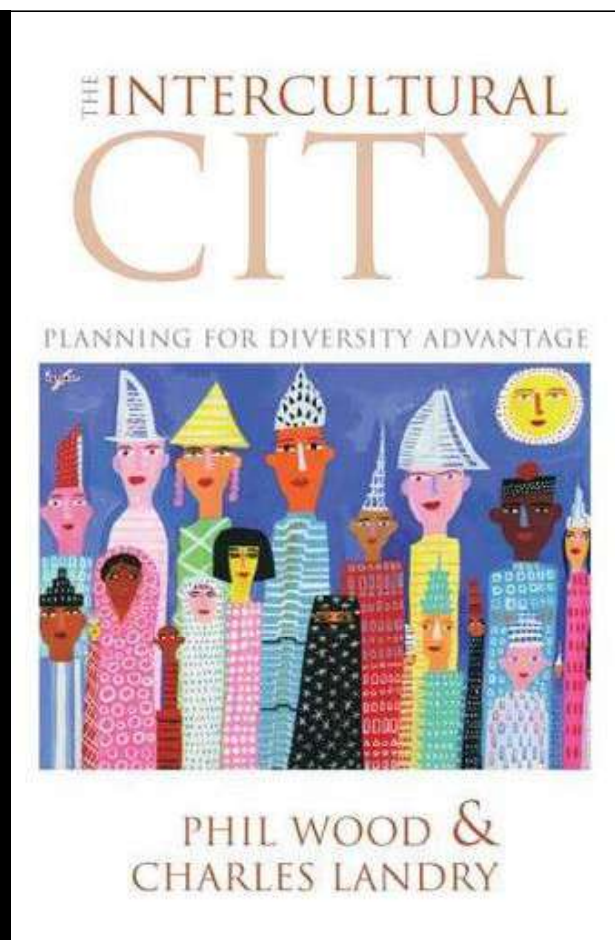
A CHANGE IN MINDSET

How does the
city think of its
diversity?

a threat?

a nuisance?

an opport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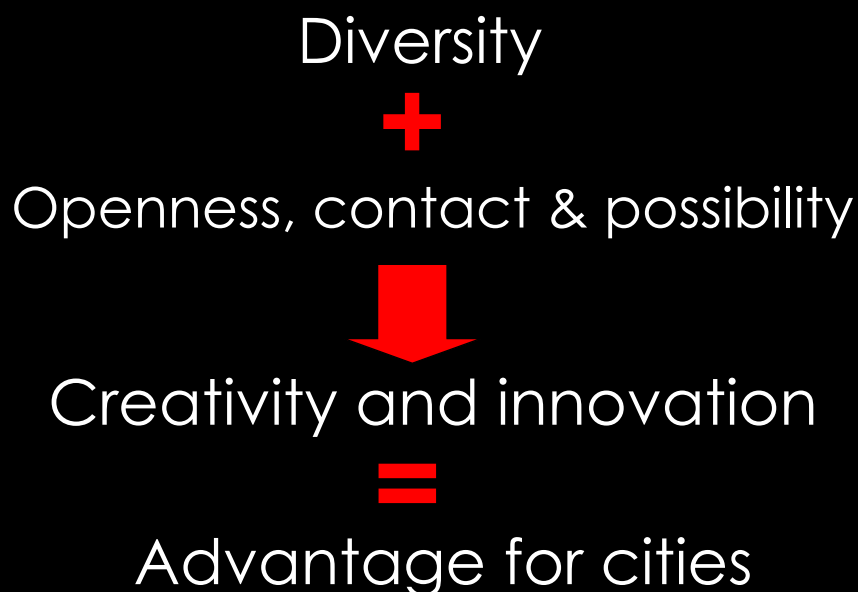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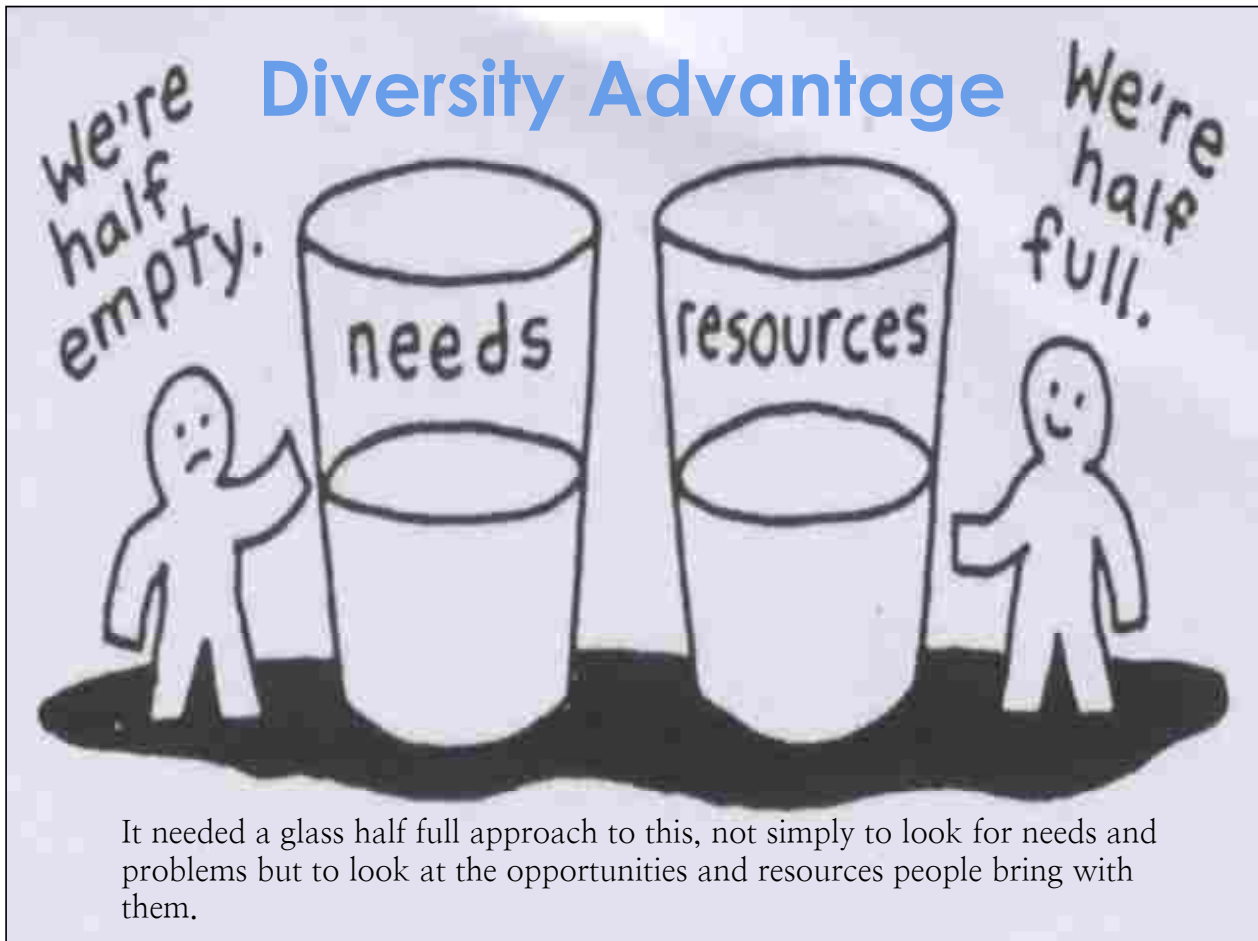
Problems

- Agenda is dominated by national government and media
- Yet cities are where most strangers must learn to live together. It was important to give cities a voice.

Opportunities

The Council of Europe had previously worked through nation-states, so the idea gave a new way of looking at cities as places where diversity could be turned from a potential problem to clear advantage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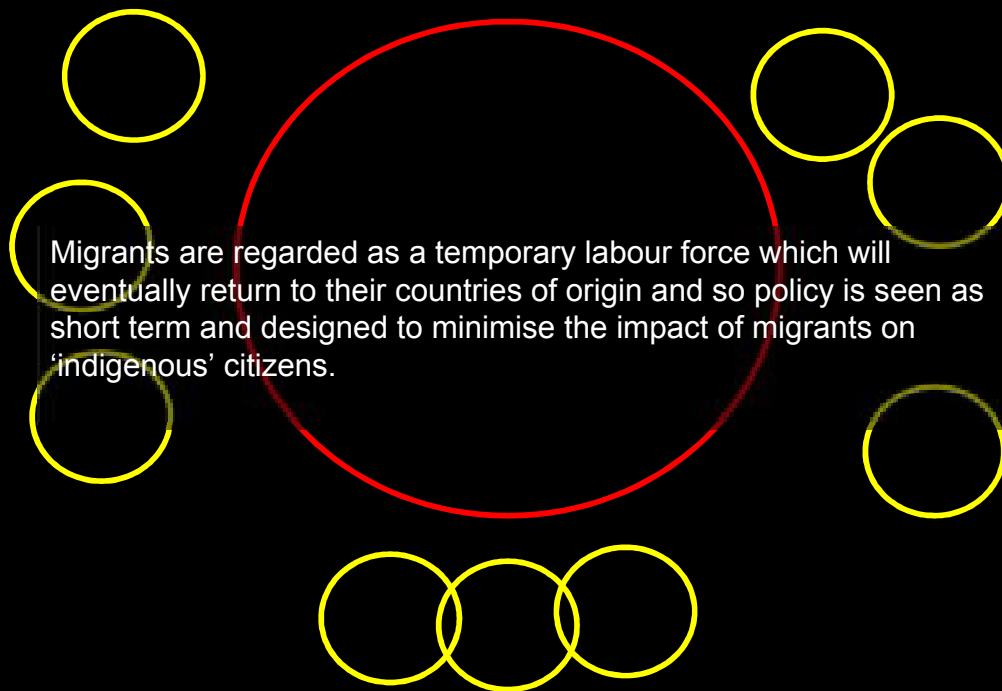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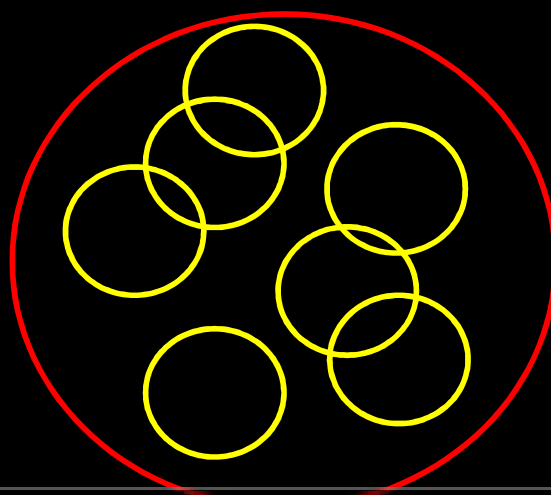
a new policy for new times

But beyond that, we needed a new policy because we reviewed existing policies around the world and saw a lot of failure.

Guest worker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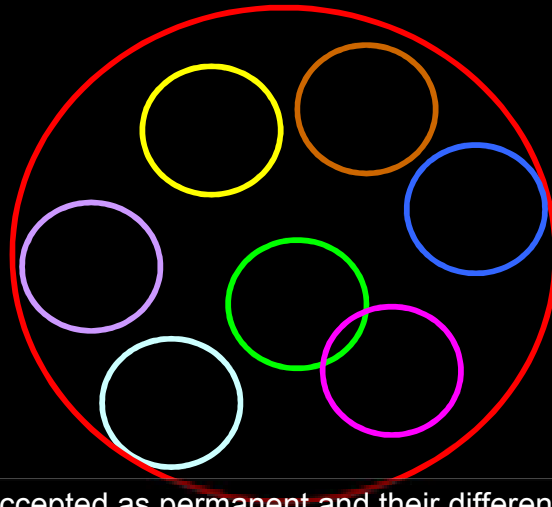


Assimilation city policy



Migrants can be accepted as permanent but it is assumed that they will be absorbed as quickly as possible. Their differences from the cultural norms of the host community will not be encouraged and may even be discouraged or suppressed if they are considered a threat to the integrity of the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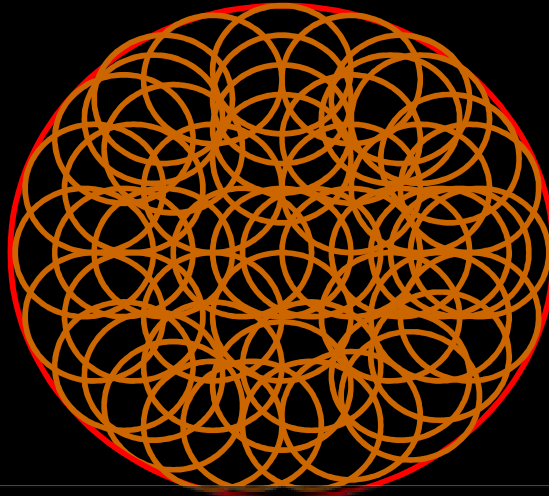
Multicultural city policy



Migrants can be accepted as permanent and their differences from the cultural norms of the host community are to be encouraged and protected in law and institutions backed by anti-racism activity, accepting of the risk that this may in some circumstances lead to separate or even segregated development.



Intercultural policy



Migrants can be accepted as permanent and whilst their rights to have their differences from the cultural norm of the host community are recognised in law and institutions, there is a valorisation of policies, institutions and activities which create common ground, mutual understanding and empathy and shared aspirations.

Integration policy matrix

	Economic rights	Civil & social rights	Cultural rights	Community building & cohesion
Guest worker	✓			
Assimilation	✓	✓		
Multiculturalism	✓	✓	✓	
Interculturalism	✓	✓	✓	✓

BEING INTERCULTURAL is...

- A framework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Outlaw discrimination
- All sides must change
- Hybrid dynamic identities

BEING INTERCULTURAL is...

- Diversity as a resource
- Empower the places where cultures meet – and hybridise
- Empower bridge-builders not gate-keepers
- Don't avoid conflict – expect it, manage it

Tolerance



Is not enough

IT WON'T HAPPEN BY ACC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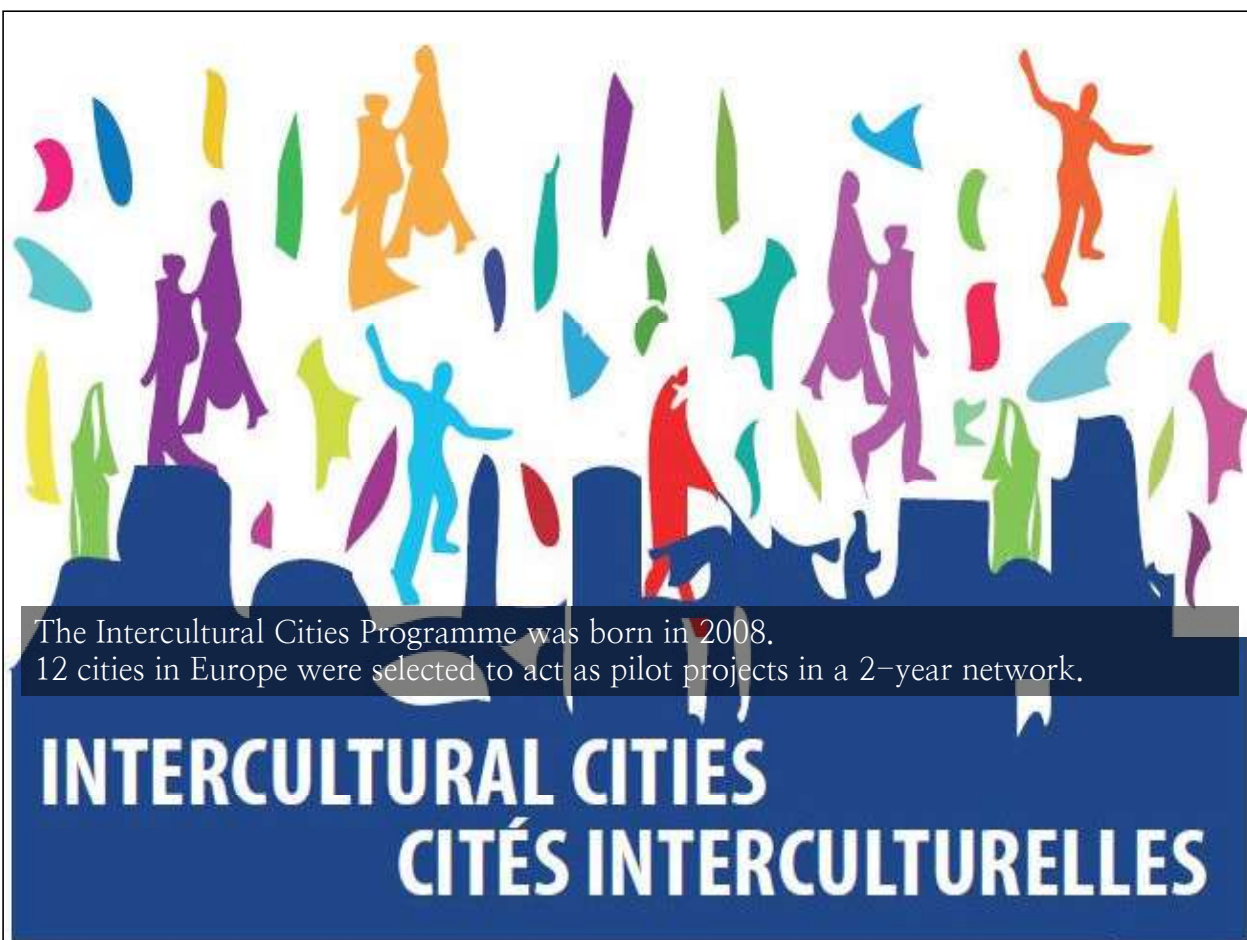
There need to be:

- Reasons to interact
- Incentives to interact
- Places, institutions agents and tools of interaction



BEING INTERCULTURAL

- **interDISCIPLINARY**
- **interDEPARTMENTAL**
- **interSECTORAL**
- **interAGENCY**
- **interPERSONAL**
- **interGENERATIONAL**



How ICC works



The intercultural city step by step

Practical guide for applying the urban model of intercultural integration

The Intercultural Cities Toolkit

- Conceptual tool
 - the intercultural lens
- Analytical tool
 - the intercultural city policy grid
- Developmental tool
 - the intercultural city network
- Benchmarking tool
 - the intercultural city index

Review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city through an INTERCULTURAL LENS



Reviewing our communities through an intercultural lens

If greater intercultural engagement was one of our priorities, how would we plan things differently?

- An open space
- A housing estate
- A shopping centre
- A school?



Intercultural Cities POLICY G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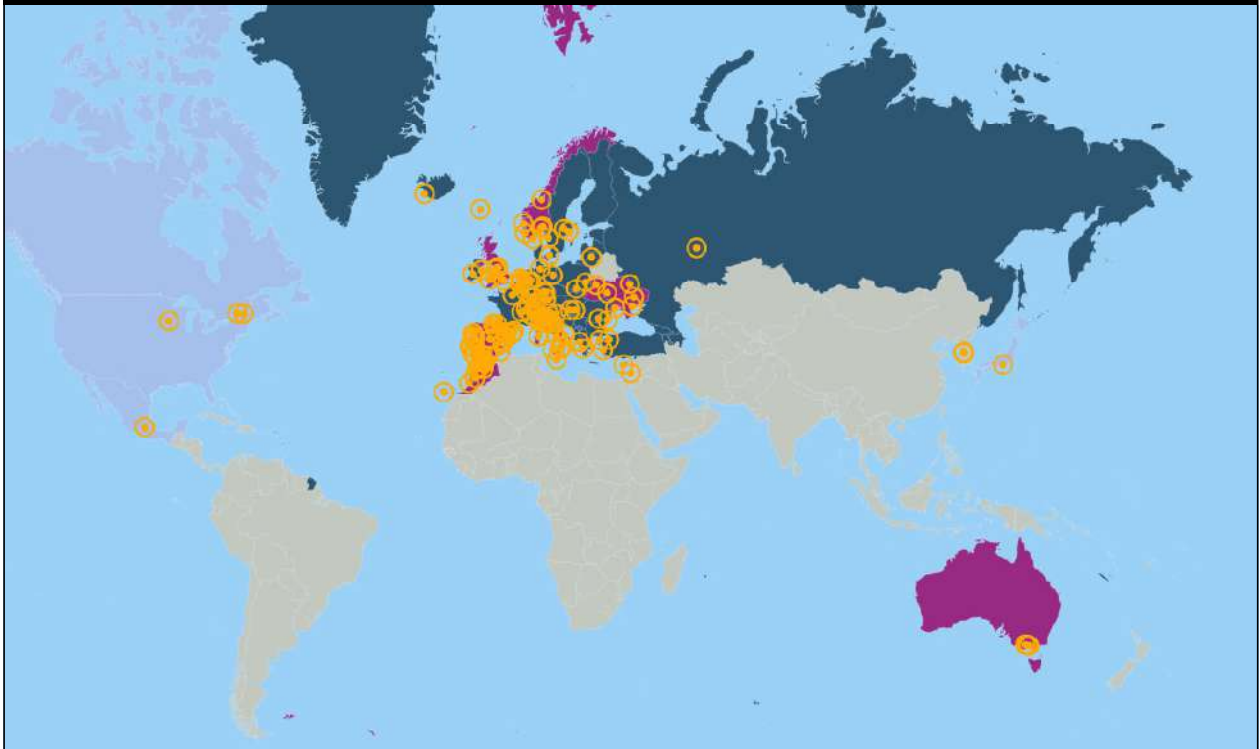
	NON-POLICY	GUEST WORKER POLICY	ASSIMILATIONIST POLICY	MULTI-CULTURAL POLICY	INTER-CULTURAL POLICY
Minority group organisations	State ignores them	Informal co-operation on limited issues	States does not recognise them	State supports them as agents of empowerment	State supports them as agents of integration
Labour Market	Ignore. Turn a blind eye to black market activity	Minimal regulation – limited vocational assistance	General vocational support – non-ethnic criteria	Anti-discrimination policy; Affirmative action on training and hiring	Anti-discrimination policy;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linguistic skills emphasised
Housing	Ignore migrant housing. React to crisis with temporary shelters	Short-term housing solutions; minimal regulation of private rental sector	Equal access to social housing – non-ethnic criteria. Ignore discrimination in housing market	Anti-discriminatory lettings policy. Affirmative access to social housing	Anti-discriminatory lettings policy. Ethnic monitoring. Encouragement for ethnic housing mix
Education	Ad hoc recognition of migrant children	Enrol migrant children in schools	Emphasis on national culture. State ignores supplementary schooling	Mother tongue language support. Religious and cultural education.	National and mother tongue/ culture teach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all. Desegregation

Intercultural city network

INTERCULTURAL CITIES I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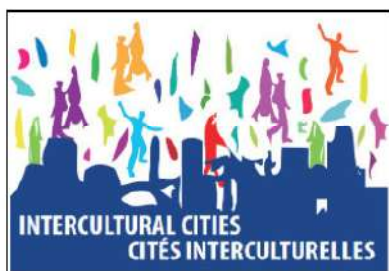


INTERCULTURAL CITIES WORLDWIDE



Intercultural Cities Networks

Some cities are **fu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with privileged access to all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dedicated expert support. Moreover, **8 national networks** have been created – Australia, Italy, Morocco, Spain, Norway, Portugal, Ukraine and United Kingdom which increases outreach and impact.



NUMBER OF CITIES

0147

International Network

Australasia

Italy

Morocco

Norway

Portu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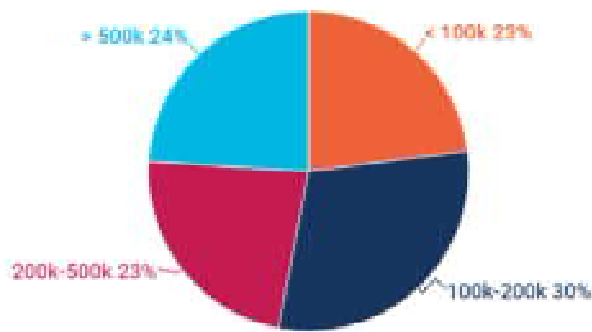
Spain

Ukra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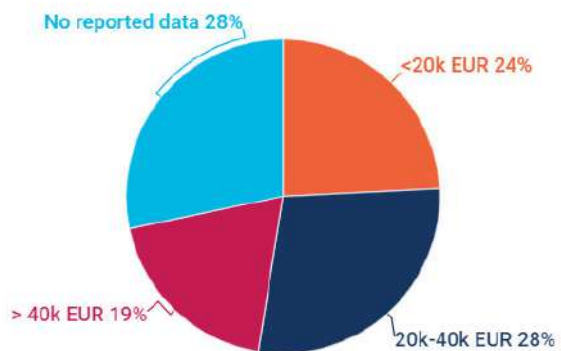
United Kingdom

Intercultural Regions

Population size among ICC Cities



GDP per Capita in ICC Cities



Cities
learning
from each
other

Intercultural cities: good practice examples




Guidance for city policy-makers with good practice examples

The Intercultural city aims at basing its policies and identity on the explicit acknowledgement that diversity can be a resource and not necessarily a problem. To achieve this, the city puts in place a strategy to adapt its governance system and its

policies in all relevant fields to the needs of a diverse population. Intercultural city strategies need to facilitate positive intercultural encounters and exchanges but should not ignore or fail to address intercultural conflict. Conflict is to be welcomed as inevitable. Handled well, it can lead to mutual learning and growth for all participants, including city authorities.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ommunities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intercultural city strategy is not only important and a value in itself, it is essential for achievement. A genuinely intercultural cit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the major institutions, groups and communities in the city.

Included in this section are examples of intercultural approaches in a range of policy fields which c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strategies.

 [Good practice](#) (last update: September 2016)



SOCIAL MEDIA



Neuchâtel, Switzerland.
The Initiative to Welcome Strangers



INTERCULTURAL GOVERNANCE

Oslo, Norway:
OXLO program
(Intercultural Governance Program)





B-INVOLVED

[HOME](#)
[NEWS](#)
[THINGS TO DO](#)
[EVENTS](#)
[ADVICE](#)
[YOUNG MAYOR](#)
[ABOUT](#)



YOUNG MAYOR ELECTION CANDIDATES 2012

Lewisham, UK:
Young Mayor Initiative



**PLA BARCELONA
INTERCULTURALITAT**



Ajuntament de Barcelona

- ANTI-RUMOURS PROJECT



DELI kick-off meeting

4-5 MARCH 2014

BRUSSELS, BELG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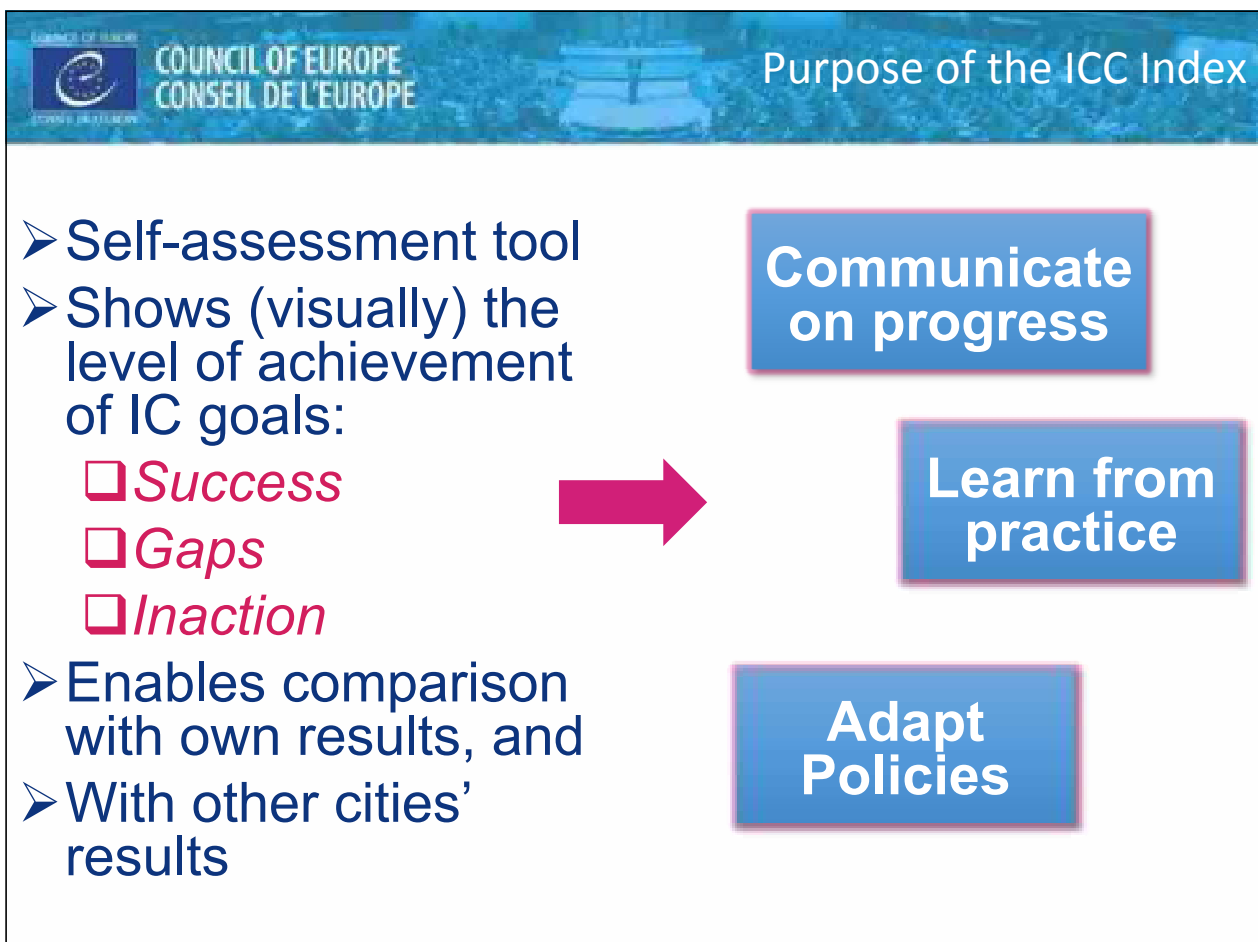
The Council of Europe launches an innovative project to foster more efficient local policies in support of migrant-owned SMEs and migrant entrepreneurship
What can we do to support mig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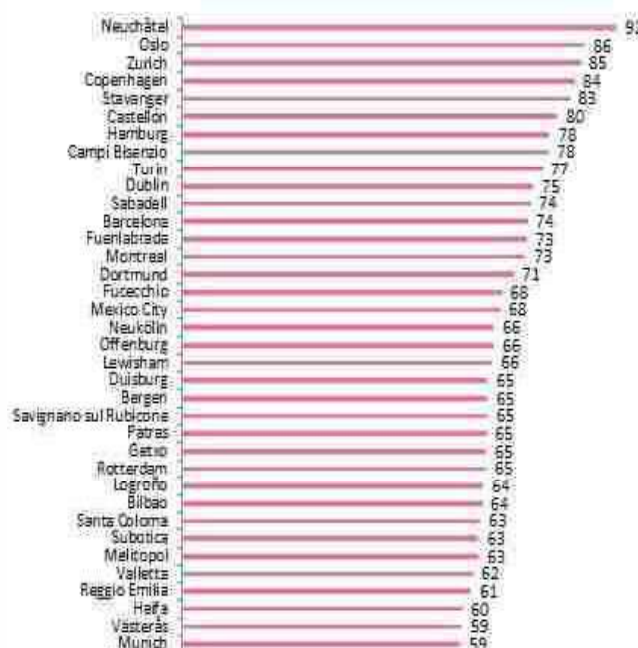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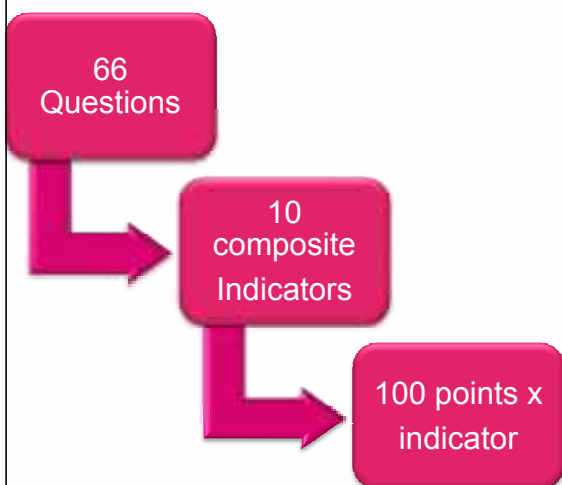


measuring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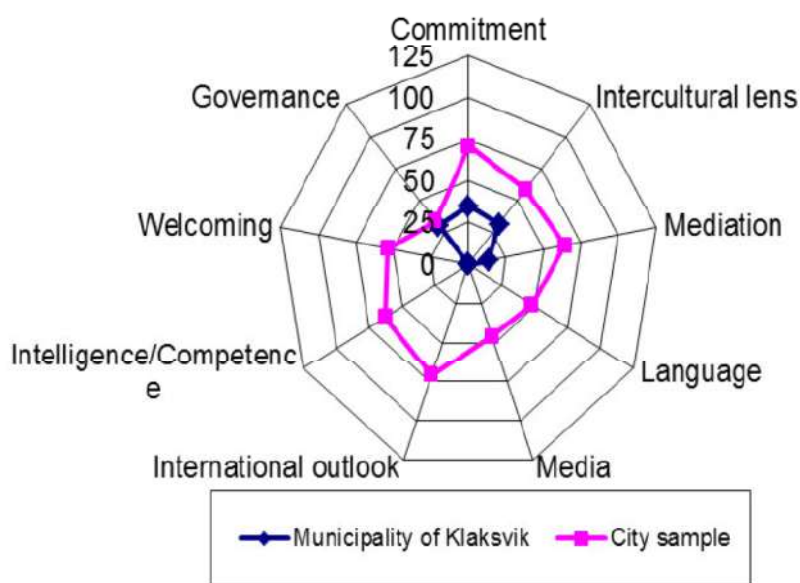
INTERCULTURAL CITIES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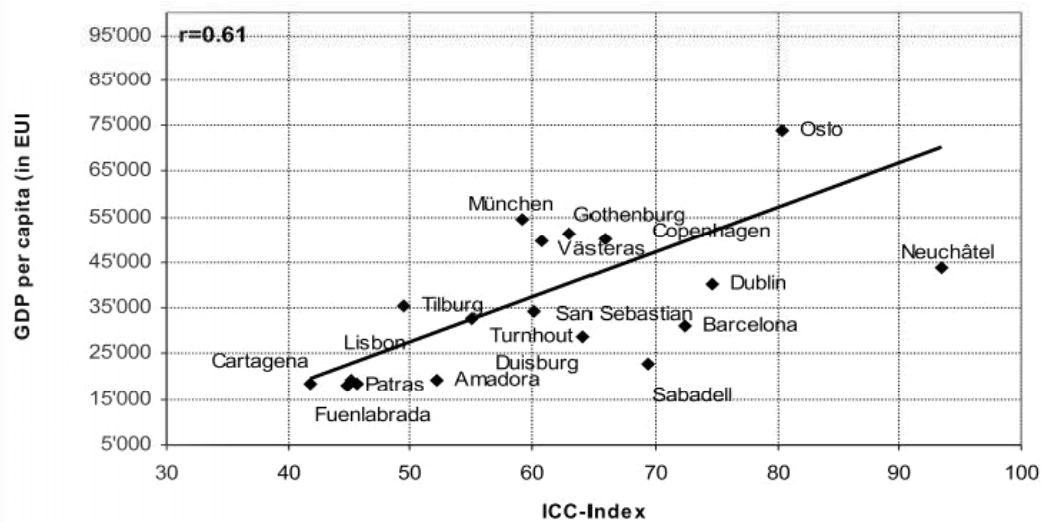


Intercultural cities
Building the future on diversity

www.coe.int/intercultural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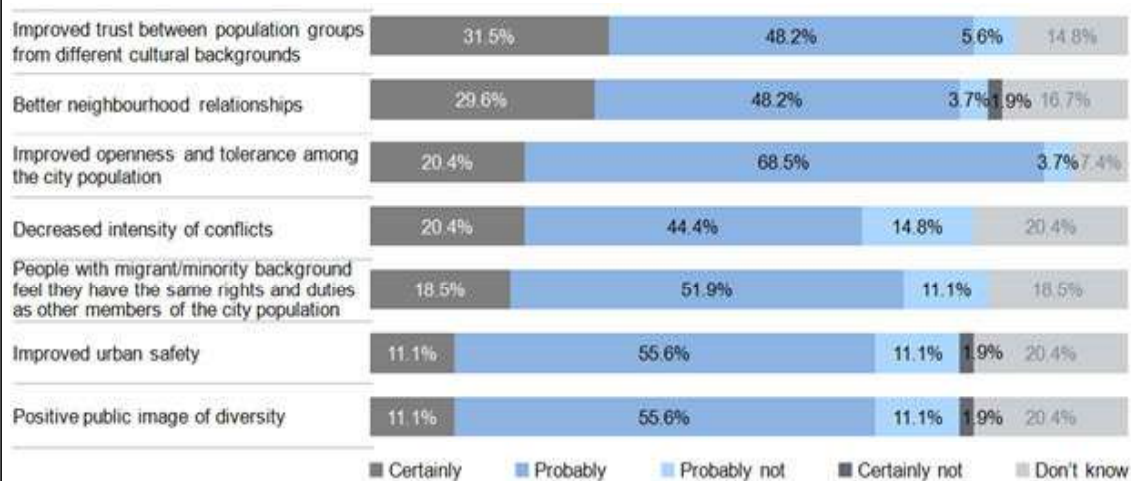
Relation of economic success and ICC-Index



Note: N=19

Source: Intercultural Cities Project, CoE 2011

Measuring impact



Source: Online survey among ICC coordinators of member cities

the outcome
intercultural
city strategy

감사합니다

Thank you

www.coe.int/interculturalcities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and Japan : The Case of Hamamatsu City



Keizo Yamawaki
Meiji University

Abstract

The Council of Europe initiated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n 2008, forming a network of European cities which promote migrant integration. It aims to offer a new approach to integration, that is, “interculturalism,” as an alternative to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Japan is one of the observer states of the Council, and the Japan Foundation, a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harge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moted exchange between the intercultural cities in Europe and Japanese cities as soon as the program started in Europe.

In this presentation I will first discuss the general situation about migrant integration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issue in Japan. Then I will deal with the impact of the program on Japanese cities, focusing on Hamamatsu, which joined the programme in 2017. Finally, I will discus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Japanese cities, including Hamamatsu, in migrant integration in the coming years.

In Japan, the keyword of migrant integration has been *tabunka kyosei*, which became an official policy term when it was referred in 2006 by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migrant integration, set up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nd Communication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attempt to integrate interculturalism and *tabunka kyosei*.

Key words: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Hamamatsu, Japan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and Japan: The Case of Hamamatsu City

**Yamawaki Keizo, Meiji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2021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22 October 2021**

Outline

- 1. Introduction to migrant integration in Japan
- 2. Impact of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 on Japanese cities
- 3.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Japanese cities

1. Introduction to Migrant Integration in Japan

Demographic Crisis

- 128 million (in 2008) to 88 million (in 2065)
- productive-age: 87 million (in 1995) to 45 million (in 2065)
- In 2020, decrease of 500,000 Japanese
- Aging rate: 29% (in 2020) to 38% (in 2065)
- Half of the municipalities will disappear by 2040

Foreign Residents

- Increase up to 2008, increase again since 2013 and decrease slightly since 2020
- 2.82 million (2%) as of June 2021
- From China, Viet Nam, South Korea, Vietnam, the Philippines, Brazil ...
- Half of them are long-term residents

Migrant integration by local governments

- 1970s: local governments with a large Korean community
- 1990s: local governments with a large Brazilian community
- 2000s: *Tabunka Kyosei* policy

Tabunka Kyosei

- Key concept for local migrant policy
- *Tabunka* as many cultures, *Kyosei* as living together
- NGOs then local governments started to use the term in the late 1990s
- 2006: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MIC) made the plan to promote *Tabunka Kyosei* in local communities

The national network of cities

- Council of Municipalities with a Large Foreign Population.
- Established in 2001 by cities with migrant workers, mainly Brazilians of Japanese descent.
- 13 municipalities as of 2021.
- Led by Hamamatsu, it's been influential in the national government's policy on migrant integration.

National government

- 1990s: Piecemeal countermeasures
- 2006: MIC's Plan for *Tabunka Kyosei*
- 2006: General Measures regarding
Foreigners as Residents
- 2011: Action Plan on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of Japanese Descent

New Policy on Foreign Workers

- In December 2018, the Immigration Act was revised to admit “semi-skilled” foreign workers for the first time.
- Also a set of comprehensive measures to admit and to live with foreign workers was adopted.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set up at the Ministry of Justice in April 2019, is supposed to play a coordinating role in government policies on foreign citizens.

2. Impact of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on Japanese Cities

Exchange with the Intercultural Cities

- Intercultural Cities Program started in 2008 by Council of Europe.
- Aims at making the most of diversity as well as promoting integration through interaction among different groups.

Summits of Asia-Europe Intercultural Cities

- Mayors from Europe, Japan and Korea
- Tokyo, January 2012 with 9 mayors
(Lisbon, Botkyrka, Suwon etc)
- Hamamatsu, October 2012, with 11 mayors
(Copenhagen, Dublin, Gwangmyeong etc)
- Ansan, October 2013 with 7 mayors
(Dublin, Bilbao etc)

Tokyo Declaration (2012)

- we declare that we regard the cultural diversity of our cities as an asset, and that we will explore a new urban vision which can build upon diversity to foster dynamism, innovation, creativity and growth.
- To that end, we will seek to establish a partnership between intercultural cities to learn from each other's achievements and seek answers to our common challenges.

Hamamatsu as a leading city in migrant integration in Japan

- 2001: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of Municipalities with a Large Migrant Population (*Gaikokujin Shujutoshi Kaigi*)
- 1/2012: Participation in the Tokyo Summit
- 10/2012: Host of the Hamamatsu Summit
- 2013: the Intercultural City Vision
- 2014: Revision of the Code of the Council

Intercultural City Vision of Hamamatsu (2013)

- The first municipal plan which adopted the concept of the Intercultural City in Japan
- Emphasis on diversity advantage for local vitalization and cultural creation

Revision of the Code of the Council of Municipalities with a Large Migrant Population (2014)

- Revision of the Article 2 (the purpose of the council)
- Diversity as vitality for urban development

Tokyo *Tabunka Kyosei* Guidelines (2016)

-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s 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Tabunka Kyosei
- “Embrace diversity and build a city where all residents can participate and play an active role in its development and feel safe.”

MIC's Publication of Good Practices in *Tabunka Kyosei* (2017)

- Call for networking of cities and exchange of good practices.
- Reference to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 for the first time in government publications in Japan.

MIC's Revision of the Plan for *Tabunka Kyosei* (2020)

- Revision of the 2006 Plan
- Emphasis on foreign residents as active members of community building
- Column i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refers to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s, such as the ICC.

Tabunka Kyosei and Intercultural City

- MIC's 2006 plan consisted of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intercultural community building
- Local governments used to focus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 More emphasis on community building
- *Tabunka Kyosei* defined as interculturalism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3. Challenges for Japanese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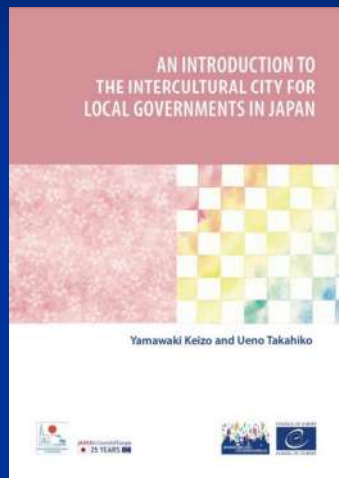
Cities leading the State?

- The national government has no long-term vision on migrant integration
-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Council, have led the national government in integration policy
- Cities, such as Hamamatsu, may offer an intercultural model of integration for the national government.

Challenges

- Since Hamamatsu joined the ICC in 2017, no other city have done so in Japan.
- Kobe is considering joining.
- Barriers: English language and the generalist-oriented personnel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Intercultural City for Local Governments in Japan



Council of Europe, March 2021

<https://rm.coe.int/introduction-to.../1680a1a65a>

The Conditions of Intercultural Cities in Korea and Tasks for Development

● ● ●

In-Jin Yo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migrant cultural diversity of Korea's local governments, fin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multicultural programs, and to search ways to improve them. For this purpose, I review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ity and its programs across the world, examine the cases of Ansan City and Guro-gu, the two representative intercultural cities of Korea, and analyze the infrastructure of multicultural programs of 245 local governments. The infrastructure of multicultural programs was measured by ordinances for foreign residents, projects, budgets, dedicated departments and personnel directly related with the execution of multicultural program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All local governments have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 ordinances are heavily oriented toward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Although foreign migrant workers and Korean Chinese compatriots are more numerous than multicultural families, they are marginalized and excluded from the multicultural programs. The performance of multicultural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is directly affected by the size and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size of native population and foreigners. Thus, larg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end to run more projects with larger budgets and manpower than smaller cities, districts, and counties. However, considering the number of foreigners in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with small and aging native population are active in operating multicultural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recommend the transition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to a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expansion of policy targets to various cultural groups of native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a cultural diversity index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and regular survey of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in cultural diversity programs.

Key words: Intercultural city;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affirming cities,
Cultural diversity programs, Local government

The Conditions of Intercultural Cities in Korea and Tasks for Development¹

In-Jin Yoon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I. Introduction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t appears that Koreans'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s, and multicultural society have changed through the stage of sympathy to apathy, and to hatred (Yoon, 2019).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classify the times, from 1990 to 2010, the tolerant and sympathetic multicultural discourse spread and gained public support.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ildren were portrayed by the media as victims and the disadvantaged who need protection and support. From 2010 on, people's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policy turned sour, and some segment of Korean society began to complain that the government is too generous for marriage migrants and children while similarly disadvantaged classes of natives are neglected. Also, the fear of job replacement of native workers by migrant workers, and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have made Koreans less sympathetic toward immigrants. As a result, multiculturalism became a synonym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gained the image of stigma, and criticism against the government's generous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lower classes of society have mounted. From 2020 onward, social anxiety due to COVID-19 has been prevalent, and hate and exclusion targeting foreigners have been blatantly expressed. Some conservative politicians have publicly argued that the disaster aid paid to alleviate the economic hardship caused by COVID-19 should not be given to foreigners. Until recently, public criticism and hatred of foreigners has been considered politically incorrect and discouraged by the media and politics. However, the fact that politicians with great social influence openly oppose foreigners suggests that Korea is entering an era of backlash where majority groups claiming to have been subjected to reverse discrimination demand that in the name of fairness, the existing consideration of minorities and socially disadvantaged be stopped.

¹ This paper wa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2021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Intercultural Cities) held at th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ctober 22, 2021.

For a long time, Korea was a barren soil for multiculturalism to flourish, but the current situation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foreigners and migrants. The term ‘multiculture’ has become a social stigma and causes psychological rejection in the general public.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regard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coexistence and integration of natives and migran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regularly conducted a national survey of the general public’s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made efforts to improve their awareness. However, the term “acceptance” or “acceptability” is perceived by the general public as a norm and pressure that must be accepted, contrary to its intention, and may cause rejection.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recent fairness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is raised by the establishment class, who believes they have been subjected to reverse discrimination because of what was considered politically incorrect in the pas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alternative concept or a term that is more value-neutral and universal tha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at can be more readily accepted by the general public without refusal or repulsion.

I think cultural diversity has the same meaning as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advantage of this term is that it is not limited to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so it is a universal concept encompassing various cultural groups. Cultural diversity is an essential and universal characteristic of all cultures and starts with the proposition that culture is a basic human right. And beyond the level of acknowledging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we can actively interpret cultural diversity as a driving force for creating a new culture. In addition, it encourages active social integration by viewing migrants as a resourc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rather than as an object of beneficiary. For this reason, I recommend that we move from multicultural acceptance to cultural diversity and expand policy targets to women, the disabled, the elderly, youth, and other cultural groups to secure the universality of the policy, thereby drawing public empathy and support.

For the past 30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har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and support their stable settlement in society. However,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bound to be limited because a significant number of the general public still have negative perceptions about foreigners and a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protecting or supporting foreigners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or are undocumented. Local governments are more flexible to deal with foreigners and migrants of various legal statuses because they can treat them as local residents rather than Korean citize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can respond more

quickly and proactively to the situation and needs of foreign residents and native residents. Above all, local communities and cities are the places wher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between migrants and natives, and between various cultural groups take place, making local governments the best agents to implement the ideal of cultural diversity. Therefore, expanding local governments where cultural diversity is respected and practiced is an important policy task to prepar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migrant cultural diversity of Korea's local governments, fin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cultural diversity programs, and to search ways to improve them. Since cultural diversity is a very broad and inclusive concept and its subjects are diverse, this study focuses on the cultural diversity of migrants. Already, starting with Europe,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Asia, are promoting sustainable social and urban development through intercultural cities programs. To apply intercultural cities programs to Korea, I review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ity and its programs across the world, examines the cases of Ansan City and Guro-gu, the two representative intercultural cities of Korea, analyzes the infrastructure of migrant cultural diversity in 245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Then I try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hat can elevate the current migrant cultural diversity programs to a higher level and to fully spread it across the nation.

1. What is Intercultural City?

Intercultural city is a concept that was first introduced by a British think tank Comedia in 2004 (Council of Europe, 2021). It refers to a city with a diverse population (Wood, 2010) but the focus of this concept is not the diverse population itself, but how to look at it. The main purpose of intercultural city is to present new ideas and perspectives about diversity: it leads to a view shift from regarding diversity as a burden to accepting and utilizing it as a social resource (Wood et al., 2006).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requir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ree key elements; diversity advantage, openness, and interculturalism, each of which is described as follows (Wood et al., 2006, pp.10-14).

1.1 Diversity Advantage

Over several decades, British people had shown a qualified acceptance towards diversity discourse: they could accommodate others with different ideas and behavior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others do not affect them. Based on this perception, local governments considered diversity as an issue to be managed—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the ‘diversity deficit’. However, Wood et al. (2006) point out the need to change the way cultural diversity is viewed, from liability to asset. Just as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benefited from the use of diversity, British towns and cities also need to work in the same way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1.2 Openness

Openness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the law acknowledges, respects, and encourages differences and diversity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Wood et al. (2006) particularly note the permeabil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to various beliefs, ideas, and behaviors: it can be measured by how much people are exposed to a mix of ideas and how cities foster open interaction through various methods. Openness i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curiosity, which is a desire to know what is beyond one’s cultural, spatial, or intellectual horizons and the ability to seek the interest. This competence is essential for modern cities, as it is a prerequisite of innovation, enterprise, creativity, or social change.

1.3 Interculturalism

Interculturalism refers to a process of reciprocal learning and collective growth (Antal & Friedman, 2003, as cited in Wood et al., 2006), and it is also a process of acquiring peculiar skills and capabilities to interact functionally with any others who are different from oneself. This then signifies the competence called, ‘cultural literacy’, which is “the ability to read, understand and find the significance of diverse cultures, and, as a consequence, to be able to evaluate, compare and decode the varied cultures that are interwoven in a place” (Wood & Landry, 2008). This also implies the acquisition of ‘intercultural competence’, which is an ability as important as basic numeracy and literacy in a diverse society. Finally, after this sequence of acquisitions, those who have developed the prior capabilities would be able to re-envision the world or profession through an intercultural lens. As such,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ity allows us to view the world from a new perspective through an intercultural lens, based on a viewpoint of considering diversity as an asset, and an open-mindedness towards differences (Wood et al., 2006).

The intercultural city is based on interculturalism, and this idea or theory is a concept that is still un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in Korea. And as a government department in charge

of projects related to the intercultural cit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ses the term cultural diversity. Therefore, in this study, intercultural city is expressed as a city that respects cultural diversity or cultural diversity affirming city in Korean, and the two terms are interpreted as the same meaning.

2. Intercultural City Index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tical and evaluation tool called the Intercultural Cities Index (Council of Europe, 2020). It evaluates how much local authorities carry out interculturalism, and as a result improves local policies and promotes the national debate (Council of Europe, 2020). It is also an interdependent tool that enables comparison between member cities by visually illustrating each city's achievement and progress over time (Council of Europe, 2021). In other words, the ICC Index allows member cities to review their own development progress through consistent and repeated evaluation and to utilize the results of other cities as benchmarking tools (Council of Europe, n.d.-a).

The ICC Index analysis is based on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city officials that measures the outcome and impact of intercultural policies (Council of Europe, 2021). Among 141 member cities, 116 cities across 36 countries have completed this, including Neuchâtel (Switzerland), Melitopol (Ukraine), Oslo (Norway), Copenhagen (Denmark), Dublin (Ireland), Hamamatsu (Japan), and so forth (Council of Europe, 2020; Council of Europe, n.d.-b). In particular, Ansan City and Guro-gu of Seoul, Korea joined the ICC programme and participated in index analysis in 2020, offering more good practices to share and more richness to existing member cities (Council of Europe, 2020).

In order to ga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assessing the intercultural level of each city, the ICC Index questionnaire consists of systematic and detailed categories and questions. According to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 it involves 86 questions (73 of which are mandatory) grouped in 12 indicators, and the indicators have been weighed for relative importance. The member cities can reach up to 100 points for each indicator and are consolidated for the general ICC Index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 12 indicators (plus 6 sub-categories of Intercultural lens) are as Figure 1.

1. Commitment	
2. Intercultural lens	Education
3.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Neighborhoods
4. Language	Public services
5. Media and communication	Business and the labor market
6. Intercultural Outlook	Cultural and social life
7. Intercultural intelligence and competence	Public space
8. Welcoming newcomers	
9. Leadership and citizenship	
10. Anti-discrimination	
11. Participation	
12. Interaction	

Figure 1. The Intercultural City Index Analysis Indicators

Note: Adapted from *Guro ICC Index Analysis 2020*, by Council of Europe, 2020. Copyright 2020 by the Council of Europe.

The core purpose of this index analysis can be defined as follows (Council of Europe, n.d.-c). First, it identifies the meaning of intercultural integration in practice and shows implementation in specific cities. The index also evaluates the location of cities in various policy and governance areas and evaluate the progress over time. In addition, it allows cities to realize in what area they should focus on the future and to recognize “good practice” cities and city learning clusters. Lastly, cities can test various hypothes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cultural policies and specific policy outcomes (Council of Europe, n.d.-c).

In sum, Council of Europe (2021) indicates that the ICC Index contains various strong indicators that enable member cities to recognize and communicate where they stand in terms of intercultural integration. The ICC Index also allows them to identify where they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in the future, and to seek other cities which could be a source of good practice and benchmark them. Furthermore, an index report, which provides a series of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regarding where to seek inspiration and good practice, is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index questionnaire results (Council of Europe, 2021).

Using the ICC Index, which has already been systematically designed and participated by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is an effective option to measure the cultural diversity level of

Korean citie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m. However, since the ICC Index survey is self-reported by participating cities, the score can be determined depending on how much time and effort city officials put in to answer the given questions. And because the analysis is conducted by the participants,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objectivity. Above all,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conduct the complex and time-consuming ICC Index survey to 245 local cities in Korea.

Since the ICC Index survey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concise survey system in order to apply it to local cities across the nation. To this end, we can divide information on the cultural diversity of a city into “hard data” on infrastructure, which is the material found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soft data” on psychological, cultural, and social conditions of cultural diversity. Hard data on infrastructure of local cities can be collected from existing government statistics. Later, soft data should be collected by a separate survey by developing a more complete cultural diversity index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ltural diversity infrastructure of migrants in Korean cities as a preliminary step to develop a more complete and appropriate cultural diversity index for the Korean situation.

Before I deal with the current condition of migrant cultural diversity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ollowing chapter, I would like to explain the terminology used in this study. Until now, support projects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called multicultural support projects as a large category. As the names of many local government ordinances show,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migrant cultural diversity programs have focused on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not supporting other diverse cultural groups. For this reason, it is inappropriate to call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program a cultural diversity program.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call it a commonly used multicultural program.

II. Data and Method

To examine the infrastructure of the multicultural program of local governments, I collected information on ordinances, projects, budgets, departments, and personnel directly related with multicultural programs along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mber of Koreans, foreigners, etc.) of local governments. A total of 245 local governments (Seoul Metropolitan City, 6 metropolitan cities (Busan, Incheon, Daegu, Daejeon, Gwangju, Ulsan), 9 provinces (Gyeonggi-do, Gyeongnam-do, Gyeongbuk-do, Chungnam-do, Jeonnam-do,

Jeonbuk-do, Chungbuk-do, Gangwon-do, Jeju-do), 78 cities, 82 counties (in Korean ‘gun’, an administrative division under the province), 69 districts (in Korean ‘gu’, an administrative division under the city).

We examined the existence of ordinance for multicultural program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 the size of the multicultural project budget, the contents of the project, the existence of a dedicated department, and the size of the dedicated manpower. In addition, the level of multicultural program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size of foreign residents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 was compared.

Due to the lack of time, it wa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specific multicultural programs implemented by each local government, and to collect information on mutual awareness and interaction between migrants and native Korean residents. In future follow-up stud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complete index of cultural diversity program by collecting information not only on material and organizational components but also on cultural and social-psychological domains.

Before examining the conditions of multicultural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we will look at the examples of Ansan City and Guro-gu, which claim to be Korea's representative intercultural cities.

III.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s of Ansan City and Guro-gu

1. Ansan City

1.1 Participation in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s

Ansan City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do. It has developed as an industrial city since 1980s and has attracted many foreign migrant workers. The area around Wongok-dong has been designated as a special multicultural zone. In February 2020, it officially joined the International Intercultural Cities Network.

According to Oh (2020),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s in Ansan began in the early 1990s when migrant workers were accepted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Because factories in Ansan had suffered severe manpower shortages since the late 1980s, they actively accepted foreign labor since the beginning of the system. Furthermore, as the

number of shops and service institutions where foreigners are the main customers increased,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addition to factory workers grew.

In 2005,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surged, the nation's first administrative agency dedicated to foreign residents (currently the Foreign Residents Support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Moreover, the Ansan City Multicultural Village Special Zone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in 2007 with the aim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by attracting foreign tourists and carried out various multicultural projects. This project has been considered successful and continues to this day, and various specialized projects are in progress (Oh, 2020).

Based on these efforts, Ansan was designated as the 137th Intercultural City in the world and the second in Asia in February 2020. With this opportunity, the city aims to improve negative perceptions of multiculturalism and enhance the city brand values by internationally promoting best practices of multicultural residents' support policies (S. Kim, 2020).

1.2 Achievements of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

The ICC index analysis conducted by the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a) reports that Ansan ranked at the top among cities with inhabitants more than 500,000, with an aggregate intercultural city index of 80 (out of 100 possible points). Ansan was recognized for its excellence as the Intercultural City by receiving above-average scores in almost all fields of index analysis. Among the factors that led to such successful results, particularly prominent areas a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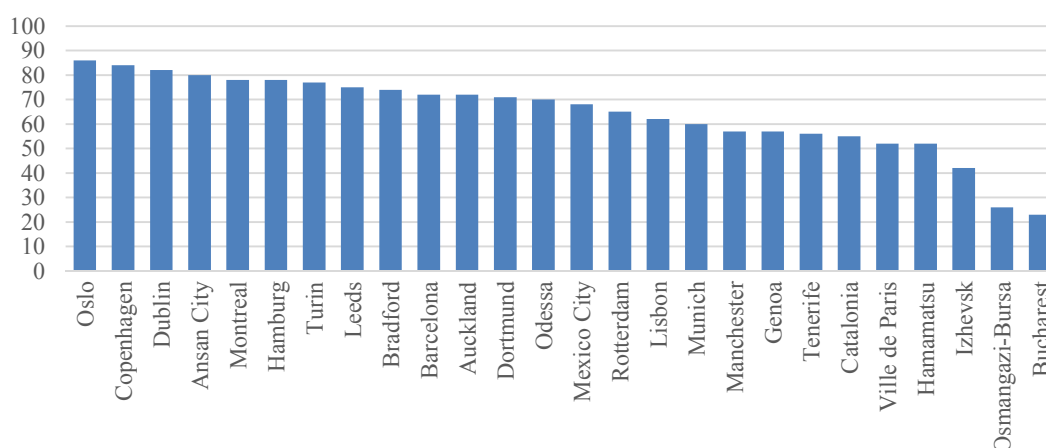


Figure 2. The Achievements of Ansan City in the Intercultural City Index

Note: Intercultural City Index (ICC) of City sample (inhabitants > 500'000). Adapted from 'Intercultural Cities Index Charts,' by Council of Europe, 2021, <https://icc.bak-economics.com/>. Copyright 2021 by the Council of Europe.

In public services area, Ansan operates the only bureau-level non-national policy organization in South Korea. The city offers one-stop administrative services regarding civil petition, health, labor, health, finance, and leisure and pursues projec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and social inclusion in culture, education, welfare, and human rights. Ansan also has the largest service center for non-nationals and provides their service in 15 languages of which the ethnic groups that make up the high proportion non-nationals in the city. Furthermore, there are various services for intercultural workers such as the city's own hiring initiatives,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r companies, and counselling center to resolve work related problems.

Regarding business and the labor market area, Ansan operates overseas market development delegation in cooperation with businesses in order to aid their international fairs and export meetings. The city also makes effort to identify intercultural entrepreneurs and advertise them to promote their revenue growth.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nitiative is support for Multicultural Village Special Zone: the international restaurants in this zone are able to reques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nviting and hiring cooks from other countries.

In terms of media and communication area, Ansan is working on a multicultural newspaper subscription project with local media companies. It is to inform the non-nationals about the city's policies and provide various information. The city's media department also publicize inter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al streets, international cuisines, and Ansan's non-nationals policy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broadcasting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non-nationals, Ansan conducts such courses as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ITQ) test-taker class, and YouTube, social networks, blogs education class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a).

2. Guro-gu

Guro-gu is a district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Seoul. Since the Guro Industrial Complex was developed as an export industrial complex in the 1960s, many Korean young men and women migrated from rural areas to Seoul and lived near the Guro Industrial Complex.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nd the relocation of domestic manufacturing plants overseas, the number of Korean workers began to decrease from the 1980s, and from the early 1990s on, Chinese compatriots began to migrate to Guro-gu in search of affordable housing and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2.1 Participation in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

Guro-gu has grown as a area of high concentration of Korean Chinese compatrio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as Korean Chinese compatriots began to work at construction sites and restaurants (Bae, 2018). The area has a high density of Korean Chinese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more migrants than native residents (Seol et al., 2020). Although the influx of Korean Chinese has the advantage of revitalizing the economy, Guro-gu is still being stigmatized as an unfavorable and underdeveloped area (Oh et al., 2016). In particular, the separation between the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has intensified due to increased complaints about migrants' non-compliance with the basic social etiquettes, such as garbage dumping, and negative perceptions of Korean Chinese led by illegal stay and criminal acts (Bae, 2018). In other words, although Guro-gu is a center of multicultural policy as a densely populated area of migrants, native and foreign residents are separated due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stemming from prejudice and social distancing. As a result, migrants are limited to living in a specific area (Seol et al., 2020). Therefore, there was a need for a new paradigm for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xisting native resident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Seo, 2021). To achieve this transformation, Guro-gu joined the Intercultural City Program in October 2020.

2.2 Achievements of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

According to the ICC index analysis conducted in October, 2020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b), Guro-gu achieved the highest score among cities with inhabitants between 200,000 and 500,000, with an aggregate intercultural city index of 87 (out of 100 possible points). The city received above-average scores in all fields, even a significant portion of it received perfect scores, thus was recognized for its high competency as the Intercultural City. Among the factors that led to such successful results, followings are particularly prominent areas of Guro-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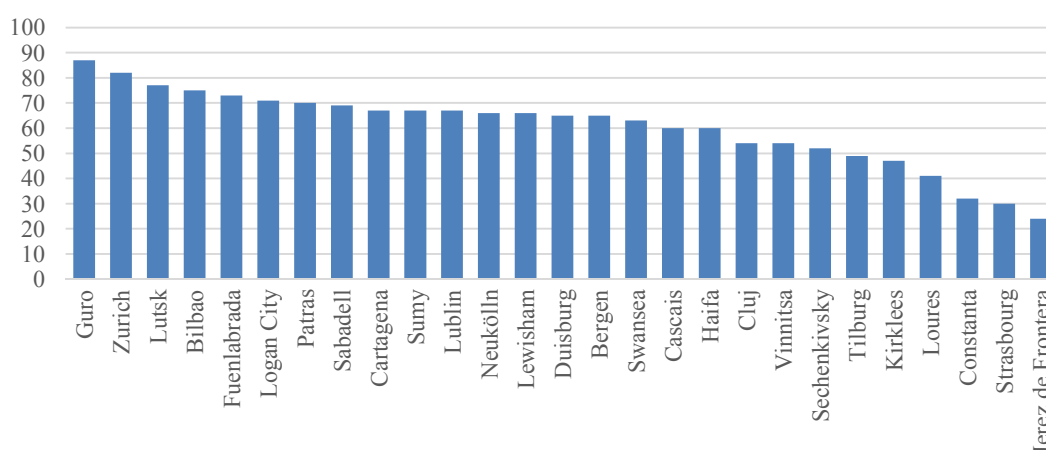


Figure 3. The Achievements of Guro-gu in the Intercultural City Index

Note: Intercultural City Index (ICC) of City sample (inhabitants 200'000 - 500'000). Adapted from 'Intercultural Cities Index Charts,' by Council of Europe, 2021, <https://icc.bak-economics.com/>. Copyright 2021 by the Council of Europe.

In the area of neighborhood, Guro-gu operates a family integration support center which helps residents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multicultural family rental housing projects. As an examp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district office and residents of Garibong-dong have put effort into improving the environment together by actions such as organizing autonomous crime prevention patrols that clean the streets and keep residents safe and modernizing the facilities in the Garibong Market. Guro-gu also runs a multicultural honorary village chief program to collect opinions and encourage coopera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to implement campaign activities such as reducing the unauthorized dumping of garbage.

As for culture and social life area, Guro-gu aids variou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such as the 2019 Chinese Compatriot Support Center Year-End Festival and the World Citizen's Day Festival through a local subsidy deliberation council. The district also aids the reflection of intercultural values in local arts and culture by implementing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Guro. Moreover, the "Multicultural Society Korea" forum is conducted to discuss a range of multicultural topics. Finally, there are annually held cultural festivals such as the Guro French Cultural Festival and St Patrick's Day Festival.

In regard to anti-discrimination area, Guro-gu prioritizes anti-discrimination measures as a representative human rights city in South Korea. The Audit Office, which is an anti-discrimination-related agency, and the Ombudsman have enacted policies to inhibit

discriminatory administration,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to employees every year, and conduct regular monitoring. In this respect, Guro-gu has a Human Right Guarantee and Promotion Plan to make a Human Rights District, a Human Rights Education Operation Plan, and an Implementation Plan for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Autonomous Laws to Preve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Furthermore, Guro-gu operates a portal site that provides legal information and runs a discriminatory or illegal activities reporting center. The city also assists victims of discriminatory behaviors through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b).

III. The Infrastructure of Multicultural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Infrastructure is the set of foundational facilities and systems that support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a nation, city, and any other organizations. It is classified into hard infrastructure and soft infrastructure. Hard infrastructure refers to such physical facilities such as roads, bridges, buildings, etc. Soft infrastructure refers to systems and institutions that maintain functions of organizations, which include policies and laws, departments and bureaus, agencies and workers, etc. We can apply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to multicultural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of Korea. Here, infrastructure of multicultural programs refers to policies, laws, and ordinances, projects, budgets, departments or ministries, and personnel or workers directly related to the execution of multicultural programs.

1. Local Government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As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started to increase in Korea from 2000, the need for a legal foundation for migrants grew.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 2008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by enabling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lead stable family lives and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Starting from 2010, local governments then promulgated and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o lay the foundation for services tailored to the local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 (Kim & Park, 2017). Since local governments could accurately grasp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n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re expected to be more

conducive for foreign residents' stable settlement, social integration, and recognition of their lifestyle and culture (Kim & Park, 2017; Lee, 2015).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examine whether the above-mentioned advantages are well expressed.

As of October, 2021, all 245 local governments have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but an exceptional case is that Jeju City and Seogwipo City do not enact separate ordinances but follow the ordinances of Jeju-do. A careful analysis of the number of projects, budget, and personnel of Jeju-Do, Jeju City, and Seogwipo City reveals that they have significantly lower levels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programs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The fact that Jeju City and Seogwipo City did not enact separate ordinances may reflect the lack of interest and demand for multicultural program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ordinances usually consist of following fourteen provisions: objectives, terms, scope and status of support, responsibilities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a council, composition of a council, duty of chairperson, operation of a committee,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a support center, promotion of support policy projects, support for non-governmental groups, World Citizen's Day, reward, and honorary residents. Local government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er residents generally include the majority of these provisions, while those with a small proportion tend to take a simplified form by omitting several of them. For instance, Yeongdeungpo-gu, Seoul, which has the highest ratio of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o the number of native residents, includes every fourteen provisions in its ordinance. On the other hand, Dongnae-gu, Busan, which has a low ratio of foreigners, has an ordinance that meets only six provisions out of fourteen.

Another conspicuous feature is that the ordinances are heavily oriented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Looking at the plan and scope of support, most of the contents are focused on the necessit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uch as marriage migrant settlement support,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is is presumably because the ordinances were enacted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ed range of support, the scope of ordinances often extends to other types of foreign residents, mainly in local government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The name of the ordinance is usually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this case. Also, the scope and status of support

provision is categorized into two sections—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and provide specialized support for each group.

The strong orientation toward multicultural family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more than half of the ordinances of 245 local governments have the nam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Local governments with the name of Foreign Residents Support Ordinance accounted for only 9 percent,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accounted for 20 percent. Multicultural families are numerical minority among foreign residents and the majority of foreign residents are short-term foreign migrant workers and Korean Chinese compatriots, who are marginalized even in the local community because they do not have Korean citizenship or do not reside permanently. The marginalization of migrant workers and Korean ethnic compatriots from policy priorities is a major limita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progra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able 1. Type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N	Percent
Multicultural Family	143	58.4
Foreign Residents	22	9.0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y	80	32.6
Total	245	100.0

The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includes education and publicity for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on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living, various cultural and sports events, administrative services necessary for business of foreign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childcare and education business for children, and so forth. As such, efforts are made in consideration of foreign residents other than multicultural families by separately presenting support for them. However, considering that most of these provisions can also be applied to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still valid that the ordinance is multicultural family centered.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pecificity of the ordinance or whether the scope of the ordinance is extended to foreign residents,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generally similar. This is a major limitation as the special advantage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is that they are enact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region.

In other words, the similarity of the ordinances indicates that each ordinance is not tailored to reflect the multicultural situation of each reg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create diverse ordinances by actively reflecting the needs of their foreign residents. Exemplary provisions include expense support for marriage migrants (including spouses and family members) for a visit to their hometown in Yeongdeungpo-gu,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school admission support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Yesan-gun, Chungcheongnam-do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in Guro-gu,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2. Characteristics of Programs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 programs of the local governments, we reviewed the name of the project budgets. The name of the project budgets is divided into the major and minor categories, and the minor categories describe the goal or target of projects in detail. For example, Seoul Metropolitan City carries out the project in the name of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healthy families and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life. This project include such detailed categories 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peration, multicultural family specialization project operation, multicultural family social integration support, multicultural child learning support, cultural diversity understanding education operation, multicultural family part-time child care service, establishment of a safety net for migrant women in crisis,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We analyzed keywords appearing in the budget names of detailed cultural diversity projects of 245 local governments, and the following terms appeared most frequently (see Table 2). We also conducted the same analysis for the project nam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in both budget names and project names include support (or assistance), multicultural family, operation, business (or projects), education, multicultural, marriage, children, service, family, health, women, and language (including Korean language and translation). Excluding terms that refer to project operation (like operation, center, support, assistance, staff, etc.),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support the education, language, and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ies.

Table 2.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in the Cultural Diversity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Project Budget Name			Project Name		
Keyword	Number	Percent	Keyword	Number	Percent
Support	1,398	17.8	Support	346	13.8
Multicultural family	1,068	13.6	Multicultural family	266	10.6
Operation	562	7.2	Education	212	8.5
Business (project)	475	6.0	Operation	176	7.0
Education	423	5.4	Business (project)	152	6.1
Center	389	4.9	Multiculture	147	5.9
Marriage	373	4.7	Marriage	105	4.2
Multiculture	279	3.5	Service	82	3.3
Children	238	3.0	Children	82	3.3
Family	312	4.0	Visit	78	3.1
Immigrants	219	2.8	Center	71	2.8
Health	201	2.6	Family	119	4.8
Women	198	2.5	Language	68	2.7
Korean language	181	2.3	Korean language	68	2.7
Migration	154	2.0	Women	61	2.4
Language	152	1.9	Immigrants	59	2.4
Service	149	1.9	Translation	74	3.0
Assistance	143	1.8	Health	43	1.7
Translation	136	1.7	Program	43	1.7
Visit	130	1.7	Migration	41	1.6
Staff	112	1.4	Development	37	1.5
Province budget	101	1.3	Culture	34	1.4
Dual	86	1.1	Dual	30	1.2
Foreign resident	85	1.1	Understanding	30	1.2
Specialization	82	1.0	Integration	29	1.2
Understanding	75	1.0	Case	26	1.0
Development	74	0.9	Class	25	1.0
Characteristic	65	0.8			
Total	7,860	100.0	Total	2,504	100.0



Figure 4.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in Project Budget Names and Projects Names

3.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Bases of Programs

Successful operation of multicultural programs requires solid organization and financial bases or resources. In this study, the organization base refers to the existence of designated department and the size of personnel in charge of multicultural program. The financial base is measured by the size of project budget for multicultural programs. Since organization and financial bases differ according to the size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I measured not only the absolute values of organization and financial bases but also the relative values relative to the size of foreigners.

All 245 local governments have departments and personnel dedicated to multicultural programs. However, most departments have names related to women, family, children and childbirth. Local governments with a dedicated department called the Women and Family Department accounted for 33% of the total. Within the dedicated department, the unit that actually implements cultural diversity-related projects had a high rate of having the name of fertility and multicultural team (in Korean 출산다문화팀). The name of the department in charge shows that the role of migrant women is to form a multicultural family, give birth to and raise children,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population reproduction of Korea. Other names broader and universal in scope and values also exist, such as Multicultural Policy Department (Suwon City), Intercultural Policy Department (Guro-gu), Foreign Resident Support Department (Ansan C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Jeonlabuk-do), County Civil Happiness Department (Bonghwa-gun), Resident Welfare Department (Gijang-

gu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Yanggu-gun). However, their proportion in the total is very small.

The size of personnel in charge of multicultural programs varies from 38 (Danyang-gun, Chungbuk-do) to 0, and the average size is 5. There are 18 local governments (7.3%) that do not have dedicated personnel for the program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op thre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largest number of dedicated personnel are Danyang-gun, Buyeo-gun, and Buan-gun, all of which are rural areas.

The number of projects also varies greatly among local governments from 38 to 1, and the average number is 10. As expected, the number of projects (and the size of budget and personnel)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ize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see Table 4). The top ten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number of projects are Siheung, Seongnam, Ansan, Hwaseong, Suwon, Bucheon, Jangheung-gun, Gwangju, Jeonju, and Pyeongtaek. Among the top 10, 7 are cities of Gyeonggi-do.

The variation of project budget by local government is even greater than the number of projects and personnel. The largest budget is spent by Seoul Metropolitan City, followed by Gyeonggi-do, Gyeongsangbuk-do, Gangwon-do, Daegu, Chungnam-do, Incheon, Jeollabuk-do, Gyeongnam-do, and Jeollanam-do. It is natural that Seoul,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with large populations spend a lot of project budgets, but it is unusual that Yeongdeungpo-gu and Ansan do not show much difference compared to Busan,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To compare the multicultural program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rankings were mad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ojects, the number of dedicated personnel, and the size of the project budget. For example, Seoul ranked the first in the project budget because of its largest budget for multicultural programs, but it ranked the 4th in the size of personnel, and the 13th in the number of projects. The total ranking was determined by calculating the sum of the rankings of the three indicators. At this time, the absolute overall ranking without considering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the relative overall ranking considering the number of foreigners were separately determined. The relative overall ranking is determined by the sum of each ranking in the three indicators, whose absolute values were divided by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o compute their relative value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foreign residents. For this reason, the performance of a local government as measured by its rank among the 245 cases can be differently assessed by the absolute overall ranking and the relative overall ranking methods.

According to the absolute overall ranking, Seoul ranked the first, followed by Gyeonggi-do, Siheung, Suwon, Hwaseong, Chungbuk-do, Jangseong-gun, Incheon, Ansan, Yeongdeungpo-gu, Jangsu-gun, Namwon, Gimje, Daejeon, Dong-gu (in Incheon City), Jangheung-gun, Gyeyang-gu, Yeosu, Seongnam, and Gongju. However, local governments included in the top 20 by the relative overall ranking method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as measured by the absolute overall ranking method. They are Muju-gun, Yangyang-gun, Jangsu-gun, Gurye-gun, Gyeryong, Yeongwol-gun, Yeongyang-gun, Bonghwa-gun, Sunchang-gun, Jinan-gun, Danyang-gun, Gangjin-gun, Taebaek, Jeongseon-gun, Imsil-gun, Jangheung-gun, Inje-gun, Pyeongchang-gun, Jangseong-gun, and Yecheon-gun. All of these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Gyeryong City and Taebaek City are rural areas with small and aging native population. An interesting phenomenon is that thes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 particularly larg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or a high ratio of foreigners to native Koreans. Overall,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the ratio of foreigner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relative overall ranking, but the top 20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particularly high numbers and ratios of foreigners. One distinctive feature of these local governments is their high extinction risk index, which means that these areas will extinct to very low population reproduction. The top 20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Gyerong City are categorized as either extinction risk areas or high extinction risk areas. It is presumed that local governments, which are experiencing serious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and the local government itself is in danger of extinction, are actively implementing multicultural family projects in order to encourage childbirth. I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draw definitive conclusions, so I will conduct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in follow-up studies.

Table 3. Organization and Financial Base of Cultural Diversity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Rank	Region name	Budget (unit: thousand won)	Region name	Number of project	Region name	Size of personnel	Top 20 Region (absolute)	Top 20 region (relative)
1	Seoul	25,018	Siheung	38	Danyang-gun	32	Seoul	Muju-gun
2	Gyeonggi-do	12,638	Seongnam	34	Buyeo-gun	28	Gyeonggi-do	Yangyang-gun
3	Gyeongsangbuk-do	10,331	Ansan	33	Buan-gun	23	Siheung	Jangsu-gun
4	Gangwon-do	10,110	Hwaseong	32	Seoul	21	Suwon	Gurye-gun
5	Daegu	8,251	Suwon	31	Taejeon-gun	21	Hwaseong	Gyeryong
6	Chungnam-do	7,893	Bucheon	27	Jinju	17	Chungbuk-do	Yeongwol-gun
7	Incheon	7,264	Jangheung-gun	26	Jangseong-gun	15	Jangseong-gun	Yeongyang-gun
8	Jeollabuk-do	6,329	Gwangju	24	Gyeonggi-do	12	Incheon	Bonghwa-gun
9	Gyeongnam-do	5,672	Jeonju	24	Suwon	12	Ansan	Sunchang-gun

10	Jeollanam-do	5,121	Pyeongtaek	22	Dangjin	12	Yeongdeungpo-gu	Jinan-gun
11	Yeongdeungpo-gu	4,112	Gapyeong-gun	22	Yesan-gun	12	Jangsu-gun	Danyang-gun
12	Busan	3,759	Jangsu-gun	22	Siheung	11	Namwon	Gangjin-gun
13	Ansan	3,214	Seoul	21	Yangyang-gun	11	Gimje	Taebaek
14	Chungbuk-do	2,832	Jeollabuk-do	21	Jangsu-gun	10	Daejeon	Jeongseon-gun
15	Hwaseong	2,698	Guro-gu	20	Yeongdeungpo-gu	9	Dong-gu	Imsil-gun
16	Siheung	2,691	Uijeongbu	20	Hwaseong	9	Jangheung-gun	Jangheung-gun
17	Gwangju	2,528	Yeosu	20	Jeungpyeong-gun	9	Gyeyang-gu	Inje-gun
18	Suwon	2,474	Gyeonggi-do	19	Yeongyang-gun	9	Yeosu	Pyeongchang-gun
19	Daejeon	2,239	Osan	19	Yangcheon-gu	8	Seongnam	Jangseong-gun
20	Ulsan	1,910	Uiwang	19	Gangnam-gu	8	Gongju	Yecheon-gun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of Cultural Diversity Programs

	Project number	Project budget	Project personnel	#Foreigners	#Natives	Absolute ranking	Relative ranking
Project number	1	.248**	.120	.223**	.168**	-.703**	-.081
Project budget		1	.244**	.791**	.839**	-.385**	.239**
Project personnel			1	.246**	.235**	-.398	-.101
#Foreigners				1	.968**	-.259**	.357**
#Natives					1	-.269**	.366**
Absolute ranking						1	.111
Relative ranking							1

Note 1: * significant at $\alpha=0.05$ level, ** significant at $\alpha=0.01$ level

Note 2: The signs of absolute total ranking and relative total ranking mean that the higher the value, the lower the ranking.

V. Conclusion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migrant cultural diversity of Korea's local governments, and fin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cultural diversity programs. To this end, I collected information on ordinances, projects, budgets, and dedicated departments and personnel directly related with the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programs.

I found that all 245 local governments have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 ordinances are heavily oriented toward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Although foreign migrant workers and Korean Chinese compatriots are more numerous than multicultural families, they are marginalized and excluded from the cultural diversity programs. The analysis of project names reveals that the current multicultural programs aims to support the education, language, and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population reproduction of Korea. After examining the number of projects, project budget, and dedicated personnel of multicultural programs, I computed the overall rankings of 245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absolute overall ranking method that does not consider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Seoul ranked the first, followed by Gyeonggi-do, Siheung, Suwon, Hwaseong, Chungbuk-do, Jangseong-gun, Incheon, Ansan, Yeongdeungpo-gu, Jangsu-gun, Namwon, Gimje, Daejeon, Dong-gu (in Incheon City), Jangheung-gun, Gyeyang-gu, Yeosu, Seongnam, and Gongju. This finding confirms that the performance of multicultural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is directly affected by the size and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size of native population and foreigners. Thus, larg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end to run more projects with larger budgets and manpower than smaller cities, districts, and counties. However, if we use the relative overall ranking metho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like Muju-gun, Yangyang-gun, Jangsu-gun, and Gurye-gun with small and aging native population are relatively more active in operating multicultural programs. Thes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 particularly larg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or a high ratio of foreigners to native Koreans, but are in the high risk of extinction due to a low rate of population reproduction. I cautiously interpret that these local governments try to survive from possible extinction by accepting and supporting marriage migrant women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Unlike rural areas, cities such as Ansan, Suwon, and Guro-gu are not exposed to extinction risk, but they feel a need to implement an active multicultural policy because there are many foreign residents in their administrative territory. However, in addition to objective conditions such as the size of foreigners, factors such as the traditions of past local governments and philosophy of political leaders seem to play a role in making these cities more multiculturally oriented. In the future follow-up research, I will try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affect the cultural diversity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current multicultural programs, which are overly focused o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expanded to provide benefits to various migrant groups such as migrant workers, overseas Koreans, international students, etc. In this regard, the name of a department in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ies 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currently commonly used, needs to be renamed to a more universal and comprehensive name, for example, Department of Cultural Diversity or Department of Global Citizen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y targets and increase the budget and manpower to fit the new name.

Second, we need to move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to a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and make an effort to bring cultural groups within native residents, which have not been included so far, into the scope of the policy. From now on, we need to design and implement cultural diversity programs in the direction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policy and program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wide consent and support of native residents.

Third, we need to develop a cultural diversity index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by benchmarking the ICC Index, and to conduct a regular surve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we can encourage other local governments to benchmark the good practices and exemplary standards of successful local governments. If we go one step further, we need to induce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businesses, schools, hospitals and other organizations to realize the value of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t a high level.

Reference

- 김소영. (2020). *안산시, 국내 최초 상호문화도시에 지정*. 중앙신문. Retrieved October 5, 2021, from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33551>.
- 배경연. (2018). *2018 년 구로구 다문화정책 시행계획*. 구로구 생활복지국 다문화정책과.
- 서종건. (2021). *구로구 상호문화도시 발전방안*. 구로구 구정연구반.
- 설동훈, 송영호, 전경숙, & 최영미. (2020). *구로구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외국인 다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구로구 생활복지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오정은. (2020).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참여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3(1), 49-65.

오정은, 윤인진, 이희정, 김경미, 김우경, & 반정화. (2016).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 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Council of Europe. (2020). *Intercultural Cities –Annual report*.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2021). *The Intercultural City Step by Step*.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2021). *The origins of the intercultural city concept*.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origins-of-the-intercultural-concept>.

Council of Europe. (n.d.-a). *About the Intercultural Cities Index*.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about-the-index>.

Council of Europe. (n.d.-b). *Intercultural Cities Index Charts*.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https://icc.bak-economics.com/>

Council of Europe. (n.d.-c). *The Intercultural City Index and Benchmarking Tool*. Council of Europe.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 *Guro ICC Index Analysis 2020*. Council of Europe.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a). *Ansan City ICC Index Analysis 2020*. Council of Europe.

Intercultural Cities Secretariat. (2020b). *Guro ICC Index Analysis 2020*. Council of Europe.

Kim, S. M., & Park, D. J. (2017). An Analysis of the Local Ordinance for Support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Local Ordinance of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Metropolitan City.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3(4), 181–208.

Lee, Y. J. (2015).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5(2), 181–209.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April 24). *Seoul Yeongdeungpo-gu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October 8, 2021, from <https://law.go.kr/ordinInfoP.do?ordinSeq=913530&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July 2). *Yesan-gu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October 8, 2021, from <https://law.go.kr/ordinInfoP.do?ordinSeq=1351117&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November 14). *Seoul Guro-gu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October 8, 2021, from <https://law.go.kr/ordinInfoP.do?ordinSeq=1419887&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May 20).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October 8, 2021, from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Wood, P. (2010). *Intercultural cities: Towards a model for intercultural integration: Insights from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Joint Ac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Council of Europe.

Wood, P., & Landry, C. (2008). *The intercultural city: Planning for diversity advantage*. Routledge.

Wood, P., Landry, C., & Bloomfield, J. (2006). The intercultural city. Making the most of diversity.

Yoon, In-Jin. (2019). 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 discourse and policy in South Korea. *Multiculture and Human (『다문화와 인간』*, 8(1), 1-30.

Toward Social Inclusion for Multicultural Cities : The Taiwan Experience



Liling HU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Abstract

Key words:

From Multicultural to Intercultural Cities: the Taiwan experience

Liling Huang,
liling@ntu.edu.tw
Graduate Institute of Building and planni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Key concepts of Intercultural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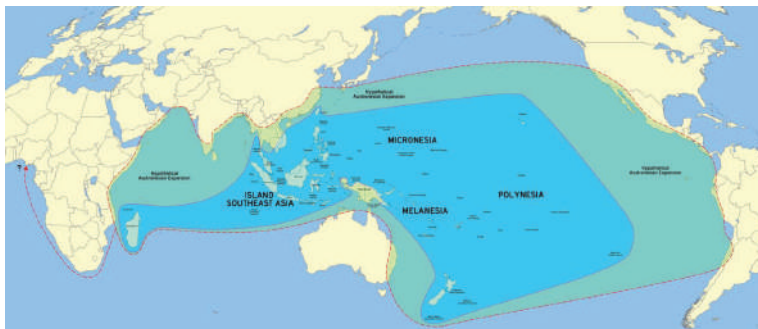
- The Intercultural City: Making The Most Of Diversity by Phil Wood 、 Charles Landry and Jude Bloomfield (2006)
 - Intercultural and Social economy
 - Intercultural lens and Cultural literacy
 - Intercultural Innovators
- Indicators of openness:
 - The institutional framework
 - The business environment
 - Civil society
 - Public space

Indicators of interculturalism

- **Intermarriage**, and other forms of social and cultural mixing
- **Crossover networks**, intercultural businesses, jobs, and new professions,
- Products which embody cultural cross-over or fusion
- The presence of **intercultural literacy programs in public administration**
- Training in and remuneration of bi- and multi-lingualism in the business environment
- The presence of buildings or **public art** in the city center that draws on culturally diverse histories and traditions.











Popula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Taiwan

- Population in total : 23,588,932 people (2018)
- by ethnicity:
 - Han Chinese: 95.4%
 - Indigenous peoples: 2.4%
 - New immigrants: 2.2%



Migrant Spouses in Taiwan

- Total number by April, 2018:
535,108 people. Outnumbered the aboriginals in Taiwan
- Mainly from Mainland China, Vietnam and Indonesia
- Institutional and social exclusion in early decades

Original Nationality	population	ratio
CRP	355,228	66.38%
 China	339,140	63.38%
 Hong Kong  Macau	16,088	3.01%
 Vietnam	102,375	19.13%
 Indonesia	29,671	5.54%
 Thailand	8,781	1.64%
 Philippines	9,309	1.74%
 Cambodia	4,312	0.86%
 Japan	4,849	0.81%
 Korea	1,647	0.31%
Other	18,936	3.54%
total	535,108	100.00%

- Sourc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Household Affairs, Ministry of the Interior.
- Include those who have obtaine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China.
- At the end of April 2018.
- The above figures mixed male and female.

The Changing Social images

- Labor participation rate: 70.92%, and unemployment rate: 1.22%
- 64.6% staying for more than 10 years, and 12.6% for 20 years above;
- 73.4% pro their children to learn the mother tongue (Survey in 2018)
- Discovering “New Second Generation”, and story of Cheng



New Southbound Policy since 2016



- Talent Cultivation Program (MOE)
 - Study, internship, job training, and volunteer services.
 - Cultural Activities: language learning and competition; visiting grandparents in summer
- National economic strategies coupling with “interculturalism” ? and criticism

Foreign population in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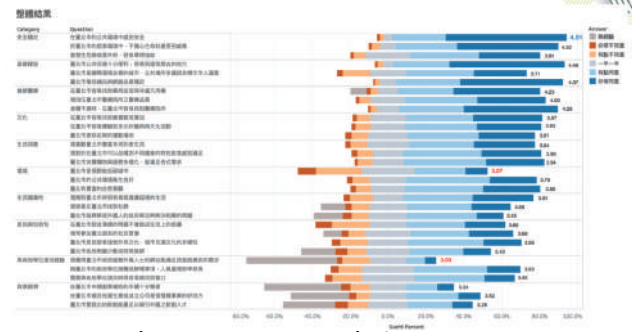
Population of foreign nationalities in Taiwan (2019)			
City	foreigners	Total population	ratio
Total (Taiwan)	797,436	23,603,121	3.37%
New Taipei City	112,438	4,014,560	2.80%
Taipei City	73,096	2,646,204	2.76%
Taoyuan	124,696	2,245,059	5.55%
Taichung City	111,513	2,813,397	3.96%
Tainan City	66,362	1,881,204	3.52%



Survey on the Intercultural Livability in Taipei

- Attractiveness:
 - Safety,
 - Friendly people
 - Convenient transportation
 - Stable and Accessible Wi-Fi
 - Medical care
 - Diversity of consumption

問卷調查結果：十大面向同意度調查



- Complains:
 - Not a low carbon city, air quality
 - Not multi-language in daily environment and government website

Sourc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Living Environment of Taipei City,
Investigated in 2018; Number of Sent questionnaires: 1815; Collected copies: 1,000; Effective sample 993.

Revision of Nationality Act in Dec. 2016

- Allowing dual citizenship rules for foreign talents;
- A total of 149 foreigners have been granted ROC (Taiwan) citizenship since Dec. 2016 Aug. 2.
- They come from five continents, with 65 specializing in education, 24 in economics and 24 in medical science.
- In terms of nationality, Americans and Malaysians top the list, average age is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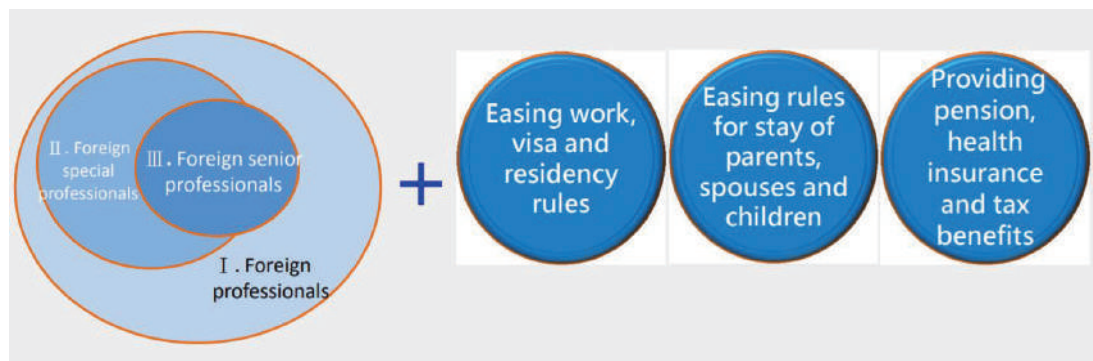
- People in Photos: , Dr. Peter Kenrick, Ivan Yehorov, Rolf-Peter Wille, Rifat Karlova.



Source: Ministry of Interior <https://www.ris.gov.tw/app/portal/2122?sn=1568272822354>

The Act for the Recruitment and Employment of Fore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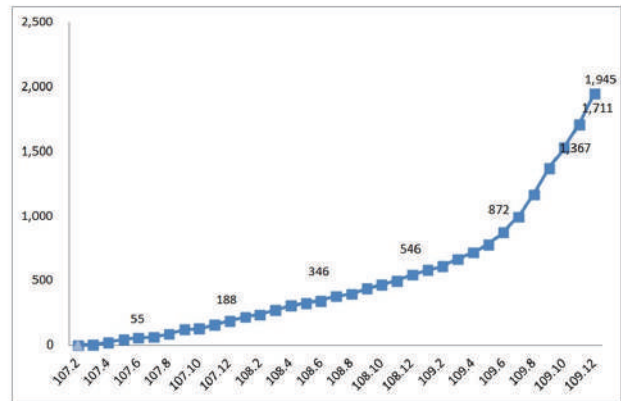
- Took effect from February 8, 2018, aiming at building a friendlier work and residency environment, to induce foreign professionals to come to Taiwan and stay.
- Issued 3,278 Employment Golden Cards by March 2021



Employment Golden Card

- Combine work and residency permit
- Valid for 1 to 3 years, non-limited entry and days
- Open personal work permit
- Income tax relief
- Residency for dependents
- Relaxation for health insurance

近年就業金卡成長趨勢



資料來源：國發會

Citizenship for Migrant Workers?

- More than 711,000 migrant workers in TW, mostly from the Philippines, Indonesia, Vietnam and Thailand.
- Account for 8 % of the country's workforce and more than 60 % work in the industrial sector
- Government Policies: workers should be “guests,” without the protection of citizenship



Intercultural cities and tensions in city center



<https://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2816890>



<https://www.rti.org.tw/news/view/id/2065333>

Regenerating inner cities

The southeast Asia Square in Taichung City



Photo by Chu Ying-peng



Intercultural innovator

- Mario Subeldia as a migrant worker and an artist



<https://mpark.news/2017/03/28/2441/>



<https://mpark.news/2017/03/28/2441/>

Participating budgeting by migrant workers

The initiative of Taoyuan City Government was awarded the prize "Best Practice in Citizen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Participatory Democracy" in 2018



<https://www.rti.org.tw/news/view/id/380025>

Left: <https://tyenews.com/2019/01/6434/>

Through the lens of migrant workers...

To build intercultural cities, needs

- Legal consultancy
- Free Chinese Language program
- Language friendly environment in Public spaces and Restaurants
- Right to use or borrow public spaces
- Intercultural education
-

Source: <https://opinion.cw.com.tw/blog/profile/52/article/7320>

Book Store: Southeast Asian Migrant Inspired



Source: <https://www.nownews.com/news/3578612>

One Forty: a school for migrant workers



Source: <https://one-forty.org/>

Conclusion

-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NGOs and Communities
- Cosmopolis: Openness and Innovation for shaping new identities
- Co-benefit: Public spaces as social infrastructures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 ● ●

한건수

강원대

Abstract

Key words: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과 문화다양성 증진

Crafts & Folk Art / Design / Film / Gastronomy / Literature / Media Arts / Music

CREATIVE C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ILLES CRÉATIVES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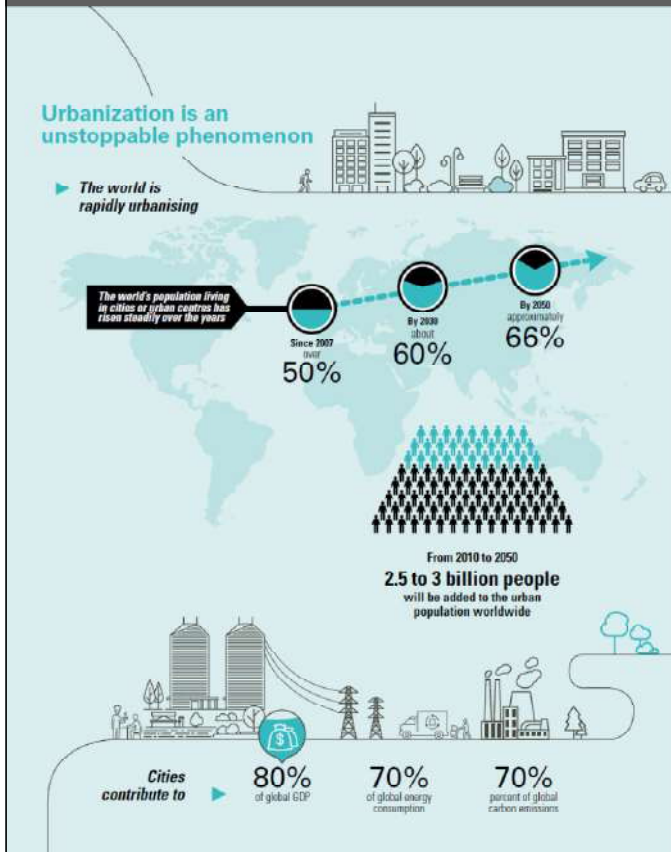
Artisanat et arts populaires / Design / Film / Gastronomie / Littérature / Arts numériques / Musique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yoruba@kangwon.ac.kr

문화다양성 축제 MAMF 2021 국제학술회의
(2021.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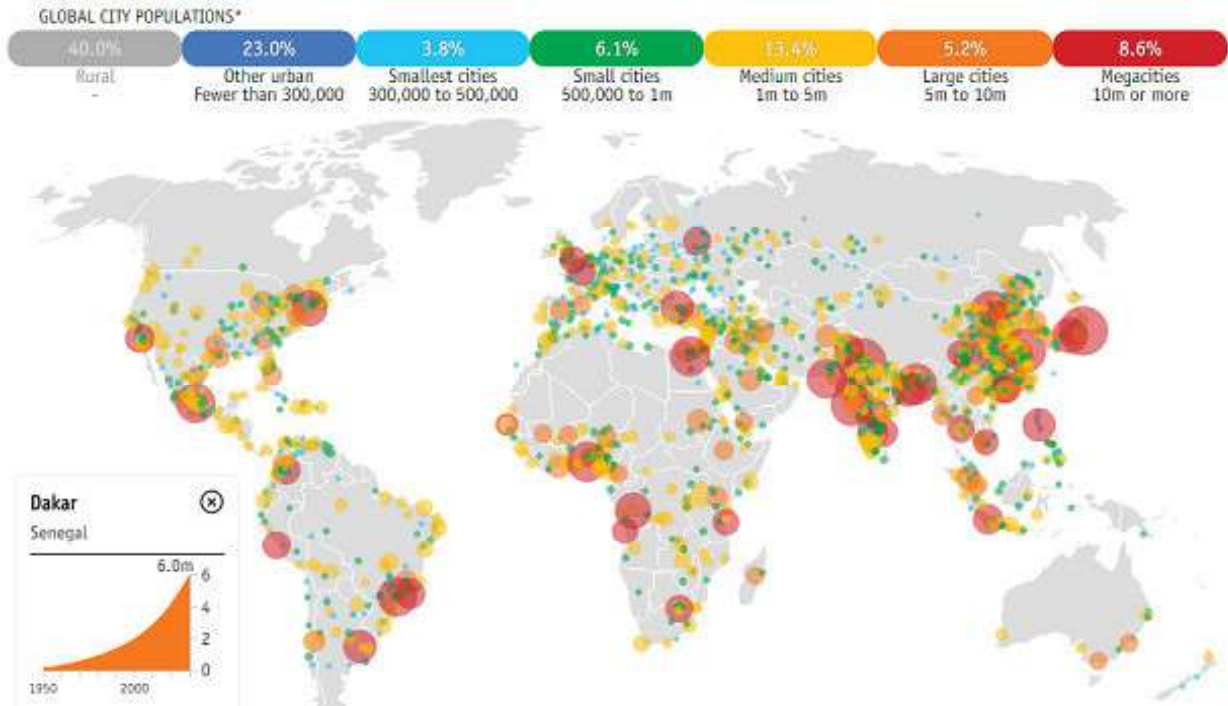
도시화와 인류, UN 2018 Tracking Progress Toward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SDG 11 Synthesis Report, High Level Political Forum 2018.



- 20세기 들어 인류 역사 최초로 인류는 압도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종(urban species)이 되었음. 도시화는 중단할 수 없는 현상으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임
- 2014년 기준 전 세계에 28개의 메가 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가 있음. 아시아(16개), 라틴아메리카(4개), 유럽(3개), 아프리카(3개) 북미(2개), 2030년에는 41개로 증가할 것임
-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류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됨
- 2010년에서 2050년까지 25억에서 30억의 인구가 추가로 도시에 유입될 것임
- 도시는 총 GDP의 80%를 생산하고, 글로벌 에너지 소비의 70%를 소비하며,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됨

page 2

The Rise of Megacities, 2030



The Economist 2015.4.8.

page 3

Urbanization



- 도시화는 경제발전과 맥을 같이 하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음
- 도시는 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 인류 문명 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음
- 도시화는 문화 변동의 규모와 폭을 확장시켜 옴: 전통의 소멸과 도시성에 근거한 문화적 동질화를 증가시키고 있음
- 도시화는 인구이동을 강화시킴: 이촌향도 및 국제이주의 증가

UN 201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 New York: UN

page 4



- 불평등의 심화, 양분된 도시 : social exclusion
- 범죄의 증가
- 주거 공간의 부족과 슬럼: 도시 주민 중 슬럼거주자의 비중이 28%(2000)에서 23%(2014)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비중이 높음.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는 56%가 슬럼 거주
- 2014년 전 세계 도시 거주민의 90%가 WHO의 기준에 맞지 않는 공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음
- 쓰레기 수거: 101개 국에서 65%만이 시 정부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고 있음. 하수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거주 환경이 열악한 도시가 많음

UN 201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 New York: UN

page 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6-2030)



-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 SDGs는 새로운 보편적 의제의 포부와 규모를 보여줌.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를 기반으로 하여, 그 목표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고자 함.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의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자력화를 추구함. 이 목표는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가능 발전의 세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 SDGs의 5P: People(인간), Planet(지구), Prosperity(번영), Peace(평화), Partnership(파트너십)
-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새천년선언 및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에 기반하며,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과 같이 다른 국제적 선언문서의 내용에 입각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놓았으며 새로운 의제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주요 유엔 회의와 정상회의의 결과들을 결과를 재확인한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 세계인구개발회의, 베이징 행동강령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또한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 결과, 제3차 국제 군소도서개도국회의, 제2차 유엔 내륙개도국회의 및 제3차 유엔 재난위험경감회의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확인한다.”

page 6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6-2030)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 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page 7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6-2030)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한다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보장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한다
15. 지속 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복원, 증진하고,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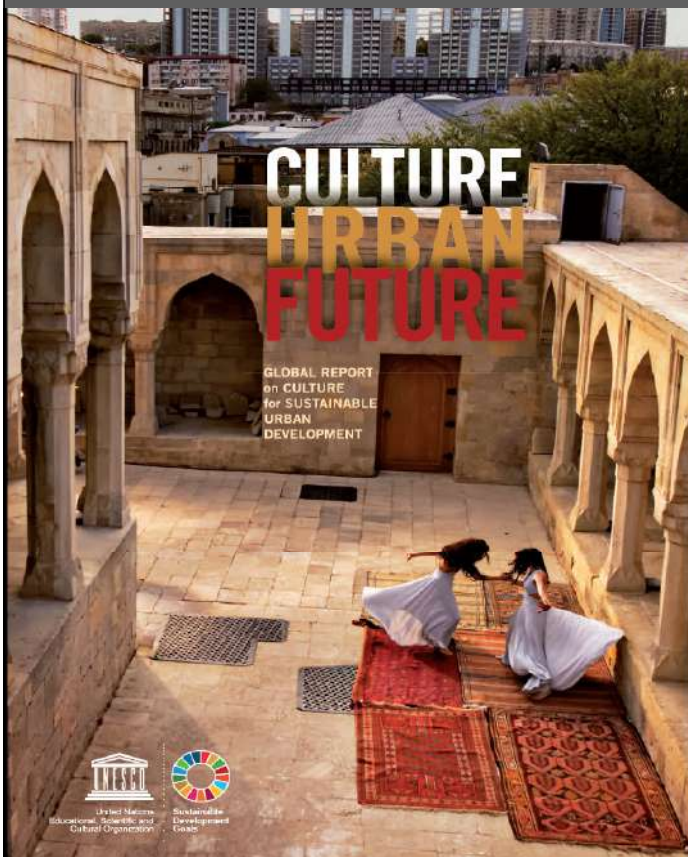
page 8

SDGs Goal 11 세부목표

-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인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11.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한다.
-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11.A 국가 및 대륙 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지원한다.
-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재난 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page 9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문화(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도시가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짐
- Habitat III(Ecuador 2016) 회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맥락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수립함. 특히 문화가 도시의 발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
- 문화가 도시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시의 미래에 문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UNESCO 2016 *Culture Urban Future: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aris: UNESCO

page 10



- Goal 11.4
 -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세계의 문화 ·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SDGs 4: 양질의 교육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함
 - SDGs 8 and 12: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있어 문화의 역할
 - SDGs 14 and 15: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문화의 역할
 - SDGs 16: 포용적 사회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문화의 역할
 - SDGs 5: 성평등과 문화의 역할
 - SDGs 2 and 3: 식량안보와 건강증진과 문화
- UNESCO “Culture and the 2030 Agenda” Paris: UNESCO

page 11

- 문화는 지속가능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차원 모든 면에서 기여하고 있음
- 문화산업과 창의산업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임. 전 세계에서 3,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문화 간 대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평화로운 사회 구축과 화해를 위한 강력한 도구임.
- 문화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줌. 문화가 없는 지속가능 발전은 불가능 함

UNESCO “Culture and the 2030 Agenda” Paris: UNESCO

page 12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문화와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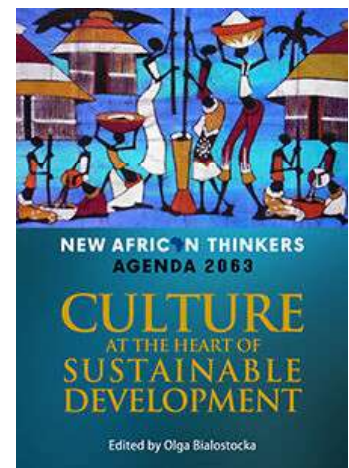
- 부와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성장 추진
- 혁신체계(Innovation system)의 활성화
- 사회적 통합/포용(social Cohesion)의 강화
- 대화와 이해의 증진
- 복지와 삶의 질 증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사례

- 옹호활동: 유네스코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New Urban Agenda,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itiative 등을 통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함
- 정책 입안과 모니터링: 유네스코는 도시 발전정책, 문화정책 등을 주도하며 문화와 발전, 특히 도시 정책을 강조함
- 네트워크 활성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함
- 국제협력: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한 협력 강화
- 측정도구: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 Suite(CDIS) 개발, 유네스코 통계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문화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UNESCO “Culture and the 2030 Agenda” Paris: UNESCO



➤ Charles Landry(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 도시의 창의성 기반 : 창의적 인재 유치와 육성

- 창의적 인재의 개인적 자질: 풍부하게 사고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자신해서 리스크를 떠 안고, 종래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사고하고, 반성하는 사람.(p154)
- 의지: 변화 속에서 성공을 발견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의지는 그에 상응하는 **관용, 공감, 이해에 의해서 균형** 잡혀야 함(p.156).
- 리더십: 다양한 리더(보통의 리더, 혁신적 리더, 미래지향적 리더)와 리더십(윤리적 리더십, 정서적 리더십, 지적 리더십, 효율적 리더십 등). 리더십은 질적인 동시에 기능적 특성이 있음. 상황에 따라 다른 자질이 요구됨. 성공하는 리더십은 의지, 기지, 에너지를 비전과 도시 및 주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로 연결시킴 (p157)

page 15

- 다양성: 도시의 인재를 혼합시켜야 함. 사회적 다양성 및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함. (p160)
- 아웃사이더의 관점과 인사이더의 조화: 아웃사이더 지식인, 인사이더 지식인 및 활동가의 연계가 중요함 (p160-162)
- 조직의 변화: 창의적 조직, 학습하는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함, 권한의 위임도 필요(p162-163)
- 네트워크의 발전: 도시 내부와 국제적 네트워크의 동시 발전이 필요함(p181-189)
- 강력한 문화 및 지역정체성 (p170-172)

page 16

➤ Richard Florida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 ❖ 도시의 지속적 발전은 창의적 인재의 유치와 육성이 중요함
- 왜 창의적 인재는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이는가? : 사람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연구에 관심
-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활양식(lifestyle) 취향도 중요함. 일자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음을 발견. 포용적이고 다양한 삶이 가능한 곳을 선호함(p52-53)
- 창의계급의 특성은 유의미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창의적 계급을 유치하려는 도시는 전통적인 경제적 요소(교통, 기반시설, 세제 혜택 등 기업 친화적 요소)에만 집중해서는 안 됨. 창의적 계급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함. 지역사회가 양질의 삶의 경험 제공,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창의적 인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p55)

page 17

- 진입장벽: 외지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야 함.
- 다양성의 존중: 게이지수(미국의 1990년대 상위 10개 도시 중 6개, 2000년대 상위 10개 도시 중 5개 지역이 전국 상위 10대 하이테크 지역 도시임, p.62-63), 보헤미안 지수(1920년대 Robert Park의 도시 연구부터 강조됨. 보헤미안은 '사회적 관습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주로 예술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됨, p64-65)

page 18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협약(2005)에서 정의하는 문화의 개념

● 유네스코와 문화(culture)개념

✓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 ← 인류학의 문화 개념

✓ 세계문화정책회의(1982, 멕시코시티)

“예술과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 주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적 전체 ”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의 전문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

✓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 1항

page 19

문화 개념의 성찰적 논의: 고전적 문화개념의 한계

● 일집단 일문화의 가정

- ✓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 ✓ 집단이나 개인이 다수의 문화를 갖거나 다수의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을 무시하는 문제

● 국민국가가 문화의 단위라는 가정

- ✓ 정치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동일시 하는 문제
- ✓ 국민국가는 국민문화 개념을 통해 국민으로 묶이는 이들의 결속을 도모하고자 함

● 문화민족주의의 문제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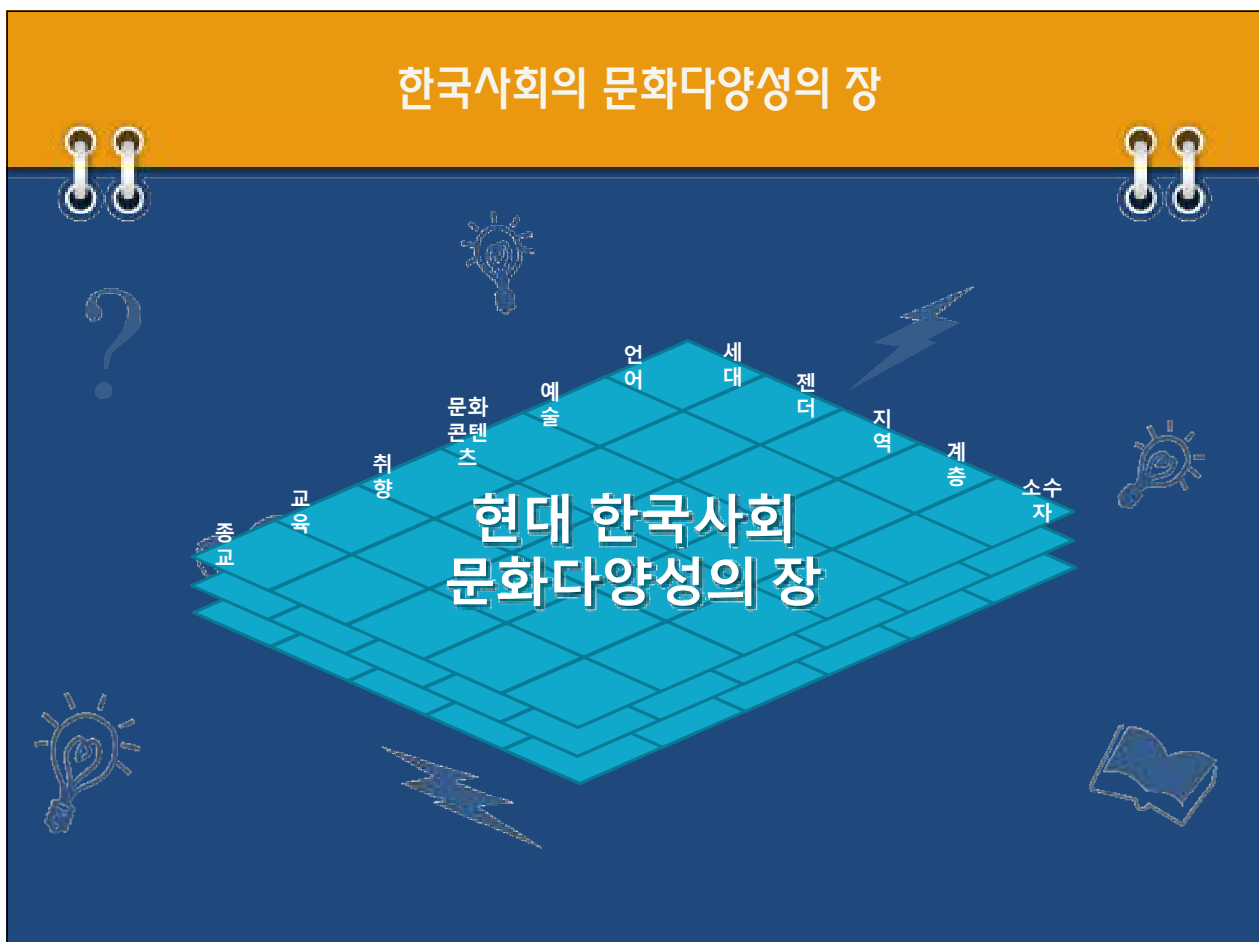
- ✓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대신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는 문화민족주의가 등장
- ✓ 국민문화의 역사성과 독자성, 우수성을 강조

page 20

문화 개념의 전개와 발전

- 문화는 여러 다양한 주제나 요소들의 대결과 경쟁, 갈등과 타협의 장
 - ✓ 사회에는 많은 내부적인 모순과 경쟁, 이해관계의 대립과 투쟁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고 경합하는 문화들이 존재
 - ✓ 일시적 타협이나 해결책에 의해 우리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라 부르는 지배문화만이 전면에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집단 간, 문화 간 다양성 뿐 아니라 집단이나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다양성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 문화 간 다양성 + 문화의 내적 다양성”

page 21



문화 다양성이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1조

-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있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page 23

문화 다양성이란?

● 문화다양성과 발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3조

문화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개방된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다양성은, 단지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문화다양성과 인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4조

문화다양성에 대한 방어는 인간존엄성의 존중인 동시에 인류가 수행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이다. 이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소수민족이나 원주민들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영역을 제한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page 24

문화 다양성이란?

- 모든 이를 위한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6조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및 모든 문화에 표현과 보급의 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 등은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7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풍성해진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역사의 기록인 모든 형태의 유산을 보존 및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양성을 지닌 창의성을 고양하고 문화간 진정한 대화를 고무할 수 있다.

page 25

문화 다양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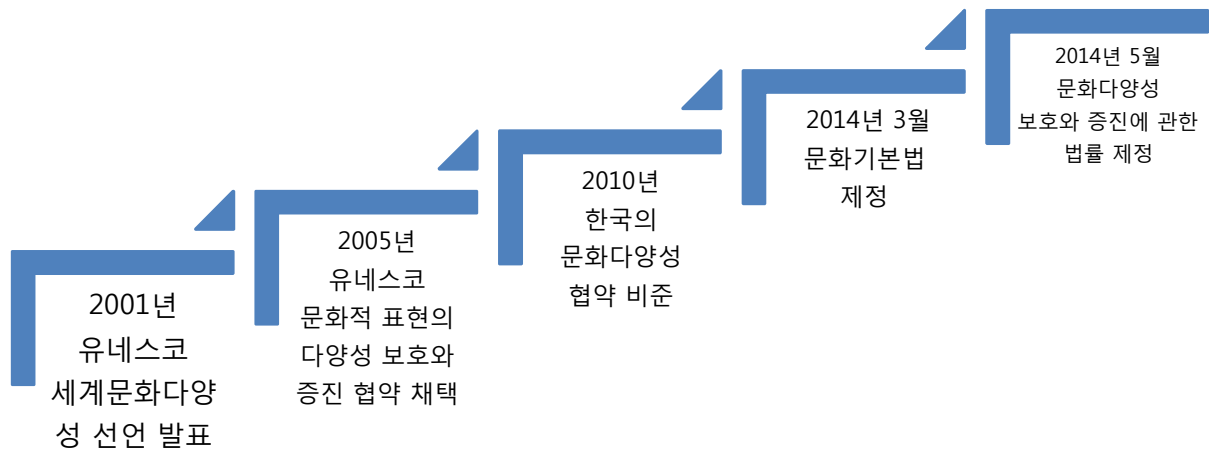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

- 협약 전문(Preamble Recital)에서의 강조점

- ✓지속가능발전의 원천
-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것
- ✓문화와 발전을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추진하고 정립해야 함
- ✓문화의 다양성은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에서 구현됨: 전통 지식체계의 중요성, 사회통합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국가 간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 소수자와 토착원주민의 문화생명력의 문제

page 26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그룹 위원국 진출
 2020년 6월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2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부의장국
 202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
 2021년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문체부 산하)

page 2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제정, 2020 일부개정)

-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무총리실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2020년 법률개정: 문체부 산하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page 28



- 유네스코의 사명
- 유네스코는 창립 선언문에서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평화의 방벽을 쌓을 곳도 인간의 마음 ” 이라고 규정함.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명을 실천함. 국가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의 차이와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평화를 구현하고자 함
- 교육 분야에서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인종주의 비판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
- 문화정책의 강조점: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의 본질이고 발전의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기념하는 노력을 해 옴. 세계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등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문화유산 목록은 개별 국가나 민족의 트로피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함께 보호하고 계승하자는 것임

page 2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시작과 발전 (2004~ 현재)

- 유네스코는 창립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시대적 맥락에 따라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음. 따라서 유네스코의 사업은 창립 정신의 현대적 표현이거나 변화하는 맥락에서 유네스코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음
- 창의도시 역시 유네스코의 문화정책 의제인 문화와 발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 ✓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 ✓ 문화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창의적 자산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Post 2015, Agenda 2030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국제 사회 공동의 발전목표(2016-2030)
- ✓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현하는 도시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보완함

page 30

SDGs Goal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연관된 목표는 Goal 1 (빈곤종식), Goal 5 (성평등), Goal 8 (경제성장), Goal 11(지속가능 도시와 공동체 창조) 등이 언급되고 있음 (UNESCO 2016 Culture Urban Future: 257)
- Goal 4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평생교육 제공; 성평등 교육, 세계시민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평생교육 등)는 문학창의도시와 연계될 수 있음
- 유네스코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진된 이후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실제 신규도시 신청서에도 해당 목표를 가입희망 도시들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묻고 있으며, 기존 도시들의 활동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기존 도시의 모범적 프로그램과 도시 발전 정책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파리 본부 홈페이지와 연례회의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음

page 31

UNESCO Creative City Network(UCCN)

-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2004년에 7개 영역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출범함
- 창의도시의 7개 영역: 문학(Literature), 미식(Gastronomy), 공예와 민속예술(Crafts & Folk Art), 영화(Film), 음악(Music), 디자인(Design), 미디어 아트(Media Arts)
-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 영역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추구할 때 창의성이 핵심적 요소임을 공감하는 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임
- 2015년 MDGs를 대체한 SDGs와 연계하여 도시발전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핵심 가치로 연계되기 시작함. UCCN은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로 발전함
- 한국의 창의도시 현황: 서울(디자인, 2010) 이천(공예, 2010) 전주(미식, 2012) 광주(미디어 아트, 2014), 부산(Film, 2014), 통영(음악, 2015), 부천(문학, 2017), 대구(음악, 2017)



page 32

-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비전은 문화다양성의 증진과도 연계되어 있음.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곧 도시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실천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의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 ” 과 2005년 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 은 유네스코의 비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특히 2005년 협약은 문화적 표현 즉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와 강제 규정이 주요 내용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지속가능발전에의 문화 통합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발전정책에 통합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육성한다.
- 창의도시의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연계는 도시 발전에 적용한 실질적 사례이자 협업 네트워크임. 따라서 해당 도시의 문화적 성취(문학, 영화, 음악, 미식, 공예, 미디어아트 등)를 칭송하거나 시상하는 것이 창의도시 지정과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

City of Literature: Manchester(2017) - 산업혁명의 발상지에서 문학의 도시로

➤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IMLD)

- 맨체스터는 91개의 다양한 민족 출신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도시임. 국제모국어의 날 행사를 통해 언어 다양성 및 문화다양성의 확대를 추구함
- 도시의 언어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킴: 다중언어 교육의 확대
-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언어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어린이들이 부모의 모국어로 시와 산문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함
- 번역가와 출판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언어로 된 창작물의 발표와 보급을 지원함
- 맨체스터의 주요 극단들이 다양한 언어(수화 포함)로 공연하는 쇼케이스를 개최함
- 학교, 경찰서, 보건소,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언어다양성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함
- 언어다양성의 의미와 소멸위기에 처한 언어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회 개최
- 영국 계관시인의 지도를 받는 맨체스터 청소년 계관시인 3인(어떤 언어로 시를 써도 상관없음) 선정 운영.

City of Literature: Manchester(2017) - 산업혁명의 발상지에서 문학의 도시로

- 2018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 Evening of Urdu Poetry: Manchester Writing School and Manchester Muslim Writers - Poetry will be performed in Urdu and English
- Gaskell House for Commonword Poets: Fereshteh Mozzafarri (Farsi and English), Shirley May(Jamaican national language/patois and English), Shamsad Khan(Urdu and English)
- Refugee Tales in Rochdale: “Stories shape the world we live in and , by sharing them, we have the power to make change and connect.” Comma Press “Refugee Tales II” - modern re-working of Chaucer’s Canterbury Tales. / 난민과 작가의 공동작업
- 우간다 작가 초청 작가와의 대화: Jennifer Nansubuga Makumbi (2014 Commonwealth 단편 소설 수상자)
- Poetry Translation Workshop
- 일본작가 초청 작가와의 대화: literature Live Mariko Nagai and Richard Lloyd Parry - Japan Now



Jennifer Nansubuga Makumbi, Uganda



Zahid Hussain, Urdu Speaking Poet

page 35

City of Literature: Manchester(2017)



- Manchester 대학은 “창의 맨체스터” 프로젝트 출범함(2018년 2월 19일)
- University of Manchester는 맨체스터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가입을 주도함
- 문화와 창의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330만 파운드 투입.
- 창의산업은 영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연국 경제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백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 맨체스터 대학은 유산연구, creative writing, 드라마, 음악, 영화, Screen Writing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교수 채용 및 학생 지원을 확대함

page 36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제언

● ● ●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bstract

문화다양성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화, 문화와 문화의 더 나은 관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기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 그 자체가 자원이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고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사회통합의 전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라 보고, 이러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체류 외국인·탈북민의 유입 등 인구구성의 다양화 정도는 더욱 선명해 지고 있다. 소수문화 등 문화주체의 다변화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류 사회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 양성평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여혐현상이 증폭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이나 성별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국제 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사업 등), 여전히 정책적으로 정확한 정책적 함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스템의 개편, 문화다양성 정책의 철학적 기반, 내용과 범위의 분명한 규정과 합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발굴 및 추진 체계 마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지속적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Key words: 다문화정책,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정책, 문화적 권리, 소수문화, 문화다양성정책협의체

I.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 개념

문화다양성 개념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92년 소수자권리에 관한 선언,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 그리고 2003년에 유엔에서 최초로 문화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의제가 발의되었고, 2005년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한국 사회 내 문화다양성 논의는 1998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영화의 보호 장치였던 ‘스크린 쿼터제’ 축소 요구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즉 선진국 문화로의 동질화 우려와 자유교역에 따른 국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보호 및 문화주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논의는 국내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활발한 추진과 맞물리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 증가, 조선족·고려인 등의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문화정책’이 등장하였는데, 이 다문화정책이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문화다양성’ 개념과 혼동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정책은 이주민(특히, 결혼이주민)의 국내 통합을 주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시혜적 정책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내국인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이란 해외 유입 타문화뿐만 아니라 국내 소수자 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전통문화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서

문화다양성 개념(제2조)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이주민들과 관련된 인종이나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성별, 종교, 언어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결국 문화다양성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화, 문화와 문화의 더 나은 관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양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 그 자체가 자원이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사회 통합의 전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별 소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그들의 생활권을 지원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소수자 및 다수자가 상호 간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II. 문화다양성정책의 지향점: 갈등의 이해와 극복

오늘날 국내외에는 정치·경제적인 요인,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문제, 문화적 갈등, 세계적인 테러문제 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 자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부당한 대우가 만연해 있다. 피부색이 진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한국인과 다른 외모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소외와 차별을 겪는 이주 아동도 적지 않다. 차별의 대상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다. 성차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여성혐오다. 여성혐오 또는 여성증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멸시, 또는 반여성적인 편견을 뜻하며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 방식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사회적 차별 역시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우기 문화다양성 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차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이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는 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효과는 미미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III.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많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다양한 갈등, 혐오 범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문화적 환경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도는 물론 상당히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체류 외국인·탈북민의 유입 등 인구구성의 다양화 정도 또한 더욱 선명해 지고 있다. 노동이주, 결혼이주 등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더욱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 7,601명으로 2017년 대비 8.6%가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4.6%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정책방향의 변화가 빠르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이 서로 혼동되어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정책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차이〉

구분	내용
다문화	다문화란 근대역사에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단일인종·문화 국가에 다인종·다민족이 유입되거나 처음부터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출발한 국가들이 처한 사회·역사·정치적인 문제들, 즉 '특정 시공간에서 다양한 인종·민족·종족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용어임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징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다양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

둘째, 소수문화 등 문화주체의 다변화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류 사회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 등록장애인은 251만 명(2016년 2월)으로 인구대비 약 4.9%이나, 10년간 인권위 진정 차별사건 중 '장애 차별'이 46.9%(10,993건)로 가장 많다. 고령화와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 문제는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14.9%로 전체 인구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동시에 세대갈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양성평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여혐현상이 증폭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이나 성별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2020년 WEF의 성평등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50개국 중 108위를 차지한 것에서 볼 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혐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극심한 편견과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IV.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추진 주요 내용 및 성과

1. 주요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유형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 부분에서 언급했던 다문화정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체적인 정책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형 및 예시〉

번호	유형	예시
1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캠페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홍보체계 구축, 토론회 등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소수문화 활동 지원*, 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지역고유문화 사업 등
3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문화예술 상호교류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4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법적 제정과 제도적 기반마련, 정책예산 확보, 기구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정책 협의체계 구축 등
5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소수문화계층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등
6	국제 문화교류 및 국외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민간차원의 국제 문화교류 활동 지원 등
7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사업	미디어를 통한 문화다양성 활성화 사업, 미디어 상의 소수문화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지역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작은영화관 설립·운영 지원 등), 영상제작 지원 및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결혼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소수문화 활동 및 독립 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지역문화 등 소수 장르 활동 지원 등

** 독립 문화예술: 상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제작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 대안문화예술: 연극, 영상, 미술, 문학 등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혼합 및 융합된 탈장르적·실험적 예술분야

(연차보고서 p.58 참조)

위에서 정리된 사업 유형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사업은 매년 5월 21일 UN총회에서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부터 일주일의 기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말한다. 2014년 문화다양성법 제정 이후 국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일주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해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를 전국에서 진행한다.(문화다양성법 제11조). 2019년도 문화다양성의 날 및 기념 주간행사는 전국 26개 지역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주로 문화 및 관광재단을 비롯한 문화기관 등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소수자·전통 및 세계문화·세대 간 차이·이주민·장애인·독립예술 등을 주제

로 포럼·체험·공연·전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둘째,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2년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지개다리사업은 각계각층 문화 주체들 간의 상호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간의 이해 및 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지개다리사업은 매년 참여자나 프로그램 수가 증가될 정도로 가장 성공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수 연도별 변화〉

년도	무지개다리 예산 (백만 원)	주관기관(개)	프로그램 수(개)	평균 프로그램 수(개)
2013	2,270	12	138	11.5
2014	2,470	17	124	7.3
2015	2,430	23	183	12.3
2016	2,430	24	233	9.7
2017	2,309	25	242	10.0
2018	2,584	27	258	9.5
2019	2,200	26	224	8.6

〈 무지개다리사업 협력단체 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자수	124,812	36,369	108,830	187,012	226,321	249,918	183,261

셋째,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은 유치원 및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초등 교육 현장 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인식을 확산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지역별·직무 분야별 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통해 사회 각층에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적·창의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역 문화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및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영상, 웹툰, 음악 등 제작 및 배포가 가능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모집하는데, 국내외 전통적·역사적·상징적 문화 소재를 활용하여 문화 간 상호이해, 편견 해소 등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콘텐츠를 발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지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수행한 고양시정연구원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양시의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입된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갈등 충돌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미디어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16년부터 매년 미디어 다양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콘텐츠는 유통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되며 플랫폼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내 방송의 다양성 정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미디어 다양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방송채널 구성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사하기도 한다. IPTV, 케이블TV, 위성 방송의 디지털 상품과 지상파·종편·민간기업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및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여섯째, ‘국제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아태지역 위원국(임기: 2017년~2021년)으로서 제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위원국으로서의 역할이행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유네스코와 신탁기금 지원 MOU를 체결(2008년 수정 체결)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문화 창의산업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개발도상국 문화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총 14개국에서 21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토대로 문화창의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 제도적 기반 구축

이상의 사업들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기반구축 작업이 필수적이다.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한 작업은 우선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되었으며,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2016~), 17개 시도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방향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 제정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라남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2016년)한 이후, 현재 19개의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교육청 주관 하에 제정된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는 주로 학교 내에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 환경의 조성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소속(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지역
교육청(2개)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역(10개)	전라남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기초(7개)	목포시, 익산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해시, 신안군 1004섬, 인천광역시 서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기준(접속일: 2020.7.30.)

(연차보고서 51~52)

V. 문화다양성정책 추진과정의 한계 및 극복방안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수는 문화체육관광부만을 제외하고는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 189쪽)

〈2015~2019년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추이〉

(단위: 개, %)

연번	정부 부처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1	고용노동부	1	1	1	1	1	0.0
2	교육부	6	7	5	5	5	△4.5
3	국방부	-	-	1	1	1	0.0
4	농림축산식품부	2	1	1	1	1	△15.9
5	법무부	2	2	2	2	2	0.0
6	보건복지부	-	1	1	1	1	0.0
7	방송통신위원회	-	1	1	1	1	0.0
8	여성가족부	2	4	4	4	4	18.9
9	외교부	-	2	2	1	1	△20.6
10	행정안전부	-	3	6	5	5	18.6
소계		13	22	24	23	22	14.1
11	문화체육관광부	121	158	169	228	240	18.7
계		134	180	193	250	262	18.2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는 제출자료 기준

이러한 현상은 과거 다문화정책이 전 부처에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것에 비하면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담당부처인 것도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중앙 정부 여타 부처에서의 이해 정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당초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려고 했던 법제정까지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격하시킨 것과는 관련을 가진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매년 그 수가 증가되고 있어서 나름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들 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개수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매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데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기보다

는 기존의 소수자(노인, 외국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소수문화예술활동 등) 대상으로 추진되던 정책사업들을 모두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합쳐서 합산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추이〉

(단위: 개, %)

연번	지방자치단체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1	서울특별시	51	166	294	349	299	55.6
2	부산광역시	7	371	447	389	283	152.2
3	대구광역시	42	125	130	117	128	32.1
4	인천광역시	31	140	188	192	185	56.3
5	광주광역시	-	75	71	52	144	24.3
6	대전광역시	9	38	56	64	60	60.7
7	울산광역시	4	111	150	81	84	114.1
8	세종특별자치시	-	15	16	16	20	10.1
9	경기도	50	113	195	365	323	59.4
10	강원도	-	22	34	81	167	96.5
11	충청북도	25	102	156	162	154	57.5
12	충청남도	34	111	99	154	189	53.5
13	전라북도	35	68	60	198	323	74.3
14	전라남도	33	71	165	202	222	61.0
15	경상북도	43	47	71	191	160	38.9
16	경상남도	49	39	153	175	211	44.1
17	제주특별자치도	-	3	11	24	25	102.7
계		413	1,617	2,296	2,812	2,977	63.9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추진된 사업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연차보고서 p.193)

일면 수치상으로는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자에 대한 시혜적 별도 지원 사업으로 치러지는 행사성 사업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예산집행과 정산 등의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있을 뿐 전반적 정책의 방향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매년 관행적인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상시 관리하지도 않아서 정책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다양성 정책의 철학적 기반, 내용과 범위의 분명한 규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의 개념이 일반인들 특히 지역으로 충분히 전달되어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으로 오인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의 정책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의식 수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인권의 개념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예술다양성, 플랫폼다양성, 언어다양성, 정체성 다양성 등의 표현 매개물에서의 다양성 개념이 상호 상충 또는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사업의 정량적 증가보다 문화다양성 개념의 기본적 동의가 더욱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발굴 및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체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수자 대상 사업들을 문화다양성 사업을 통칭하고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다. 현재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문화·외국인·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한계를 가진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은 전 부처·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하므로 문화다양성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지속적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대단히 상이하고 개별 국가의 국민들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또한 천차만별이라 모든 국가에게 공히 동일하게 적용할만한 구체적인 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개괄적인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는 뿐이다. 즉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의 수준은 또한 다양한 정치, 종교,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바라보면 관점이 또 다른 차원에서 대단히 상이하며, 특정한 대상별로 또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의 방식과 평가기준도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작업을 수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들 간의 사례 공유 및 정기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상호간 정책사업에 대한 교차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들 간의 개인적 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 간 사업 사례 공유를 통해 관련 담당자와 실무자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인식조사/종합지표

2010,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

201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4,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Abstract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75년에는 인구가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 구조의 지형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경기 침체, 노인 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을 야기시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001년에는 약 58만 명에 불과하던 이주민은 2020년 기준 약 250만 명이 넘는 등 한국의 이주민 숫자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으며, 한 사람과 그룹의 가치, 신념, 규범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렌즈가 된다. 이주민은 정착국으로 이주하며 다른 문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문화는 정착국에서 유지되기도, 배척되기도, 선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 사회적 거리감, 사회통합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비해 이주민 문화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목표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선주민의 이주민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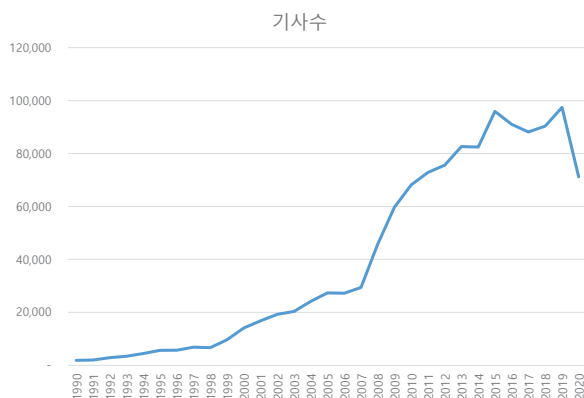
둘째, 결혼이주여성, 미국동포,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 그룹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지역축제, 종교 행사 등)에 대해 선주민이 느끼는 문화적 거리감과 문화수용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며, 이러한 이주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다양성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내 이주민 문화다양성을 증진과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Key words: 이주민 문화다양성, 문화적 거리감, 문화다양성 수용성, 사회적 거리감,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문화다양성



제43회 서울문화제 2차 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주민들

기본계획안

미술관 SK인천석유화학 문화공간

경기도 안산시 생활예절 도서관

지자체 문화예술

문화재단 남양주시

재능기부 예산 심의

활성화

인천시

청년들

수여식

문화도시

임명장

문화행사

저용문화제 추진위

울산

박물관

평창강릉

안산시 광명시

경기도 시민들

이사장 서울

Note: 빅카인즈 (bigkids.or.kr)에서 1990-2020년동안 “문화” + “다양” 으로 검색된 기사 포함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
 - “성, 연령, 인종 및 종족, 지역, 장애, 종교, 사회 계층과 성애 등 다양한 사회 범주와 관련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의 차이를 전제**” (류상희 외 2015, p.26)
 - 문화적 경험과 지식과 연관 (김도희, 최종술 2010)
 -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연관 (류상희 외 2015, 장임숙 2010)
- “이주민” 문화다양성에 대한 선주민의 인식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고찰 필요
 - 이주민 문화적 거리감
 - 이주민 문화적 수용도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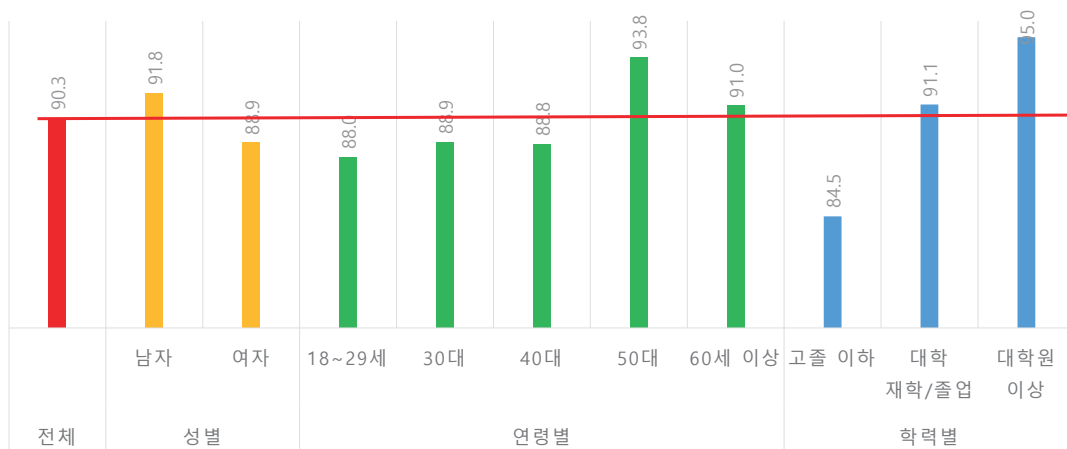
- 선주민의 이주민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다양한 이주민 그룹의 문화에 대해 선주민이 느끼는 **문화적 거리감**과 **문화 수용도**
 -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문화다양성과의 관계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주민에 기여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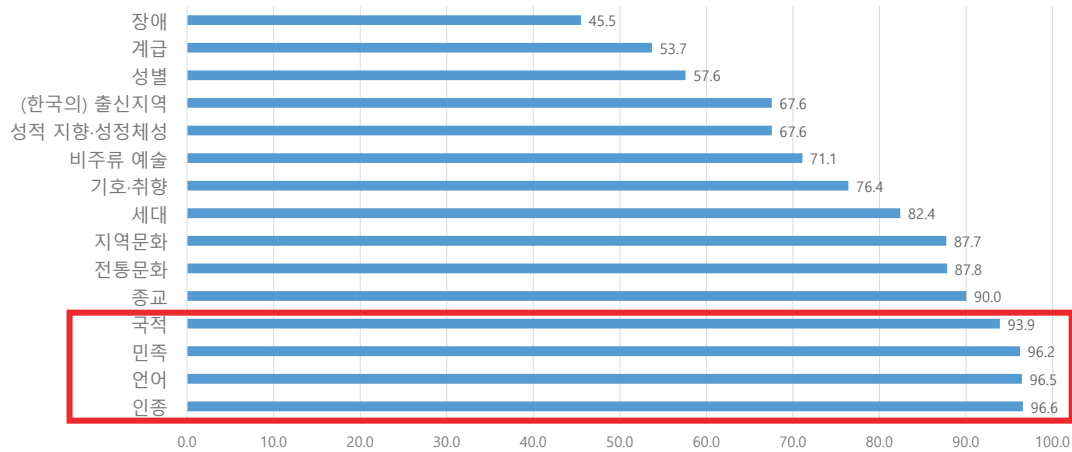


-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8세 이상) 설문조사
 - 2021년 10월 1-6일
 - 지역, 성별, 나이에 기반한 할당표집 (quota sampling)
 - N=1,000
 - 문화다양성, 문화적 거리감, 이주민 문화 수용도,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한발전, 사회통합 등
-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 Dependent variable=이주민에 대한 태도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주민의 기여)
 - Independent variables=문화적 거리감, 이주민 문화 수용도
 - Control variables= 성별, 나이, 교육수준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 구성요소



문화적 거리감 (Cultural distance)

- “a subjective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representing perceived discrepancies between social and physical aspects of the home and host environment” (Ladum 2019)
- 주로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얼마나 host country와 home country간의 문화가 **dissimilar**한지 측정
- 주로 이민자 집단의 psychological adaptation, well-being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왔음
 - with greater difference predicting more difficulties

문화적 거리감: 측정

• Cultural Distance Index (Babiker et al. 1980)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Cultural Distance Index items

Item	Mean	S.D.
1 Climate	1.61	0.56
2 Clothes	1.12	0.31
3 Language	1.74	0.77
4 Educational level	1.23	0.35
5 Food	1.30	0.41
6 Religion	1.34	0.50
7 Material comfort	1.74	0.70
8 Leisure	1.36	0.43
9 Family structure	1.31	0.29
10 Courtship/marriage	1.17	0.33
Cultural Distance Index*	13.89	3.15

a 7-point Likert scale, with answer options ranging from 1 (very similar) to 7 (very different).

Babiker, I. E., Cox, J. L., & Miller, P. M. (1980). The measurement of cultural distance and its relationship to medical consultations, symptomatology and examination performance of overseas students at Edinburgh University. *Social psychiatry, 15*(3), 109-116.

문화적 거리감: 측정

• The Brief Perceived Cultural Distance Scale (Demes and Geeraert 2014)

- ① Climate
- ② Natural environment
- ③ Social environment
- ④ Living
- ⑤ Practicalities
- ⑥ Food and eating
- ⑦ Family life
- ⑧ Social norms
- ⑨ Values and beliefs
- ⑩ People
- ⑪ Friends
- ⑫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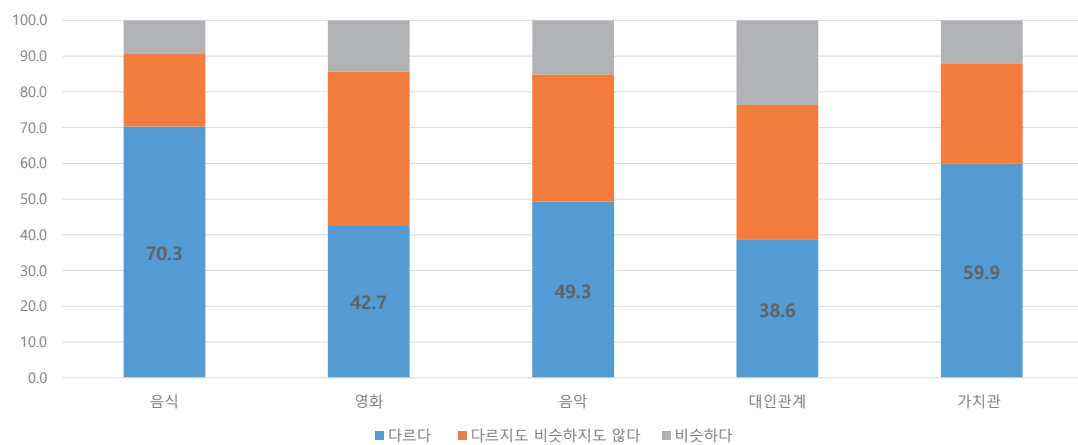
a 5- point Likert scale
(1 = very similar, 5 = very different)

문화적 거리감: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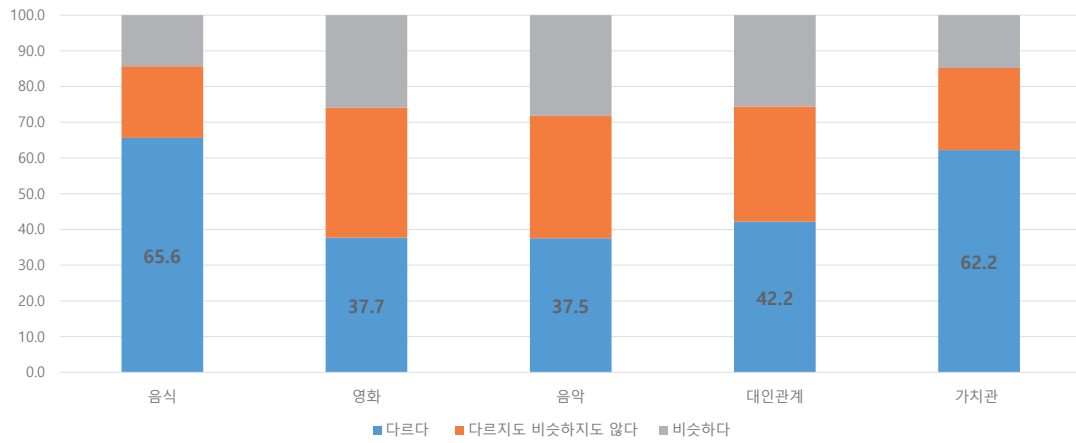
B3. 귀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의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인의 문화적 요소와 얼마나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1점에서 5점까지 범위에서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div> <div>매우 비슷하다</div> <div>← 비슷하지도 다르지도 않다 →</div> <div>매우 다르다</div> </div>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주여성	미국동포	중국동포 (조선족)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유학생
1. 음식						
2. 영화						
3. 음악						
4. 대인 관계(가족, 친구)						
5.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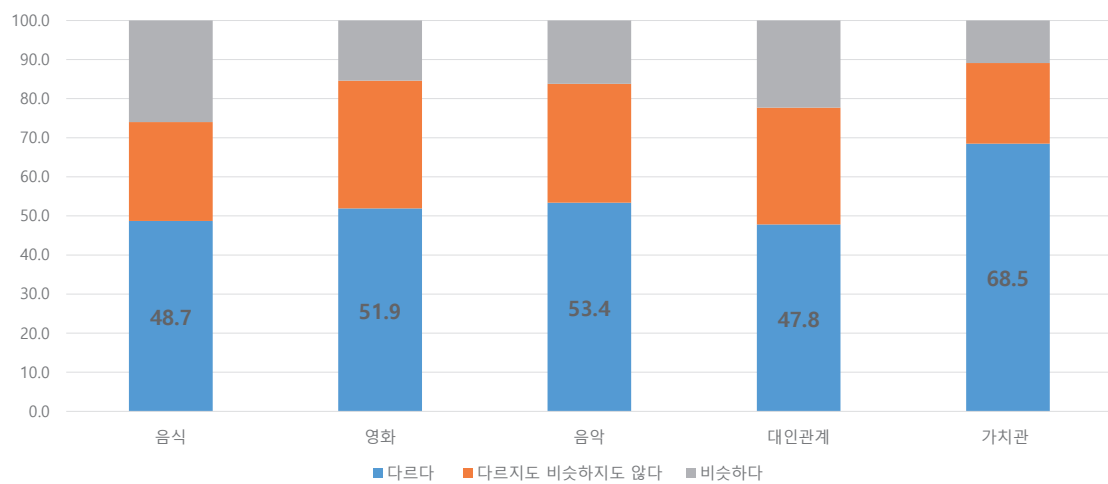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결혼이주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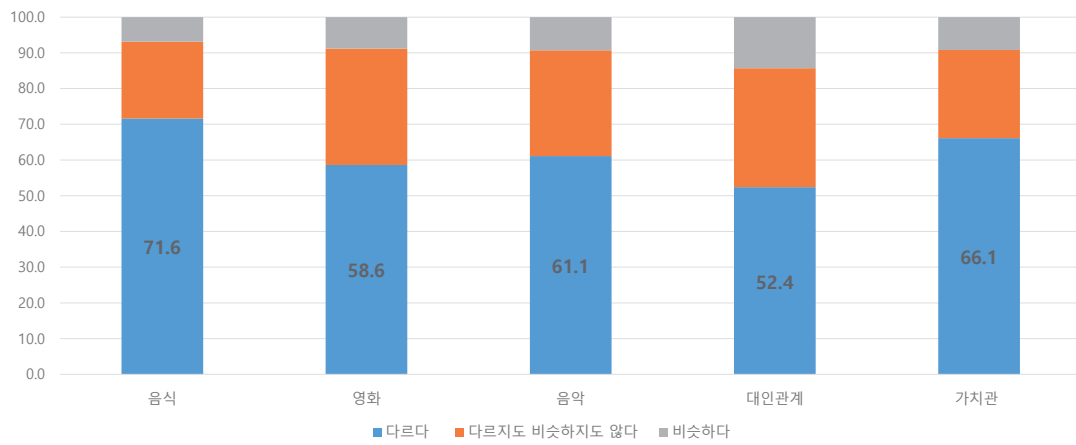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미국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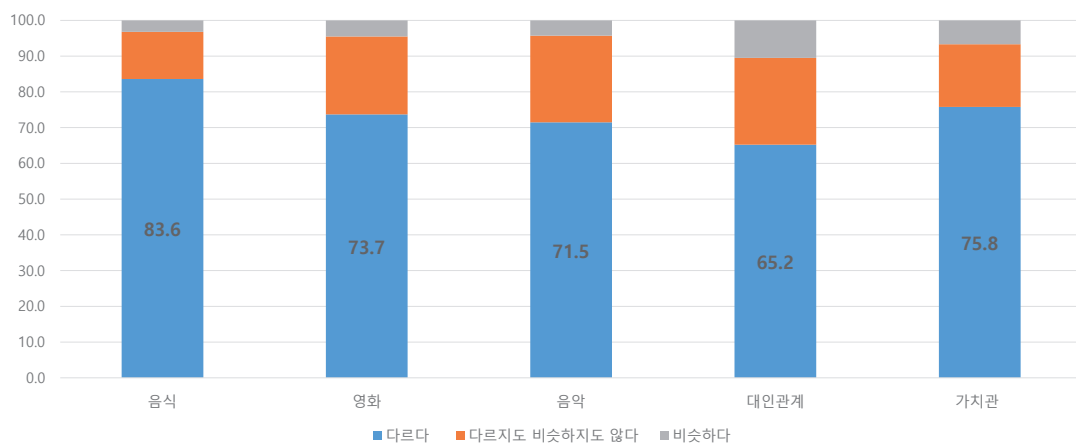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중국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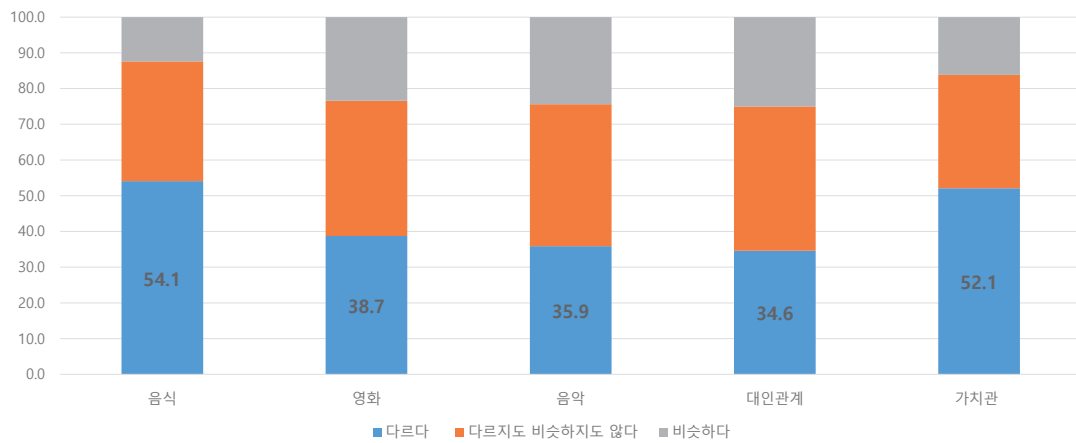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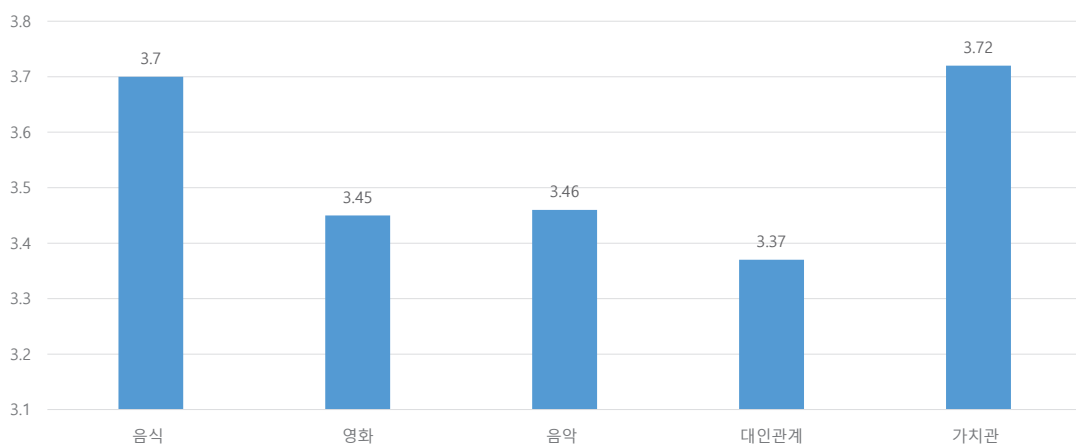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난민



문화적 거리감: 외국인유학생



문화적 거리감 by components (이주민 그룹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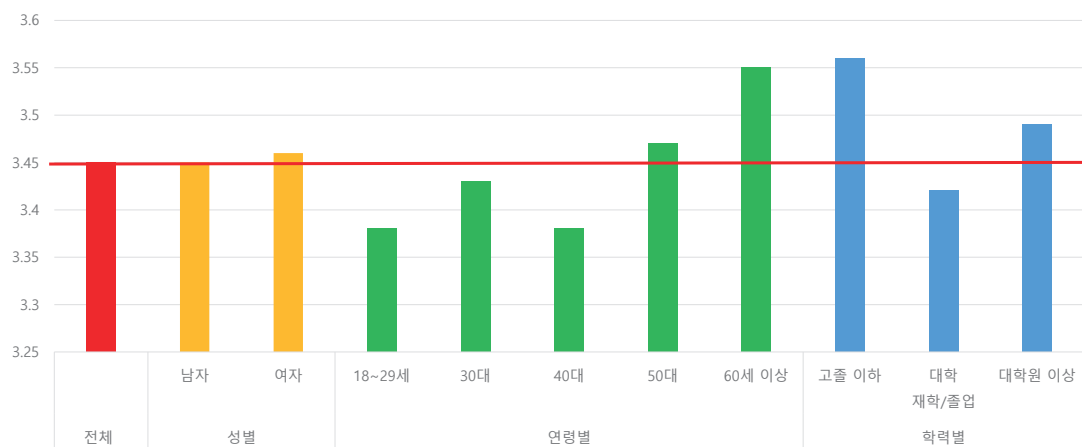


1=매우 비슷하다; 5=매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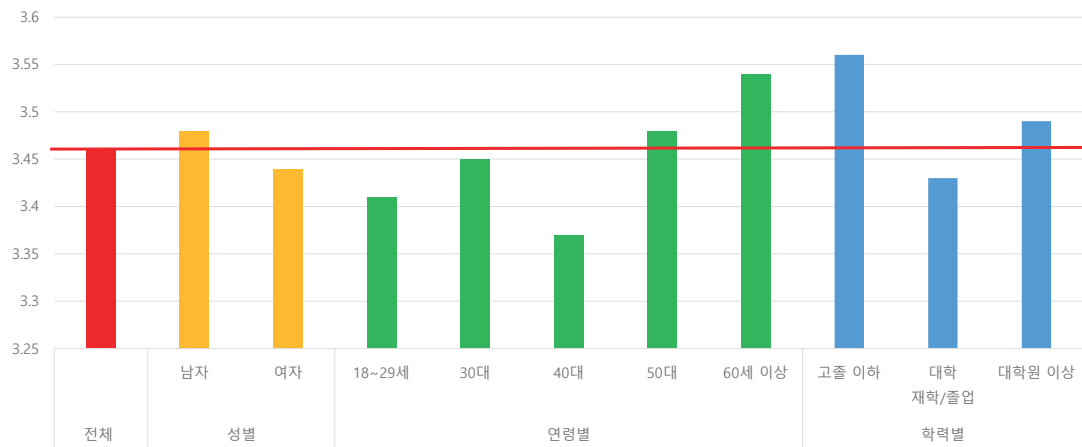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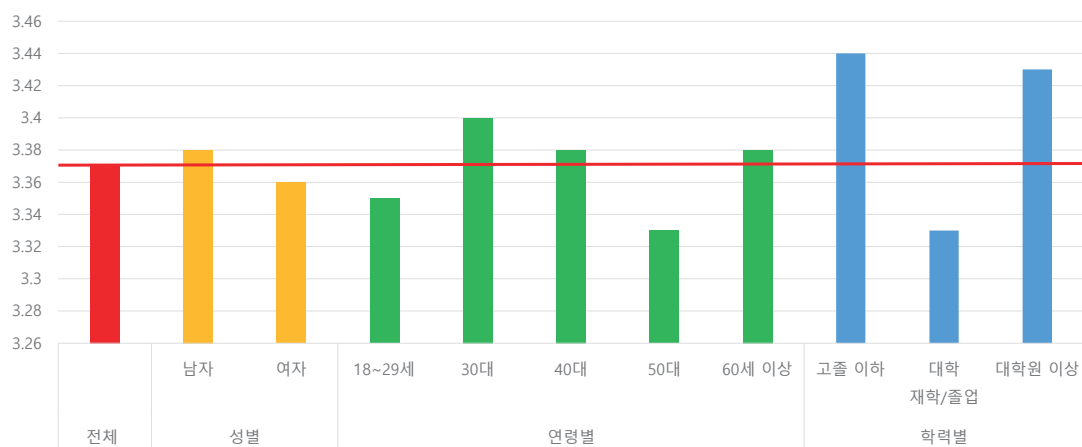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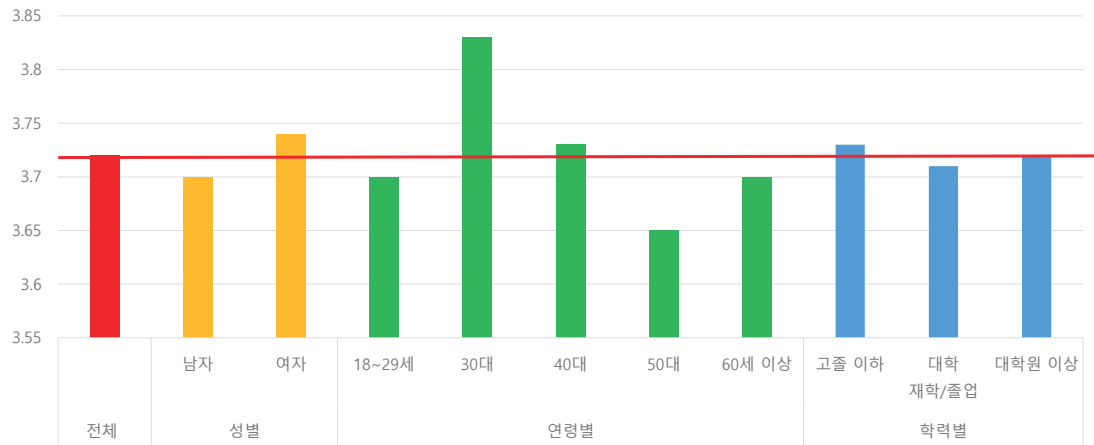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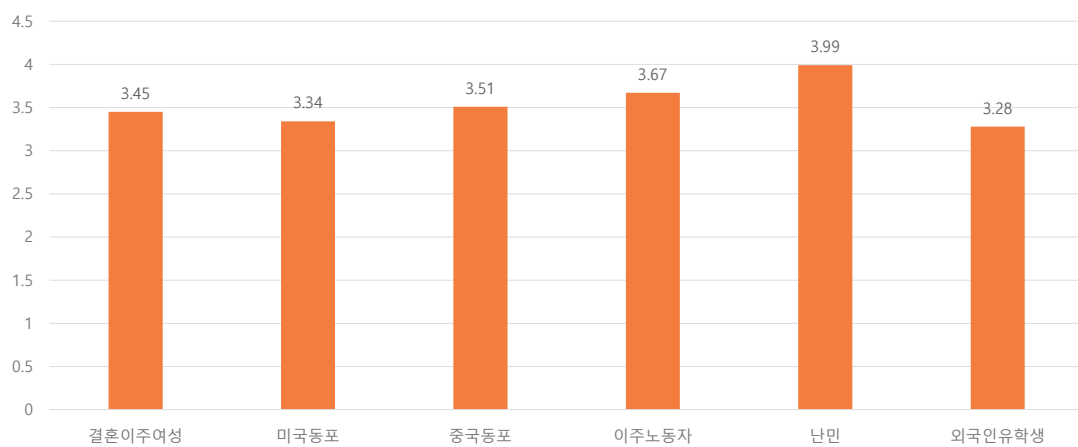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대인관계



문화적 거리감: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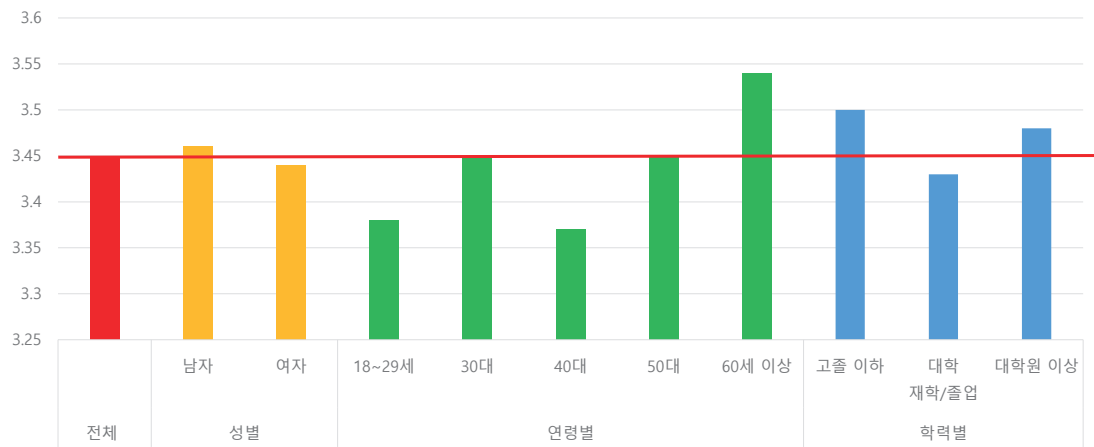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by immigrant groups (모든 문화적 요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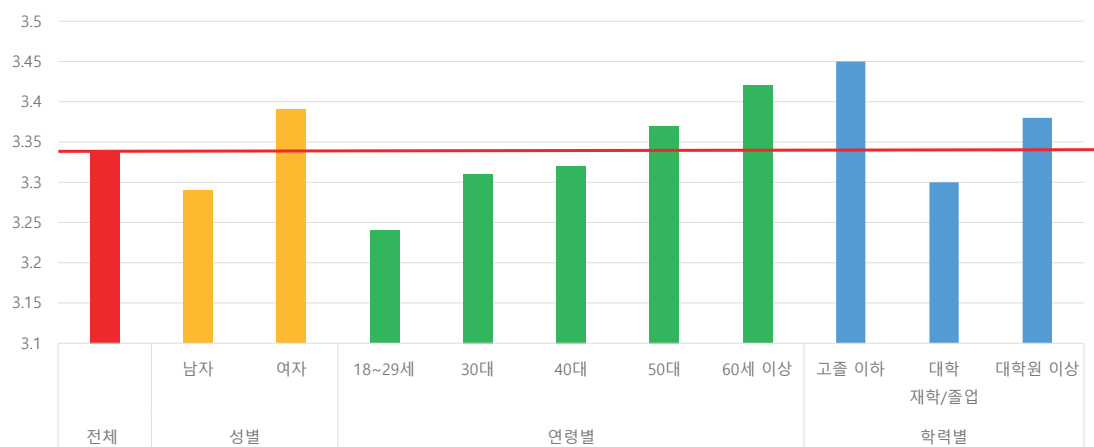


1=매우 비슷하다; 5=매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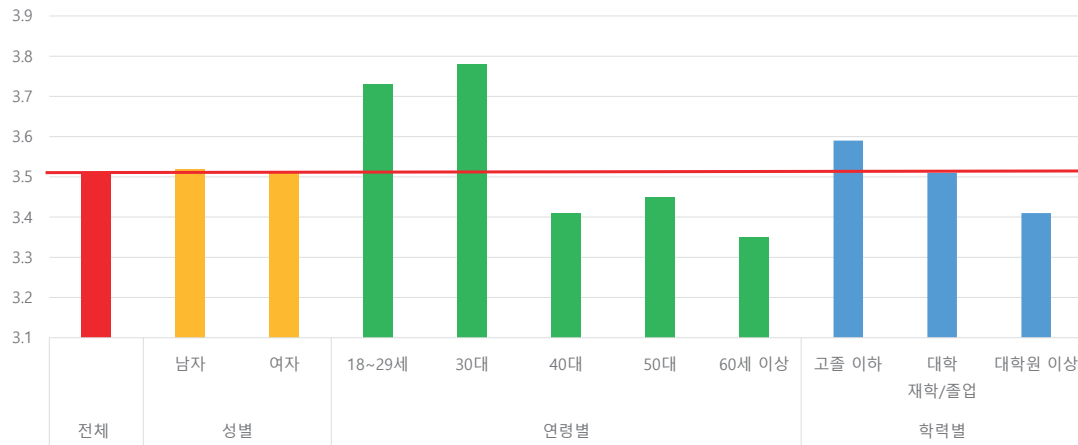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결혼이주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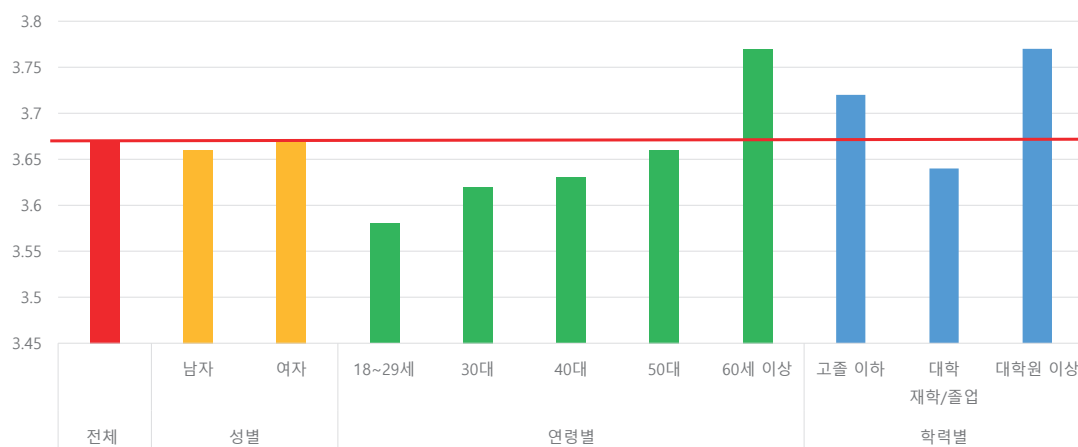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미국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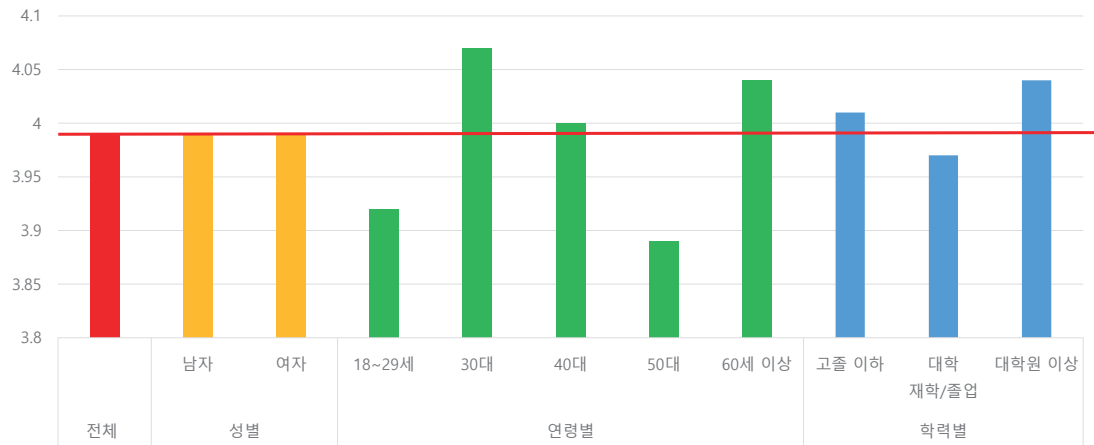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중국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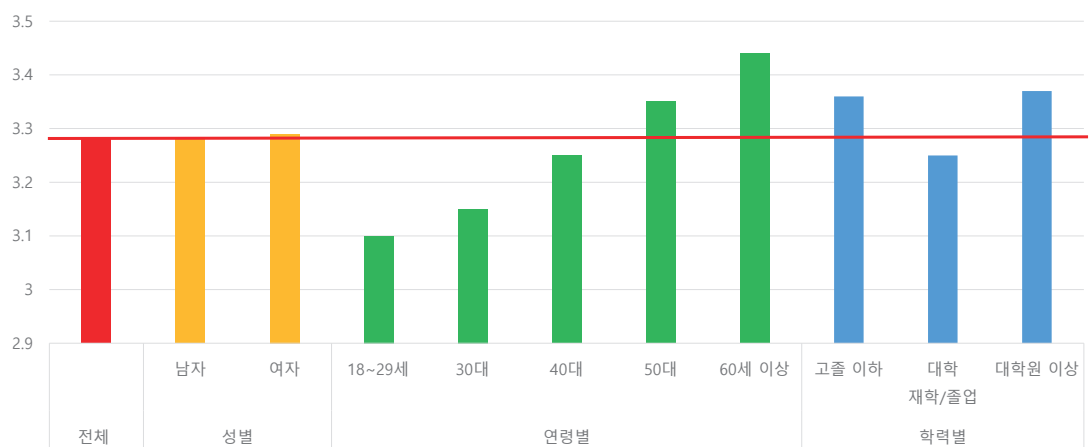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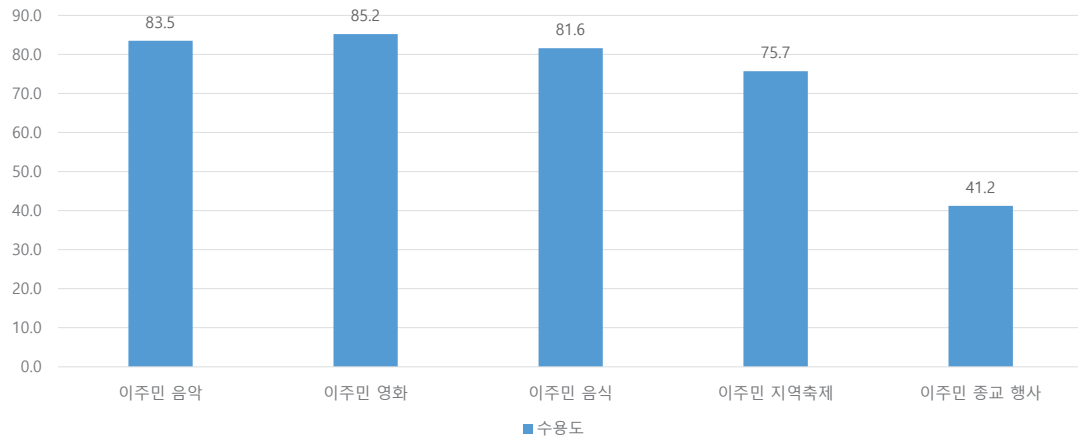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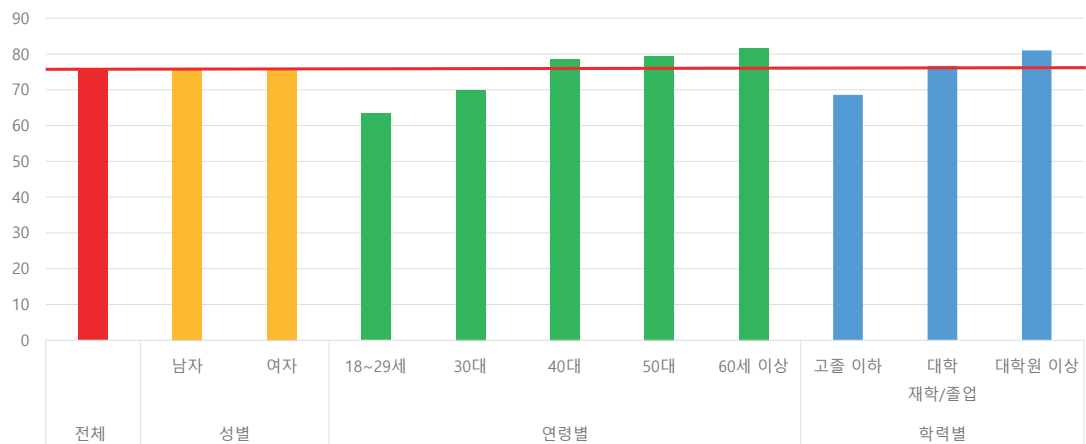
문화적 거리감: 외국인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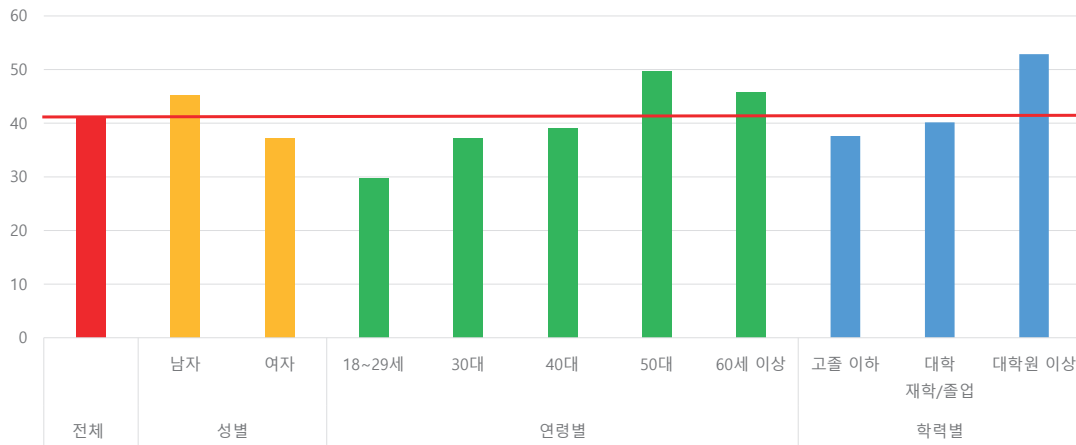
이주민 문화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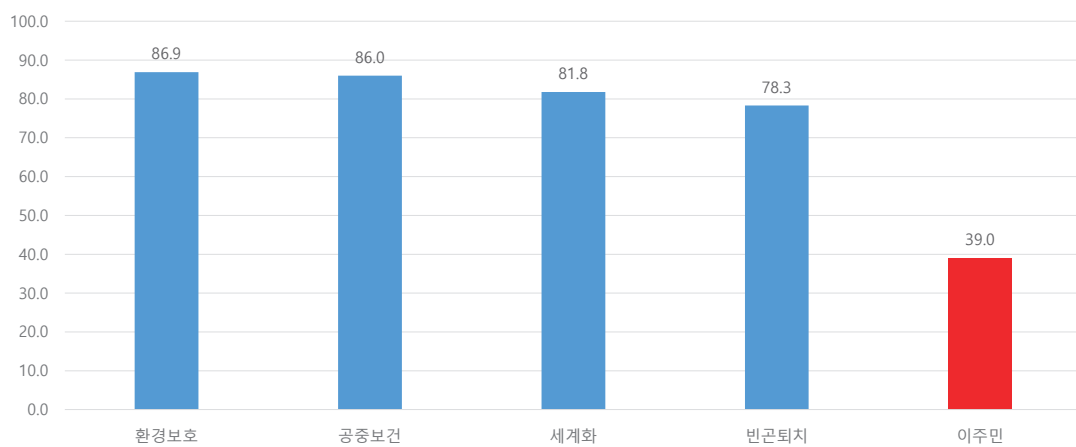
이주민 문화 수용도: 지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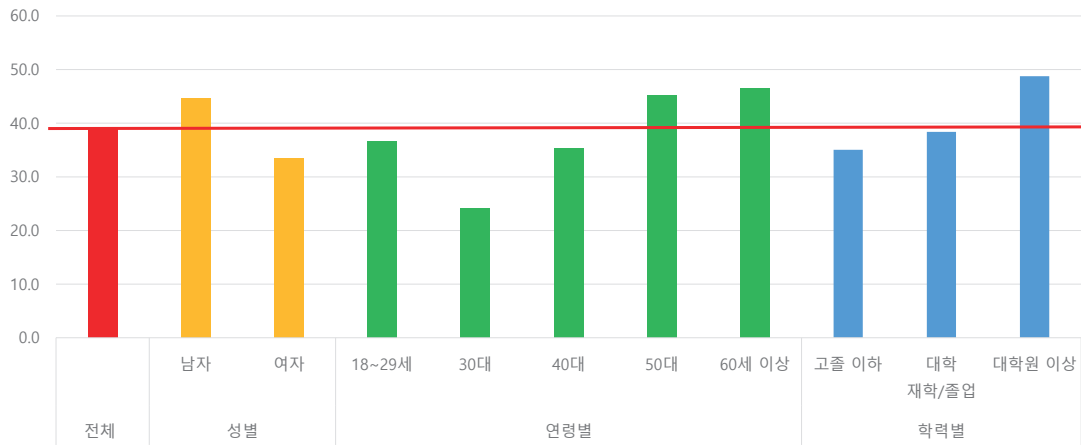
이주민 문화 수용도: 이주민 종교행사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



이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기여



문화적 거리감 (문화요소) & 이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

	Model 1	Model 2
음식	-0.059 (0.066)	-0.073 (0.065)
영화	0-0.019 (0.094)	-0.032 (0.092)
음악	0.049 (0.092)	0.036 (0.090)
대인관계	-0.032 (0.065)	-0.041 (0.063)
가치관	-0.190*** (0.065)	-0.142** (0.064)
성별 (ref: 남자)		
여자		-0.062* (0.055)
연령 (ref: 18-29세)		
30대		-0.128*** (0.096)
40대		0.008 (0.092)
50대		0.103** (0.090)
60대		0.118** (0.085)
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대졸		0.053 (0.073)
대학원졸		0.109** (0.102)
Cons	4.352	4.248
Adjusted R ²	0.0519	0.1009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1; * p<.05

문화적 거리감
(이주민 그룹)
&
이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

	Model 1	Model 2
결혼이주여성	-0.026 (0.064)	-0.038 (0.063)
미국동포	0.049 (0.048)	0.062 (0.047)
중국동포	-0.180*** (0.039)	-0.129*** (0.040)
이주노동자	-0.026 (0.070)	-0.057 (0.069)
난민	-0.162*** (0.057)	-0.140** (0.057)
외국인유학생	0.067 (0.052)	0.033 (0.051)
성별 (ref: 남자)		
여자		-0.076* (0.055)
연령 (ref: 18-29세)		
30대		-0.129*** (0.095)
40대		-0.012 (0.092)
50대		0.080 (0.091)
60대		0.089* (0.087)
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대졸		0.045 (0.073)
대학원졸		0.101** (0.102)
Cons	4.418	4.352
Adjusted R ²	0.0779	0.1176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1; * p<.05

문화적 수용도
&
이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

	Model 1	Model 2
이주민 음악	0.072 (0.114)	0.065 (0.112)
이주민 영화	0.069 (0.120)	0.069 (0.118)
이주민 음식	-0.005 (0.082)	0.002 (0.081)
이주민 지역축제	0.154*** (0.078)	0.146*** (0.077)
이주민 종교행사	0.200*** (0.059)	0.181*** (0.059)
성별 (ref: 남자)		
여자		-0.062* (0.053)
연령 (ref: 18-29세)		
30대		-0.157*** (0.092)
40대		-0.036 (0.088)
50대		0.040 (0.087)
60대		0.030 (0.083)
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대졸		0.006 (0.071)
대학원졸		0.056 (0.099)
Cons	1.418	1.562
Adjusted R ²	0.1389	0.1714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1; * p<.05

Discussion

- **문화다양성** 담론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 인지도 높음 (90.3%)
- **문화적 거리감:**
 - 가치관, 음식에서 멀게 나타남
 - 난민에서 멀게 나타남
 -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라 거리감 다름
- **이주민 문화에 대한 수용도:**
 - 지역축제, 종교행사에서 낮게 나타남
- **이주민에 대한 태도:**
 - 이주민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이하로 매우 낮음

Discussion

- 이주민 **가치관**이 문화적 거리감-> 이주민의 기여가 적다고 인식
 - 한국의 폐쇄성을 보여줌; 다양한 가치관의 전파 필요
- **중국동포와 난민**과 문화적 거리감-> 이주민의 기여가 적다고 인식
 - 미디어에서 중국동포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stereotype을 줄이고 이들의 문화행사에 대해 지원 필요
- 이주민 **지역축제, 종교행사**를 수용-> 이주민이 기여한다고 인식
 - 지역사회 레벨에서 이주민 축제, 종교 행사 등 선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지원

감사합니다

souhyunjang@skku.edu

상호문화도시 안산, 역량과 과제

● ● ●

장 훈

안산시

Abstract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고 상호문화도시란 무엇인지,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과 안산의 역량 등을 설명하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이야기하고자 함

Key words: 다문화정책,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정책, 문화적 권리, 소수문화, 문화다양성정책협의체

상호문화도시 안산, 역량과 과제

(Intercultural City Ansan : "Strengths and Challenges")



목 차

- Ⅰ 안산시 및 외국인주민 현황
- Ⅱ 상호문화도시 안산
- Ⅲ 앞으로의 과제



I

안산시 및 외국인주민 현황



전국 최고의 글로벌도시 안산



2020.12.31. 기준



738,325명
(외국인인구 83,410명 포함)
→ 안산시 인구의
11.3% 차지



155.64㎢
(경기도의 1.5%)



2개구 25개동



1조 8,693억원



- ✓ 서울 1시간 이내
- ✓ 인천항, 평택항 30분
- ✓ 인천, 김포공항 1시간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



전국 최고의 글로벌도시 안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
총 33,935명

내국인 6,272명 / 외국인 27,663명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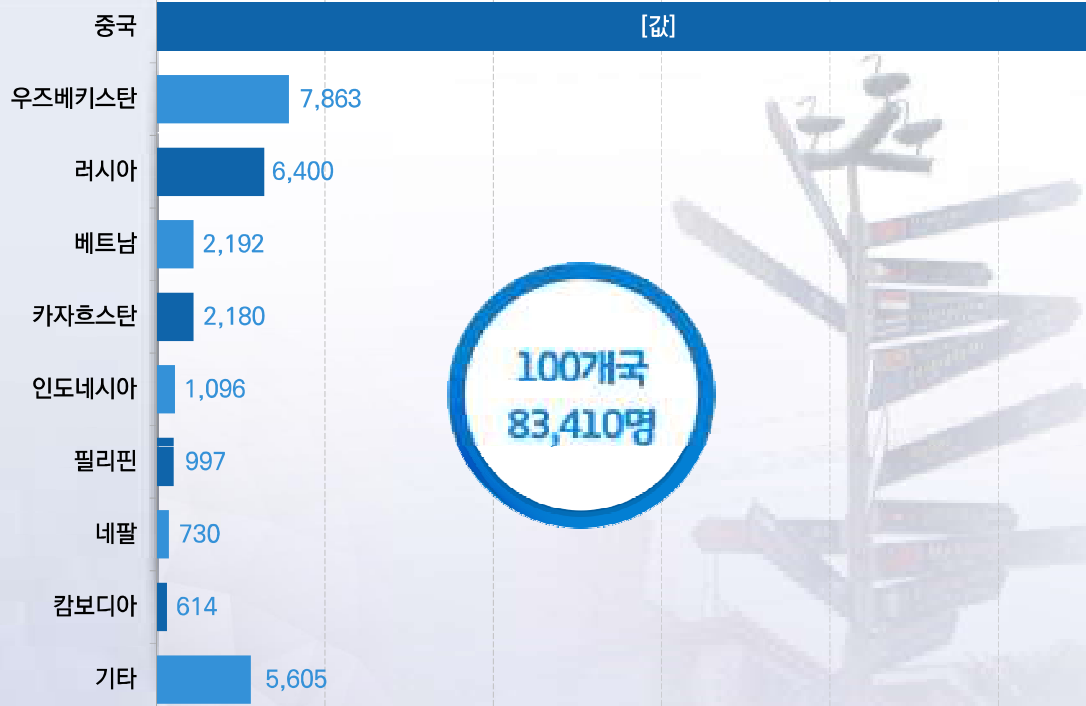


전국 최고의 글로벌도시 안산

국적별 현황



2020.12.31. 기준



전국 최고의 글로벌도시 안산 동포



2020.12.31. 기준

중국·고려인 동포 : 62,479명 (전체 외국인의 75%)

중국 동포
47,114명

고려인 동포
15,365명

한국계 중국인

- ✓ 일제강점기 때 탄압을 피해 이주하여 광복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에 남음
- ✓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경제적 번영이 알려지며 중국동포의 한국방문 급증

기타
외국계 동포
몽골리아
북마리아나
북마리아나

한국계
러시아

한국계
우크라이나

- ✓ 러시아를 비롯 독립국가연합(CIS)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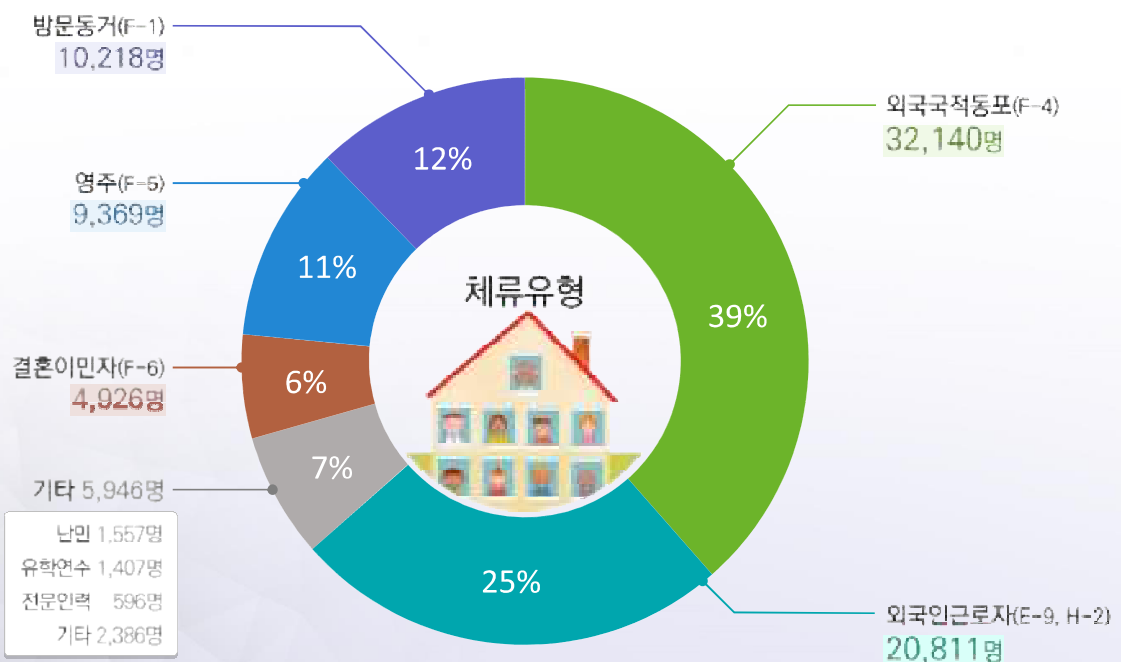
※ 독립국가연합(CIS):
1991년 소련(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의 국제기구

전국 최고의 글로벌도시 안산 체류자격별



2020.12.31. 기준

100개국 83,410명



전국 최고의 글로벌도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개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 지정** 2009. 5. 14. (前지식경제부, 現중소벤처기업부)
- 유형** 관광레포츠
- 위치**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 일원 (373,813㎡)
- 기간** 2009 ~ 2023

외국인 최대 밀집지역인 원곡동 일대
치안유지 및 특화거리 조성



외국계 상권 활성화를 통한 내·외국인 고용창출



도시브랜드 제고,
상호문화도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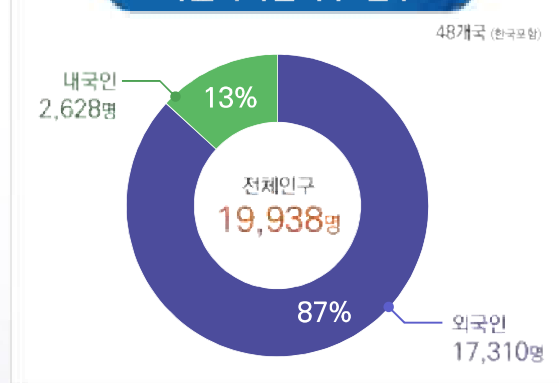
특구 규제 특례 적용사항

-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
: 특구내 외국인조리사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
: 축제 시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전국 최고의 글로벌도시 안산 특구현황



다문화마을특구 인구



다문화마을특구 외국계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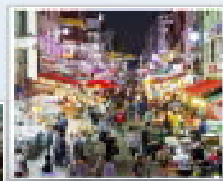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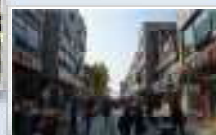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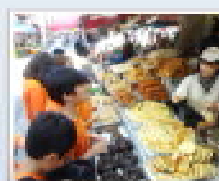
- ✓ 13개국 336업소 영업 중
(전체 업소의 23.4%)
- 음식점, 슈퍼마켓, 미용업, 핸드폰판매 등

다문화마을특구 방문인원

- ✓ 26만명 / 월



상권변화



II

상호문화도시 안산



상호문화도시 개요



2020. 2. 18.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ICC) 지정

상호문화도시 정의

- ☑ 다양한 문화, 국적, 민족, 종교 집단이 동일한 영토 내에 살면서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 방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개발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도시로, **적극적 관용과 공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도시** [유럽평의회,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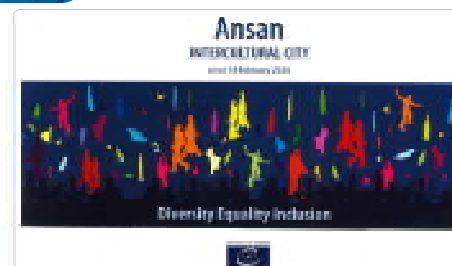
상호문화도시 현황

지정도시 세계 147개 도시 (아시아 3개)

주 관 유럽평의회 / 2008년부터 상호문화도시 사업 시작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 1949년 설립한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럽 국제기구
- 47개국이 가입한 유럽 내 최대 규모 국가 협력체 (성체비 : 미국, 일본 등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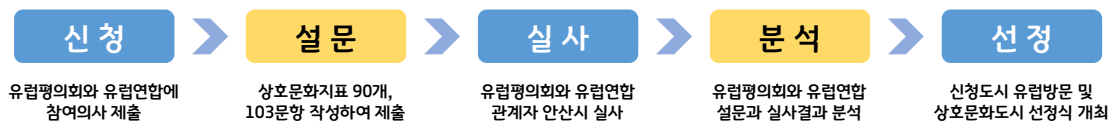




지정 혜택

- ☑ 회원도시 상호문화지수 분석 및 평가 (유럽평의회)
- ☑ 회원도시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협력 사업 추진
- ☑ 상호문화 우수정책 개발 지원, 전문가 자문 등 ※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 5,000유로 (한화 약 650만원) 납부

지정 절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 실사와 유럽 방문 미 실시. 서면 협약 체결 진행.



▶ 개 관 2008. 3. 23.

▶ 조직 및 인력 1본부장 2과 6팀 32명



▶ 연면적 1,976,21㎡ (지하 1층, 지상 3층)

▶ 이용인원 10,000여명/월

구 분	주 요 시 설
지하1층	다문화 작은도서관, 강의실, 야외정원
1층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원곡보건지소)
2층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소회의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사무실
3층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다목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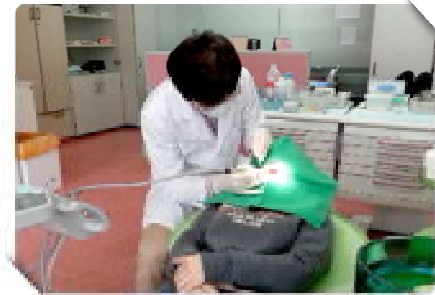
다문화 작은 도서관

- ☑ 평일 09:00~18:00
- ☑ 도서열람·대출, 인터넷검색
-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4개국 도서 12,500여권
- ☑ 이용인원 : 2,500여명/월



원곡보건지소 (외국인 무료진료)

- ☑ 평일 09:00~18:00 / 일요일 14:00~17:00
- ☑ 일반·치과·한방 진료 및 투약
- ☑ 특일 진료 : 서울대병원 등 의료봉사단체 참여
- ☑ 진료인원 : 600여명/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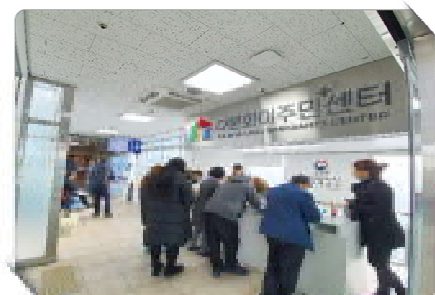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 ☑ 월 ~ 목 09:00~18:00 / 일요일 10:00~19:00
- ☑ 영어, 중국, 베트남 등 15개 국어 상담,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출입국, 산업재해, 가정생활 등 상담 및 통역지원
- ☑ 상담 : 3,000여건/월



다문화이주민+센터

- ☑ 월 ~ 금 09:00~18:00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각종 신고접수, 증명발급 등
-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고용관리 등
- ☑ 이용인원 : 5,000여명/월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외국인주민 지원
복합 인프라

- ☑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8 (초지동)
- ☑ 연면적 4,097.67㎡ (지하1층, 지상4층)
- ☑ 2013년 개관



입주기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사업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9 ~ 24세 청소년 대상 교육, 진로,
심리상담 지원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인권실태조사, 근로 사업장 모니터링,
인권교육



세계문화체험관

- ☑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5 (2층)
- ☑ 161㎡ (약 48.7평)
- ☑ 2012년 개관
- ☑ 세계문화 전시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고려인 문화센터

- ☑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6길 37
- ☑ 연면적 360.12㎡ (반지하 1층, 지상 2층)
- ☑ 2016년 개관
- ☑ 고려인 이주역사 전시관,
고려인 주민 상담, 교육, 문화-체육행사





거주외국인에 대한 제도 마련 및 소통기구 운영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 협의체

- 위원 : 16명
-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협의 조정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위원회

- 위원 : 15명
- 인권증진 기본계획, 시책추진 자문 및 심의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위원회

- 위원 : 15명
- 고려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

- 위원 : 13명
-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자문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사업

-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주민의 기본 인권보장
-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긴급의료비, 귀환여비, 장제비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보호 센터
- 상담, 치료·회복, 통역 지원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

- 영화상영, 포럼, 홍보부스 운영

기 타

- 외국인주민 인권·법률 교육 및 적응지원 사업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





역량강화

- 한국어교육
- 취업교육
- 다국어 신문 구독 지원



공동체 활성화

-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운영
- 동아리 활동 지원
- 자조모임 지원



자녀교육 및 보육

- 한국어교육 (가정, 학교, 기타시설)
- 부모나라 언어 교육
- 중도입국자녀 교육·진로 지원
- 언어발달 지원
- 이주배경 아동 심리정서 지원
- 근로자 자녀보육 어린이집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및 다문화축제 지원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 안산시 대표 다문화 축제 지원
- 안산 국제 태권도 경연대회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 태권도아카데미 및 시범단 운영
- 배구, 배드민턴, 방승댄스 교실



지구촌합창단 운영

- 내·외국인 청소년 35명 구성
- 연중 정기 및 수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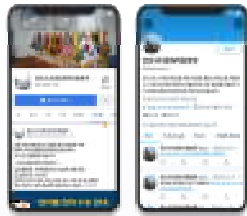


기 타

-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벌
- 거주 외국인 문화체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SNS 운영



facebook twitter



YouTube Haver 블로그

- ❖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 ❖ 연 평균 약 11만 건 조회

외국인 생활정보 소식지 '안산하모니' 발행

- ☑ 8개 언어, 연 4회 발행
- ☑ 내외국인 대상, 연 38,000부 배포



위원회 활동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회
- ✓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 ✓ 고려인주민 지원위원회

참여단체

- (사)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 문화제상고리
- 대한고려인협회
- 원곡법률사무소
- (사)아이돌세상행복웃음
- 고려인센터 미르 등

업무수탁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 ✓ 글로벌청소년센터
- ✓ 고려인문화센터
- ✓ 한국어교육 사업 등

참여단체

- (사)안산 YWCA
- 안산제일복지재단
- 한양대학교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 (사)너머
- 안산웅신학교
- 운누리M센터
- (사)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등

사업협력

- ✓ 외국인무료진료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 ✓ 다문화가족 동아리 지원 등

참여단체

- 서울대병원
-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 엘피스의원
- (사)한국아시아우호재단
- (사)국경없는마음
-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합동조합
- 한국다문화학교
- 안산이주민센터
- 경기다문화뉴스 등



III

앞으로의 과제



상호이해와 공론의 장 마련



전반적 안산시 인식

타 지방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 소득,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및 돌봄, 여가 및 문화생활, 의료 및 보건, 행정서비스, 도시환경, 생활전반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는 내국인, 이주민이 비슷하게 응답

상호문화 인식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및 공론의 장 운영 요구

- 이주민 보다는 내국인의 경우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이해 교육과 지속적인 시민참여 공론장을 통해 필요성과 공감대 조성 필요

행정적 변화

밀착행정, 현장행정으로의 혁신 및 상징적 공간 강화, 이주민·선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

-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찾아오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참여자 중심으로 변화
-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하는 어우러지는 공간 조성 및 학습공동체 모델 개발

※ 자료출처 : 안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 중 이주민 및 선주민 인식 현황 및 특성

상호문화 인지도 및 수용성 제고



이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집거주지역이 주 생활 무대로 선주민과 소통 및 교류 기회 부족 이주민 유입 증가로 인한 지역의 계토화 및 공동화 현상 우려
갈등 및 차별	생활 및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대문화, 피부색 차별, 국적과 출신에 대한 형식적 관심에 대한 피로감 누적 선주민 대상 다문화교육 절대적 부족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미지급 및 고의 지연 사례 빈번 발생 이주노동자의 인권 무시 사례가 발생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

	긍정 및 증진	부정 및 개선
선주민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의 형식적 참여에서 적극적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진행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지역사회 리더를 시작으로 교육 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남과 교류를 위한 통역의 필요성 실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과 선입견 등 부정적 이미지
이주민 적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상견례 활동 추진 이주민 전통 축제 등 행사에 선주민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곡동 제외 타 지역 이주민 마을 활동 미약 다문화로 구분 짓는 행위 자체를 거부 이주민 리더십 발굴 및 강화를 위한 행정력 결실

※ 자료출처 : 안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 중 이주민 및 선주민 인식 현황 및 특성

안산形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비전	서로 존중하며 포용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				
목표	이민사회권한이보장되는 체계 구축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을 주도하는 사회 환경으로의 전환		체계적인 제도 정립	만남과교류로서로를이해하는공간 마련
추진전략	경제 및 삶의 질	교육 및 연구	공동체	법·제도	시설 및 공간
중점과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이주 관련 연구 · 지원	이주민들의 사회참여 지원	상호문화도시 조례 마련	상호문화공간 구성 체계 마련
	공공일자리 개방성 확대	상호문화 수용성 교육	도시의 다언어 소통 역량 강화	상호문화거버넌스 체계 마련	상호문화공간 조성
	창업 지원 및 민간 연계 강화	문화예술활동 수용성 확대	다양성 갈등조정 전략 마련		
	이주 배경 노인 복지 대안	상호문화도시 기능 강화	소수 문화 정체성 지원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강화			

※ 자료출처 : 안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 중 안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안)

상호문화도시 안산을 위한 우리의 선택



상호문화도시.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합니다



구로구의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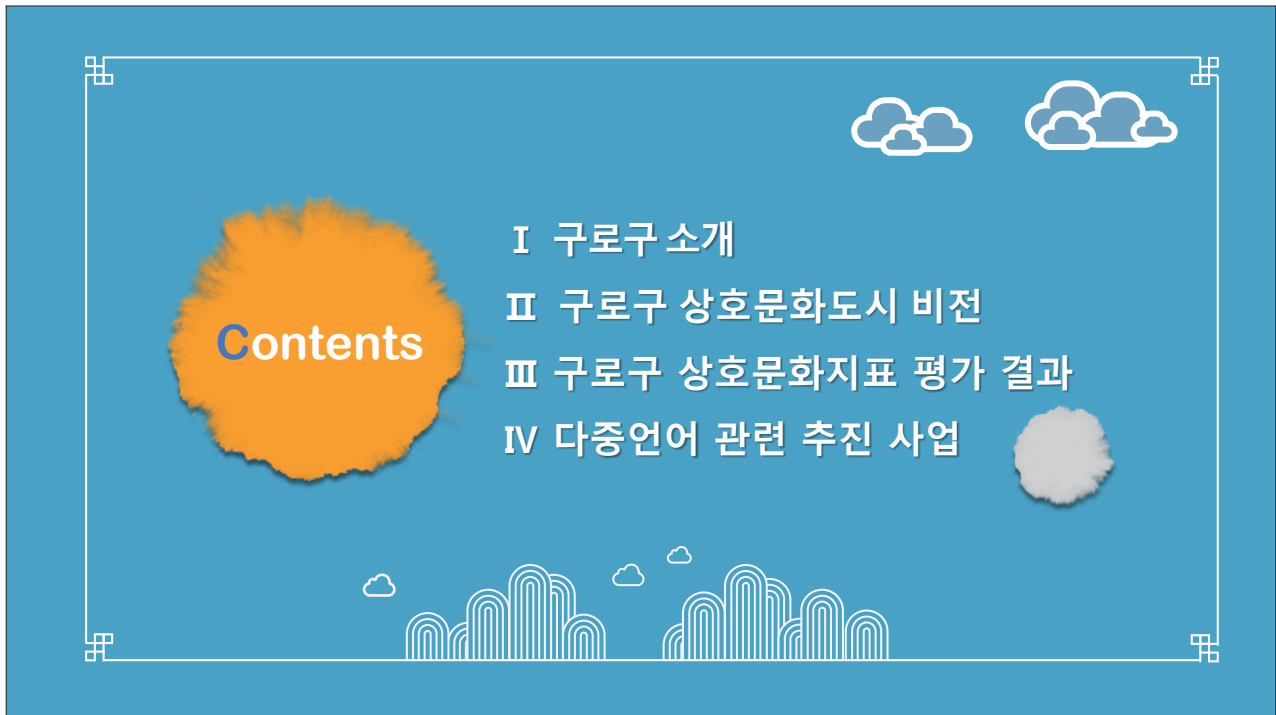
● ● ●

조승현

서울시 구로구

Abstract

Key words:





구로구

상호문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스마트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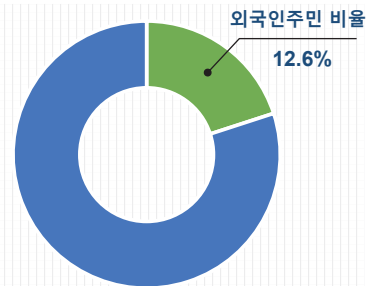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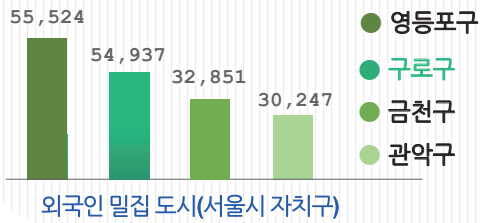


구로구 소개



- 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남서쪽에 위치
- ② 총인구 435,560명
- ③ 141번째 상호문화도시 가입 (2020)
 ✓ 서울시 최초 상호문화도시
- ④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019)
 ✓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 나라 프로그램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GUKIFF)
- 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도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2020)
 ✓ 무료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선도

구로구 소개



- ① 외국인주민 수 54,937명(12.6%)
- ②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 거주
- ③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 거주
- ④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



구로구 비전

비전 내 외국인주민이 함께 행복한 상호문화도시

목 표	공 평	번 영	삶의 질	세계시민성
가 치	✓ 문화다양성 ✓ 개방성	✓ 경제적 효율 ✓ 창의성	✓ 쾌적성 ✓ 안전과 보안	✓ 참여 ✓ 협력
정 책 과 제	• 상호문화 소통망 구축 • 지역사회 상호문화성 강화 • 공감·협력의 상호문화 창출 • 상호문화 공동체 지원			

52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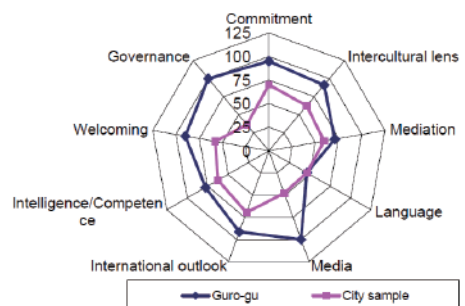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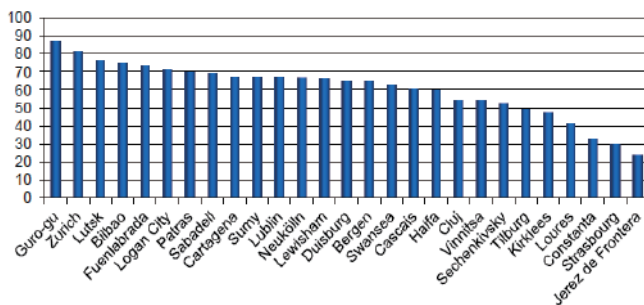
상호문화도시 구로

구로구 상호문화지표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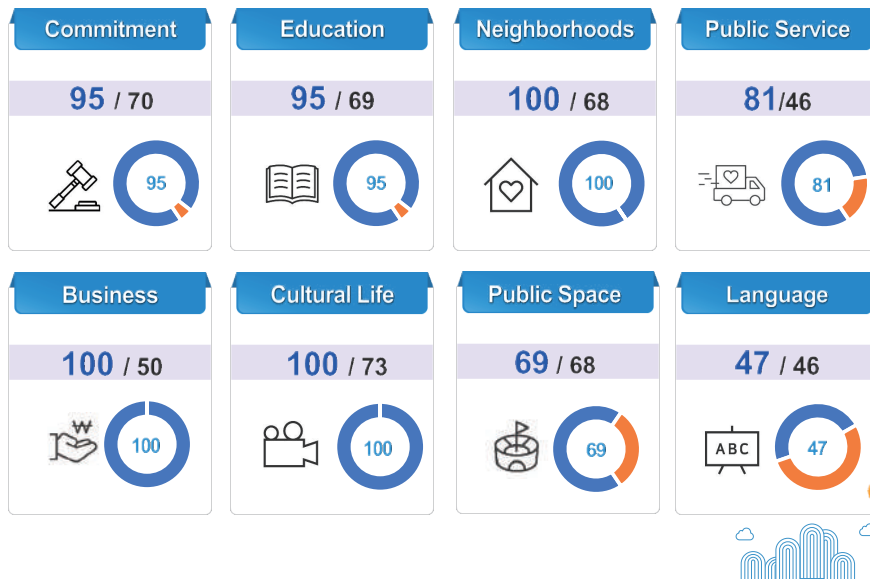
✓ 2020 상호문화도시 지표분석 결과보고서
(Inhabitants 200,000~500,000 / no-nationals 10%~15%)

✓ 평균 8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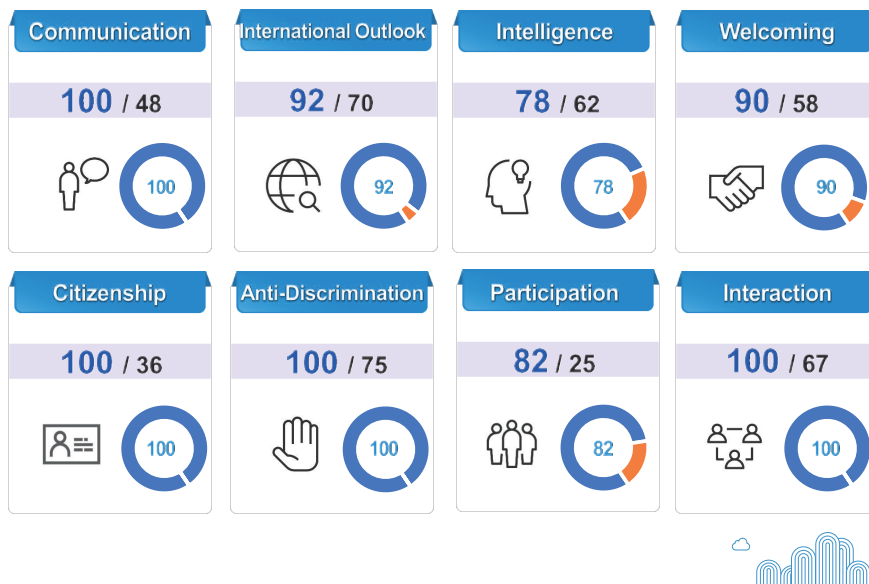
Intercultural City Index (ICC)
City sample (inhabitants 200'000 - 500'000)



구로구 상호문화지표 평가 결과



구로구 상호문화지표 평가 결과



다중언어 관련 추진 사업

다중언어 관련 추진 사업

1. 이중언어 동화책 보급 사업

✓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2021년 신규 사업



동화책(오디오북 포함)

거버넌스 구축

번역/감수

발간/배포

2.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Fostering multilingualism for inclusion in education & society

1 11월, 2021

2 주제(상호문화)

3 다양한 언어

4 8세 ~ 19세 참여

- 다중언어 사회
- 상호문화도시 조성
- 이민자 환영
- 차별방지
- 포용 및 다양성 등



3.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Interpretation, translation & education services in various languages



4. 구로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 지원

	대 상	기 간	주 요 내 용
원어민 외국어 교실	초등학생 ~ 중학생	3월 ~ 12월	실용회화 위주의 영어학습
학교로 찾아가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	고등학생	3월 ~ 12월	원어민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청 및 수업

5. 구로구 월드카페 특특

Multilingual Program with immigrants

- ① 분기별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
- ② 매년 약 1,000명의 수강생
- ③ 5명 외국어 강사 / 그룹리더 : 8명 결혼이주여성

	월요일/수요일	화요일/목요일
10:00	English 日本語	English 中國語
13:00	English 日本語	English 中國語
15:00	English	English





한국인의 문화다양성 인식에 따른문화자본과 사회통합 수준 비교

● ● ●

송영호

이민정책연구원

Abstract

Key words:

한국인의 문화다양성 인식유형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 비교

2021 · 10

1. 연구의 배경

2000대 중반 이후 ‘다문화’ 이슈의 부각으로 문화다양성 새롭게 부각

한미FTA(1988년)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협상 이후 논의 시작
다양한 인종민족집단 유입, 우리 사이의 ‘타자성’에 대한 논의로 문화다양성 이슈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2010년)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선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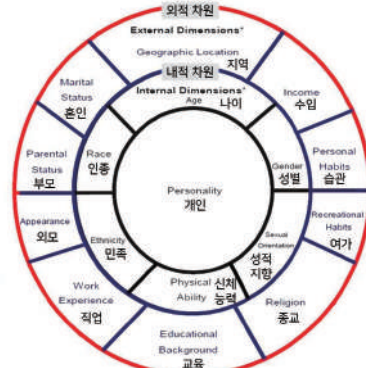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문화다양성 정의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문화다양성법 제2조)



자료 : 문화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Sources: Diverse Teams at Work, Gardenswartz & Rowe
* Internal Dimensions and External Dimensions are adapted

1. 연구의 배경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상 대한 범주는 다양 과연 '무엇이' 문화 다양성이고, '누가' 그 범주에 포함되는가?

한국과 독일의 경우 정책 대상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에 따라 구분

기본 범주 : 귀속지위

- 민족, 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 등

환경 영역 : 획득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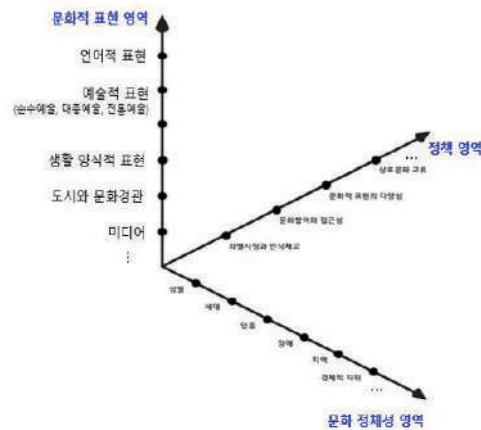
-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자료 : 문화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라도삼 외(2017)

1. 연구의 배경

문화다양성은 취미와 취향, 혐오와 차별의 문제까지 매우 포괄적인 개념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정체성에 기인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예외 측면의 창조성에 기인한 문화적 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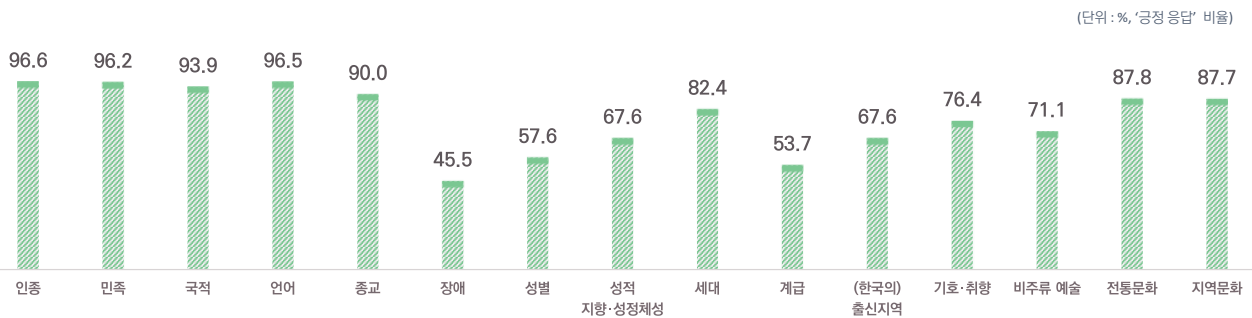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잠재집단 분석**
잠재집단별로 **문화자본, 사회통합** 수준 비교 분석

조사 대상	●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수	● 1,000명(지역, 성별, 연령별 할당 표집)
표본추출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조사 진행
분석 방법	● 잠재집단분석(LCA), 다항 로짓 분석
주요 변수	● 문화다양성 인식, 문화자본, 사회통합

3. 분석 결과(1)

문화다양성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인종(96.6%), 민족(96.2%), 국적(93.9%), 언어(96.5%) 높음

정체성(획득지위) 관련 요인(인종, 국적, 민족) 높고,
문화적 표현(귀속 지위)에 해당 요인(기호, 비주류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중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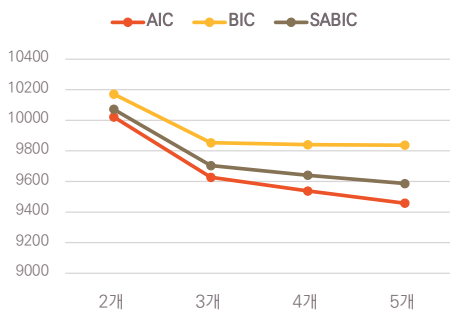


6

3. 분석 결과(2)

문화다양성 인식 15개 문항 사용
여러 가지 통계적 지수를 활용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구분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도, 해석 가능성 고려해 총 3개의 집단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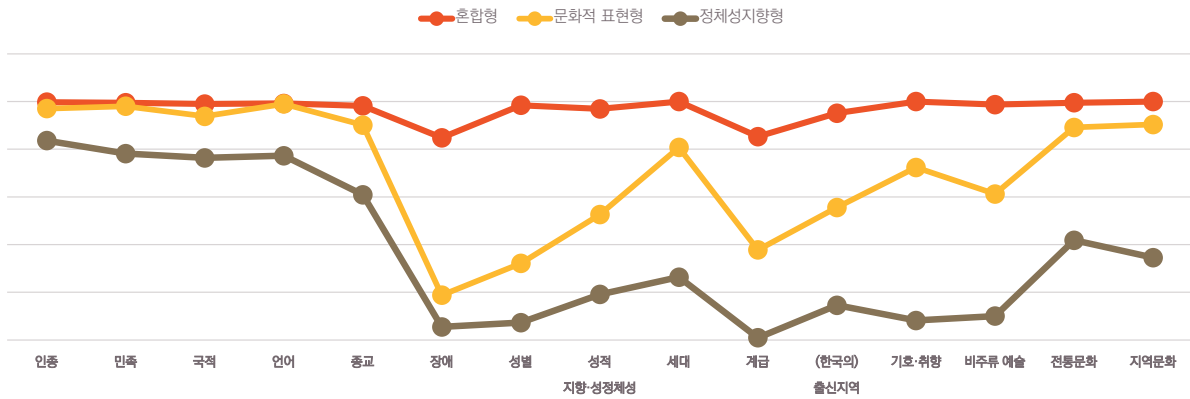
유형	N	%
A	388	43.0
B	405	44.9
C	110	12.2
계	903	100.0

7

3. 분석 결과(3)

3개의 잠재집단을
혼합형(43.0%), 문화적 표현형(44.9%), 정체성지향형(12.0%)

응답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정체성 인식'을 포괄하고,
'문화적 표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집단 식별되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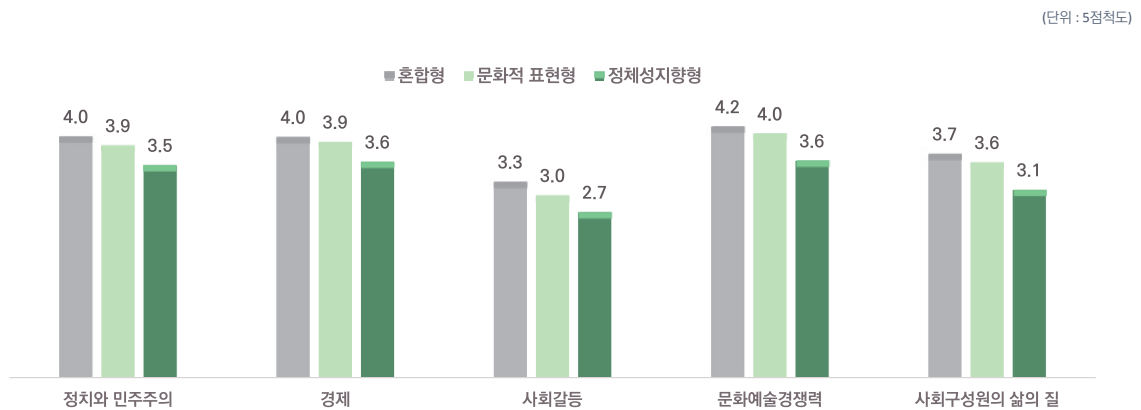


8

3. 분석 결과(4)

'혼합형'이 다른 유형보다 문화다양성의 기대효과를 긍정적 평가

'사회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 혼합형(3.3점)과 '정체성지향형(2.7점) 간의 차이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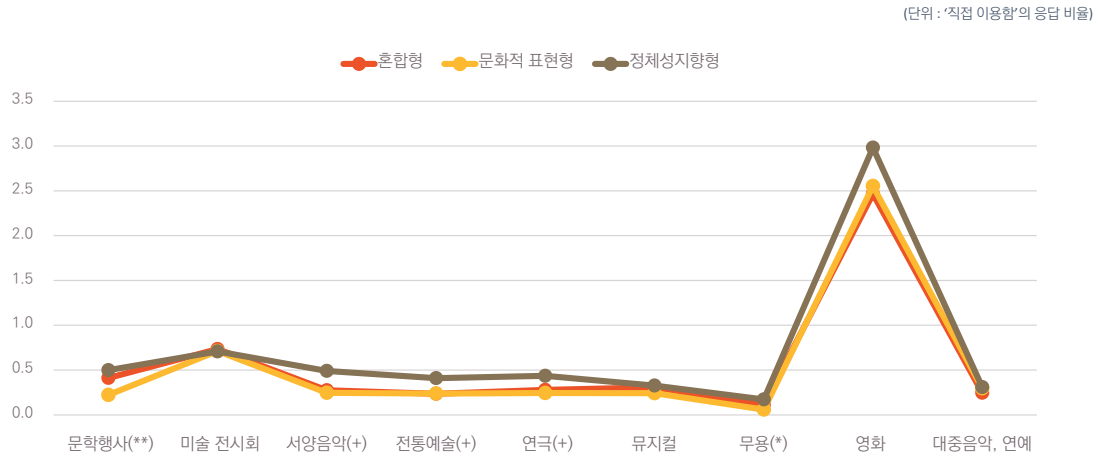
(단위 : 5점척도)

9

3. 분석 결과(5)

‘정체성지향형’이 다른 유형보다 문화적 활동(직접 경험) 빈도 높음

특히 ‘문학행사’(혼합형 0.4회%, 문화적 표현형 0.2회, 정체성지향형 0.5회),
‘무용’(혼합형 0.1회, 문화적 표현형 0.1회, 정체성지향형 0.2회)에서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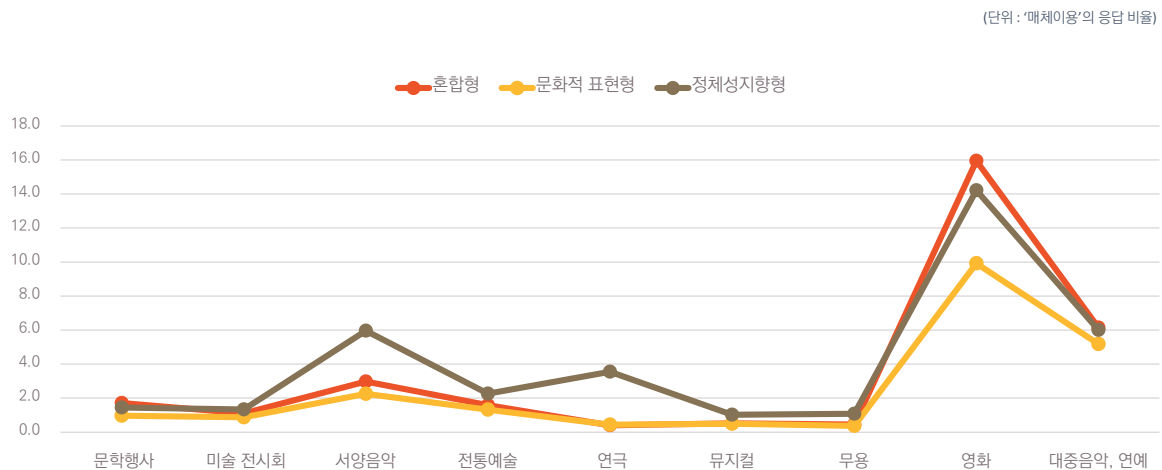


10

3. 분석 결과(6)

‘정체성지향형’이 서양음악, 연극에서 이용 빈도(매체) 높음

‘서양음악’(혼합형 3.0회, 문화적 표현형 2.3회%, 정체성지향형 6.0회),
‘연극’(혼합형 0.4회, 문화적 표현형 0.4회, 정체성지향형 3.6회)에서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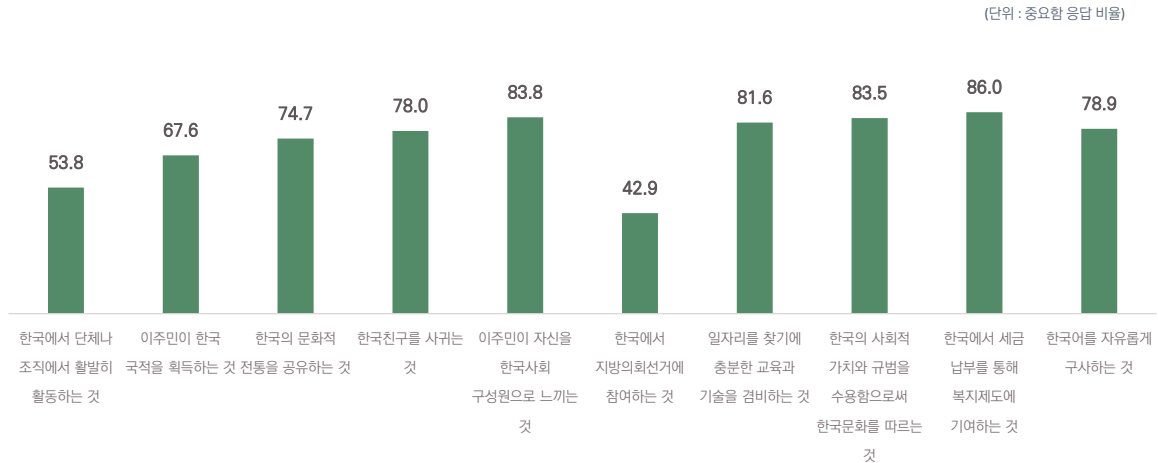


11

3. 분석 결과(7)

사회통합 중 ‘복지제도 기여’(86.0%)가 가장 높고, ‘지방의회 참석’(42.9%) 가장 낮음

복지제도 기여, 소속감, 실용적 기술, 한국문화 따르는 것 더욱 중요하게 인식
반면, 사회적 활동/정치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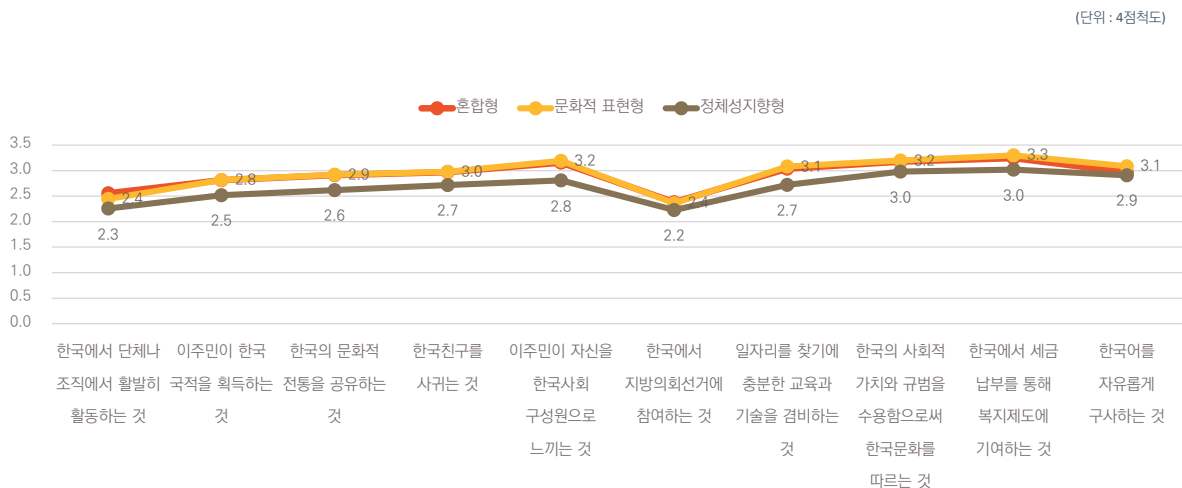


12

3. 분석 결과(8)

‘정체성지향형’이 사회통합에 대한 항목 ‘긍정 응답’ 비율 낮음

문화다양성 = 다문화적 정체성/가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사회통합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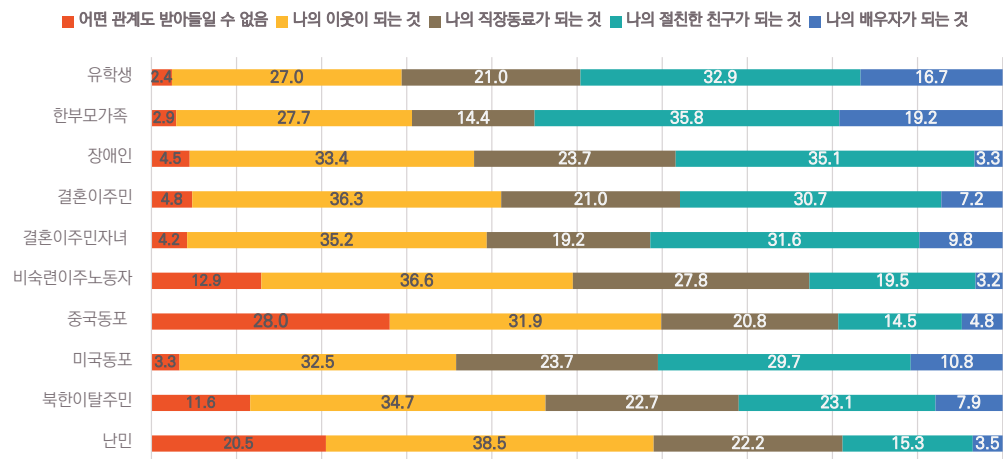


13

3. 분석 결과(9)

가족 관계는 '결혼이주민자녀', '미국동포'가 높음,
반면,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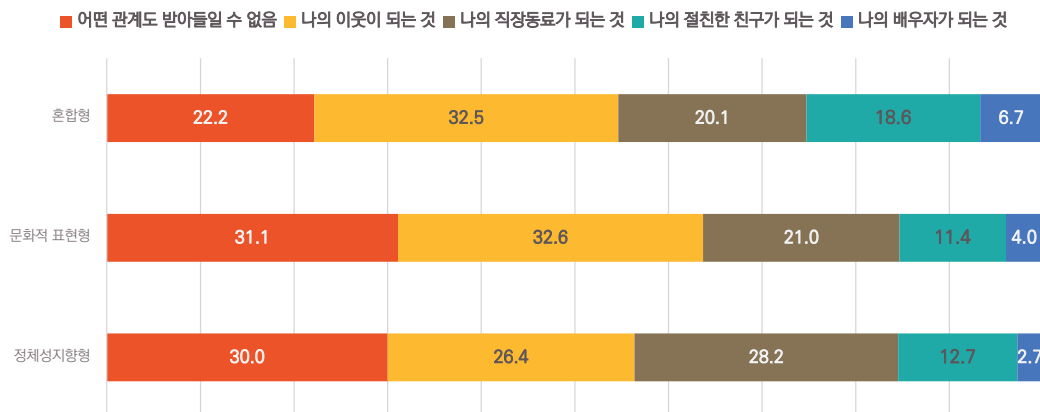
14

3. 분석 결과(10)

중국동포

'혼합형' 가족 관계 형성에 가장 거리감 낮음, '정체성지향형'은 가족 관계형성에 가장 소극적

(단위 : %)



15

문화다양성 인식이 문화자본, 사회통합 인식 수준간 차이 명확

문화다양성을 ‘문화적 표현’과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유형이 다수 차지
정체성 인식으로 문화다양성을 인지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 꼴

문화다양성 증대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긍정적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
정체성 지향형이 가장 부정적,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인식 소극적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사회에 실질적 기여와 실용적 기술 겸비하는 것 중요하다고 인식
특히 정체성지향형이 모든 항목을 중요하게 인식

문화다양성이 함의하는 포괄성을 고려할 때 ‘문화다양성=다문화’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책

광의의 개념인 문화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과 교육 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문화 다양성이 아니라 ‘일상으로서 문화’를 포괄

시혜적 대상, 적응을 돕는 단계에서 사회통합, 협력적 관계를 위한 터전 마련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적 생활뿐만 아니라 기여와 공존을 위한 터전 마련

감사합니다

이주 및 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

이내연
서울대학교

Abstract

본 발표에서는 태생적 한국 시민의 이주민 및 이주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의 자격 조건(국가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응답자가 본 현재 한국으로의 이주 규모와 응답자가 느끼는 거주지역(시군구) 및 직장 내 이주민 비율을 살펴보고, 이를 거주지역의 실제 이주민 비율과 비교한다. 두 번째로,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서 이주민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세 번째로, 현재 거주지역(시군구)의 실제 이주민 비율과 한국인의 자격조건(국가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Key words: 국제이주, 국가정체성,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에 대한 태도

이주 및 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인식 -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내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1. 10. 22.

2021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MAMF) 국제학술회의 발표

연구요약

- ▶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 ▶ 요약문: 본 발표에서는 태생적 한국 시민의 이주민 및 이주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의 자격 조건(국가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응답자가 본 현재 한국으로의 이주 규모와 응답자가 느끼는 거주지역(시군구) 및 직장 내 이주민 비율을 살펴보고, 이를 거주지역의 실제 이주민 비율과 비교한다. 두 번째로,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서 이주민과의 접촉 정도와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세 번째로, 거주지역 및 교육수준에 따라 한국인의 자격조건(국가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연구주제

- ▶ 2021년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조사
: 할당표집, 온라인 설문조사 (사례수 = 1000명)
- ▶ 태생적 한국 시민 :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이 없는 한국계 시민
- ▶ 1. 실제 이주민 규모와 인식된 이주민 규모의 차이
- ▶ 2. 이주에 대한 태도 (현재 한국에 거주하려 오는 이주민의 수에 대한 생각 –
늘어야 한다 vs. 줄어야 한다)
-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민과 범죄, 경제, 일자리, 새로운 문화, 한국 문화 훼손)
- ▶ 4. 한국인의 자격조건 – 국제사회조사(ISSP 2013) 및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와 비교 가능

연구배경

- ▶ 집단 위협 이론(group threat theory)
- ▶ 1. 실제 규모(actual size):
실제 이주민의 수,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
- ▶ 2. 인식된 규모(perceived size):
응답자가 느끼는 이주민 집단의 크기 및 이주민의 비율
- ▶ 많은 연구에서 실제 이주민의 규모와 인식된 규모가 매우 다르게 나타남.
- ➔ 태생적 시민이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실제 규모와 인식된 규모의
영향을 모두 받음

연구문제

- ▶ 1. 실제 이주민의 규모와 인식된 이주민의 규모는 어떻게 다른가?

- ▶ 1) 실제 규모: 거주지역의 실제 이주민 비율(시·도, 시·군·구)

통계청 자료: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 (2015-2019)

- ▶ 2) 인식된 규모: 응답자(태생적 한국시민)가 느끼는 이주민의 비율

Data: 응답자가 느끼는 거주지역(시·도, 시·군·구)의 이주민 비율

응답자가 느끼는 직장 내 이주민 비율

연구문제

- ▶ 2. 이주민과의 접촉 정도와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 1) 이주민과의 접촉 정도:

Q. 현재 국내에 알고 지내는 이주민, 외국출신 친구나 동료, 친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 알고 지내는 이주민 중 가장 친밀한 1인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 ① 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회 정도 ③ 1개월에 2~3회 정도
④ 1~3개월에 1회 정도 ⑤ 4개월~1년에 1회 정도 ⑥ 1년에 1회 미만

연구문제

▶ 2)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

▶ 가. 이주에 대한 태도:

Q. 오늘날 한국에 살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많이 줄어야 한다
2. 약간 줄어야 한다
3.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4. 약간 늘어야 한다
5. 많이 늘어야 한다

연구문제

▶ 나. 이주민에 대한 태도(1)

Q.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려고 온 이주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민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이주민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사회를 좋게 만든다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문화를 훼손시킨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연구문제

▶ 나. 이주민에 대한 태도(2)

Q.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려고 온 이주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국적이 없는 합법적 이주민들도 한국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불법 이주민을 배제시키기 위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연구문제

▶ 3.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한국인의 자격조건 (KGSS/ISSP 2013 국가정체성 모듈)

Q.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1. 매우 중요하다, 2. 다소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과 I: 실제 이주민 비율과 인식된 이주민 비율

- ▶ 1. 실제 이주민 비율과 태생적 한국시민이 느끼는 이주민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

- ▶ 1) 거주지역의 실제 이주민 비율

통계청 자료: 시·도별 &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 (2015-2019)

- ▶ 2) 응답자가 느끼는 이주민의 비율

Data: 응답자가 느끼는 거주지역(시·도, 시·군·구)의 이주민 비율

응답자가 느끼는 직장 내 이주민 비율

실제 이주민 비율과 응답자가 인식한 거주지역 이주민 비율

	실제 외국인 주민 비율 (2015-2019)	응답자가 인식한 이주민 비율(평균)	N	(응답자-실제비율)
서울	4.0	9.1	188	5.1
부산	1.8	9.2	67	7.4
대구	1.6	7.5	46	5.9
인천	3.4	10.0	57	6.6
광주	2.2	9.3	29	7.1
대전	1.7	7.6	29	5.9
울산	2.5	5.6	22	3.1
경기	4.5	9.1	257	4.6
강원	1.8	6.7	31	5.0
충북	3.7	6.1	31	2.5
충남	4.8	9.8	40	5.0
전북	2.4	7.4	35	5.0
전남	2.7	6.4	36	3.7
경북	3.1	8.4	49	5.4
경남	3.2	7.8	63	4.7
제주	2.3	6.8	12	4.4
세종	4.2	6.5	8	2.3
전체 평균	3.4	8.5	1,000	5.1

출처:
1) 통계청
2015-2019,
2) 2021년
문화다양성
존중도시
국민인식
조사

결과 I(1): 실제 이주민 비율과 인식된 이주민 비율(시·도)

- ▶ 1. 실제 이주민 비율과 응답자가 느끼는 이주민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
- ▶ 1) 실제 외국인 주민 비율(시·도)
 - 최저: 대구 (1.6), 대전 (1.7) 최고: 충남(4.8), 경기(4.5)
- ▶ 2) 응답자가 느끼는 거주지역(시·도) 이주민 비율(평균값)
 - 최저: 울산(5.6), 충북(6.1) 최고: 인천(10.0), 충남(9.8)
- ▶ 3) 응답자가 생각한 비율-실제 비율 차이
 - 최저: 세종 (2.3), 충북 (2.5) 최고: 부산 (7.4), 광주 (7.1)

결과 I(2): 실제 이주민 비율과 인식된 이주민 비율(시·군·구)

- ▶ 1) 실제 외국인 주민 비율(시·군·구)
 - 최저: 부산시 동래구(0.5), 부산시 연제구(0.5) 최고: 서울시 영등포구 (12.2), 경기도 안산시(11.1)
 - 4명 4명 12명 6명
- ▶ 2) 응답자가 느끼는 거주지역(시·군·구) 이주민 비율(평균값)
 - 최저: 경남 산청군(0.0), 충남 당진시(1.0) 최고: 전북 남원시(30.0), 경북 성주군(25.0)
 - 1명 1명 1명 2명
- ▶ 3) 응답자 생각한 비율-실제 비율 차이
 - 최저: 전남 영암군(-7.7), 서울시 구로구(-5.7) 최고: 전북 남원시(28.1), 부산 북구(19.9)
 - 2명 5명 1명 3명

결과 I(3): 응답자가 인식한 거주지역 이주민 비율(시·군·구) – 성별 비교

▶ 1-2) 응답자가 인식한 이주민의 비율 (시·군·구) – 성별 비교

	N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계	[평균 : %]
전체 응답자	(1000)	34.3	26.2	22.8	9.7	7.0	100.0	8.51
성별								
남자	(497)	36.6	30.0	20.1	8.2	5.0	100.0	7.51
여자	(503)	32.0	22.5	25.4	11.1	8.9	100.0	9.48

- ▶ 응답자가 인식한 거주지역 이주민 비율의 평균값: 여성(9.48%) > 남성 (7.51%)
전체 응답자 평균 8.51 (표준편차 8.2) 최저 0, 최대 30
- ▶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 = -3.8178$, $df = 998$, $Pr=0.0000$)
-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거주지역의 이주민 비율을 더 높게 생각함.

결과 I(4): 응답자가 인식한 직장 내 이주민 비율

▶ 2) 응답자가 느끼는 이주민의 비율

Data: 응답자가 느끼는 직장 내 이주민 비율 (실제 직장 내 이주민 비율은 자료 없음)

	0%	10% 이하	11~30%	31~50%	51% 이상	응답 없음	합계
(%)	33.2	19.3	3.4	1.1	0.4	42.6	
사례수	332	193	34	11	4	426	1000

평균 3.8 (표준편차 9.8) 최저 0, 최대 80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결과 II(1): 이주민과의 접촉 정도

- ▶ 2. 이주민과의 접촉 정도와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Q. 현재 국내에 알고 지내는 이주민, 외국출신 친구나 동료, 친척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사례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없다】	【있다】
전체	응답자	(1000)	72.2	9.5	7.8	10.5	100.0	72.2	27.8
성별	남자	(497)	73.0	7.0	8.7	11.3	100.0	73.0	27.0
	여자	(503)	71.4	11.9	7.0	9.7	100.0	71.4	28.6

결과 II(2):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 – 성별 비교

- ▶ Q. 알고 지내는 이주민 중 가장 친밀한 1인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남성	여성	Total
일주일에 3~4회 이상	12	18	30
일주일에 1회 정도	21	8	29
1개월에 2~3회 정도	21	23	44
1~3개월에 1회 정도	29	23	52
4개월~1년에 1회 정도	28	32	60
1년에 1회 미만	23	40	63
사례수(N)	134	144	278

- ▶ 성별에 따라 친밀한 이주민과 만나는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Pearson $\chi^2(5) = 12.3210$ Pr = 0.031)

결과 II(2):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 – 성별 비교

▶ Q. 알고 지내는 이주민 중 가장 친밀한 1인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사례 수	일주일 에 3~4 회 이상	일주일 에 1회 정도	1개월 에 2~3 회 정도	1~3개월 에 1회 정 도	4개월~1 년에 1회 정도	1년에 1 회 미만	계
전체 응답자	(278)	10.8	10.4	15.8	18.7	21.6	22.7	100.0
성별 남자	(134)	9.0	15.7	15.7	21.6	20.9	17.2	100.0
여자	(144)	12.5	5.6	16.0	16.0	22.2	27.8	100.0

▶ 성별에 따라 친밀한 이주민과 만나는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Pearson chi2(5) = 12.3210 Pr = 0.031)

결과 II(3): 이주에 대한 태도 – 성별 비교

▶ 2) 이주에 대한 태도:

Q. 오늘날 한국에 살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많이 줄어야 한다	약간 줄어야 한다	지금 수 준이어 야 한다	약간 늘어야 한다	많이 늘어야 한다	계	【줄어야 한다】	【지금 수준이어 야 한다】	【늘어야 한다】
전체 응답자	(1000)	15.6	24.6	40.2	14.3	5.3	100	40.2	40.2	19.6
성별 남자	(497)	15.9	18.9	39.2	18.3	7.6	100	34.8	39.2	26.0
여자	(503)	15.3	30.2	41.2	10.3	3.0	100	45.5	41.2	13.3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 = -3.8, df = 998, Pr = 0.0001)

→ 남성보다 여성이 외국인의 수가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이주에 대해 더 부정적)

전체 응답자 평균 2.7 (표준편차 1.1) 최저 1- 최고 5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Q.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려고 온 이주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민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이주민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사회를 좋게 만든다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문화를 훼손시킨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사례수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이주민 범죄율 높인다	(1000)	8.2	35.4	40.5	13.3	2.6	100.0
이주민 경제에 도움	(1000)	5.1	41.5	36.8	14.2	2.4	100.0
이주민 한국인 일자리 뺏는다	(1000)	4.2	22.4	38.6	29.5	5.3	100.0
이주민 새로운 문화로 사회 기여	(1000)	2.8	20.6	49.9	20.5	6.2	100.0
이주민 한국문화 훼손	(1000)	3.7	13.8	41.4	35.0	6.1	100.0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사례수	【동의한다】	【어느 쪽도 아님】	【반대한다】
이주민 범죄율 높인다	(1000)	43.6	40.5	15.9
이주민 경제에 도움	(1000)	46.6	36.8	16.6
이주민 한국인 일자리 뺏는다	(1000)	26.6	38.6	34.8
이주민 새로운 문화로 사회 기여	(1000)	23.4	49.9	26.7
이주민 한국문화 훼손	(1000)	17.5	41.4	41.1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1. 이주민은 경제에 도움을 준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t=3.6337$, $df=998$, $Pr=0.0003$)
2. 이주민은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 –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t=1.9980$, $df=998$, $Pr=0.0460$)
3. 이주민은 한국문화 훼손하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t=2.3040$, $df=998$, $Pr=0.0214$)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성별 비교

-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이주민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5= 매우 반대한다)
- ▶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3.6337$, $df=998$, $Pr=0.0003$)
-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 태도

이주민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사례수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동의 한다】	【어느 쪽도 아님】	【반대 한다】	[5점 평균]
전체 응답자		(1000)	5.1	41.5	36.8	14.2	2.4	100.0	46.6	36.8	16.6	2.67
성별	남자	(497)	6.0	48.5	30.0	13.1	2.4	100.0	54.5	30.0	15.5	2.57
	여자	(503)	4.2	34.6	43.5	15.3	2.4	100.0	38.8	43.5	17.7	2.77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성별 비교

-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이주민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5= 매우 반대한다)
- ▶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1.9980$, $df=998$, $Pr=0.0460$)
-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 태도

이주민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사례수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동의 한다】	【어느 쪽도 아님】	【반대 한다】	[5점 평균]
전체 응답자		(1000)	4.2	22.4	38.6	29.5	5.3	100.0	26.6	38.6	34.8	3.09
성별	남자	(497)	4.4	20.1	37.0	32.6	5.8	100.0	24.5	37.0	38.4	3.15
	여자	(503)	4.0	24.7	40.2	26.4	4.8	100.0	28.6	40.2	31.2	3.03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성별 비교

-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이주민은 한국문화를 훼손한다 (5= 매우 반대한다)
- ▶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1.9980$, $df=998$, $Pr=0.0460$)
→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 태도

이주민은 한국문화를 훼손한다

		사례수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동의 한다】	【어느 쪽도 아님】	【반대 한다】	[5점 평균]
전체 응답자		(1000)	3.7	13.8	41.4	35.0	6.1	100.0	17.5	41.4	41.1	3.26
성별	남자	(497)	3.0	12.7	39.8	37.6	6.8	100.0	15.7	39.8	44.5	3.33
	여자	(503)	4.4	14.9	42.9	32.4	5.4	100.0	19.3	42.9	37.8	3.19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 ▶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1. 이주민은 경제에 도움을 준다
 2. 이주민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3. 이주민은 한국문화를 훼손한다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변수 수정 → 높을수록 우호적인 태도, 5=매우 동의한다)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이주민 범죄율 높이지 않는다	1000	2.7	0.9	1	5
이주민 경제에 도움	1000	3.3	0.9	1	5
이주민 한국인 일자리 뺏지 않는다	1000	3.1	0.9	1	5
이주민 새로운 문화로 사회 기여	1000	2.9	0.9	1	5
이주민 한국문화 훼손하지 않는다	1000	3.3	0.9	1	5
국적없는 합법이주민 동등권리	1000	2.8	1.1	1	5
불법이주민 배제 강력조치	1000	2.3	1.0	1	5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I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Q.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려고 온 이주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국적이 없는 합법적 이주민들도 한국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불법 이주민을 배제시키기 위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결과 II(4): 이주민에 대한 태도 II

▶ 3)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사례수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국적없는 합법이주민 동등권리	(1000)	4.9	20.7	34.5	24.7	15.2	100.0
불법이주민 배제 강력조치	(1000)	26.9	33.4	28.1	8.9	2.7	100.0

	사례수	【동의한다】	【어느 쪽도 아님】	【반대한다】
국적없는 합법이주민 동등 권리	(1000)	25.6	34.5	39.9
불법이주민 배제 강력조치	(1000)	60.3	28.1	11.6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 ▶ 3. 거주지역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 한국인의 자격조건 (KGSS/ISSP 2013 국가정체성 모듈)

Q.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1. 매우 중요하다, 2. 다소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1= 매우 중요, 4=전혀 중요치 않음)

한국인 자격조건	사례수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별로 중 요하지 않음	전혀 중 요하지 않음	선택할 수 없음	계
한국 출생	(1000)	18.9	32.7	38.0	9.3	1.1	100.0
국적	(1000)	35.9	45.5	14.7	3.5	0.4	100.0
거주(생애 대부분)	(1000)	20.4	38.5	34.4	6.1	0.6	100.0
한국어	(1000)	38.0	46.4	12.5	2.6	0.5	100.0
유교의 가르침	(1000)	4.0	12.8	40.4	39.7	3.1	100.0
정치, 법 존중	(1000)	36.6	46.0	13.2	3.6	0.6	100.0
한국인으로 느낌	(1000)	39.0	43.7	14.5	1.8	1.0	100.0
한국인 조상	(1000)	11.4	21.7	39.6	25.6	1.7	100.0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1= 매우 중요, 4=전혀 중요치 않음)

	사례수	【중요】	【중요하지 않음】	【모름】	[4점 평균]
한국인으로 느낌	(1000)	82.7	16.3	1.0	1.79
한국어	(1000)	84.4	15.1	0.5	1.80
정치, 법 존중	(1000)	82.6	16.8	0.6	1.84
국적	(1000)	81.4	18.2	0.4	1.86
거주(생애 대부분)	(1000)	58.9	40.5	0.6	2.26
한국 출생	(1000)	51.6	47.3	1.1	2.38
한국인 조상	(1000)	33.1	65.2	1.7	2.81
유교	(1000)	16.8	80.1	3.1	3.20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 ▶ 4점 평균(1= 매우 중요하다, 4=중요하지 않다)
 최저: 한국인으로 느낌(1.79 = 매우 중요~중요)
 최고: 유교의 가르침(3.20= 중요하지 않음~전혀 중요치 않음)
- ▶ "중요하다"의 비율이 높은 순서
 한국어(84.4%) > 한국인으로 느낌(82.7%) > 법과 정치제도 존중(82.6%) > 국적(81.4%)
- ▶ "중요하지 않다"의 비율이 높은 순서
 유교의 가르침(80.1%) > 한국인 조상(65.2%)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 한국출생 (교육수준별 비교)

- ▶ 1. 한국 출생 (4= 전혀 중요치 않음)

교육 수준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earson chi2(8) = 23.6605 Pr = 0.003)

대학 재학/졸업 > 대학원 이상 > 고졸 이하 순으로 평균점수 높음

		사례수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별로 중요하 지 않 음	전혀 중요하 지 않 음	선택할 수 없 음	계	【중 요】	【중요 하지 않음】	【모 름】	【4점 평균】
전체 응답자		(1000)	18.9	32.7	38.0	9.3	1.1	100.0	51.6	47.3	1.1	2.38
학 력 별	고졸 이하	(194)	28.4	28.9	36.6	4.6	1.5	100.0	57.2	41.2	1.5	2.18
	대학 재학 /졸업	(685)	16.8	32.1	39.3	10.8	1.0	100.0	48.9	50.1	1.0	2.45
	대학원 이 상	(121)	15.7	42.1	33.1	8.3	0.8	100.0	57.9	41.3	0.8	2.34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 유교 (교육수준별 비교)

▶ 2. 유교 (4= 전혀 중요치 않음)

교육 수준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earson $\chi^2(8) = 21.6900$ Pr = 0.006)

대학원 이상 > 대학 재학/졸업 > 고졸 이하 순으로 평균점수 높음

		사례수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별로 중요하 지 않 음	전혀 중요하 지 않 음	선택할 수 없 음	계	【중 요】	【중요 하지 않음】	【모 름】	[4점 평균]
전체 응답자		(1000)	4.0	12.8	40.4	39.7	3.1	100.0	16.8	80.1	3.1	3.20
학 력 별	고졸 이하	(194)	7.7	16.0	44.3	27.8	4.1	100.0	23.7	72.2	4.1	2.96
	대학 재학 /졸업	(685)	3.2	12.0	39.9	42.3	2.6	100.0	15.2	82.2	2.6	3.25
	대학원 이 상	(121)	2.5	12.4	37.2	43.8	4.1	100.0	14.9	81.0	4.1	3.28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 법과 정치제도 존중 (교육수준별 비교)

▶ 3. 법과 정치제도 존중 (4= 전혀 중요치 않음)

교육 수준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earson $\chi^2(8) = 17.0675$ Pr = 0.029)

대학원 이상 > 대학 재학/졸업 > 고졸 이하 순으로 평균점수 높음

		사례수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별로 중요하 지 않 음	전혀 중요하 지 않 음	선택할 수 없 음	계	【중 요】	【중요 하지 않음】	【모 름】	[4점 평균]
전체 응답자		(1000)	36.6	46.0	13.2	3.6	0.6	100.0	82.6	16.8	0.6	1.84
학 력 별	고졸 이하	(194)	36.6	40.7	15.5	5.7	1.5	100.0	77.3	21.1	1.5	1.90
	대학 재학 /졸업	(685)	35.8	47.6	13.6	2.9	0.1	100.0	83.4	16.5	0.1	1.84
	대학원 이 상	(121)	41.3	45.5	7.4	4.1	1.7	100.0	86.8	11.6	1.7	1.74

결과 III(1): 한국인의 자격조건 – 거주지역별 비교

- ▶ 3. 거주지역에 따라 한국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 한국인의 자격조건 (KGSS/ISSP 2013 국가정체성 모듈)

Q.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1. 매우 중요하다, 2. 다소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론

- ▶ 실제 이주민 비율과 응답자가 느끼는 이주민 비율의 차이
 -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거주지역의 이주민 비율(평균)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
- ▶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 이주민과 접촉 빈도
- ▶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
 - 여성이 주로 남성보다 더 이주(한국에 거주하려 오는 외국인의 수)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경제, 일자리, 한국문화 훼손)가 부정적이다.
- ▶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인의 자격조건 중 한국 출생, 유교, 법과 정치제도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음

